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현대 한국어 ‘-를’ 중출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2014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박 성 미

현대 한국어 ‘-를’ 중출문의 의미와 통사 연구

박 성 미

기존 ‘-를’ 중출문 혹은 ‘-를’과 관련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를’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화용적 기능을 구분하지 않은 채 격조사 ‘-를’과 보조사 ‘-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다. 또한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 층위 간에 연관성을 고찰하는 논의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본고는 ‘-를’ 중출문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통사 층위에서 격조사 ‘-를’의 기능과 담화 층위에서 초점 표지 ‘-를’의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그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나열식으로 설명된 ‘-를’ 중출문을 ‘-를’의 성격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그 정보 구조를 분석하였다.

본고의 ‘-를’ 중출문은 형태적으로는 ‘-를’이 두 번 출현한 구문이며, 통사적으로는 단문의 타동사 구문이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비중출문과 비교하여 의미적 현저성을 드러내는 구문이다. 이러한 ‘-를’ 중출문에서 ‘-를’은 비록 그 형태는 같지만 결합하는 대상 및 분포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가 달랐다. 이에 따라 본고는 ‘-를’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를’ 중출문을 크게 무표적 ‘-를’ 중출문과 유표적 ‘-를’ 중출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유표적 ‘-를’ 중출문은 다시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과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으로 나누었다.

무표적 ‘-를’은 전형적인 대격조사 ‘-를’이며, 유표적 ‘-를’은 비대격이나 비논항에 결합하여 비전형적인 쓰임을 보이는 ‘-를’이다.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은 다른 더 적합한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를’이며, 분포-유표적 ‘-를’은 격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쓰인 ‘-를’이다.

각 유형의 정보 구조를 분석한 결과, 무표적 ‘-를’ 중출문은 하의 관계 유형을 제외하면 ‘-를’이 결합한 두 논항 간에 화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가 모두 가능하였다. 이것은 ‘-를’이 통사 층위에서는 격 표지 기능을 하지만, 담화 층위에서

는 맥락에 따라 초점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격조사 ‘-를’이 유표적으로 쓰일수록 담화 층위에서 ‘-를’이 갖고 있던 초점 의미가 통사 층위에서 부각되는 경향성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즉 무표적 ‘-를’, 형태-유표적 ‘-를’, 분포-유표적 ‘-를’로 갈수록 통사 층위에서 ‘-를’의 초점 의미가 현저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분포-유표적 ‘-를’은 담화 층위에서 ‘-를’의 초점 의미가 통사 층위에서 ‘강조’ 의미로 문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주요어: ‘-를’ 중출문, 통사 층위, 담화 층위, 정보 구조, 화제, 초점, 격조사, 보조사, 대격, 논항, 문법화

학 번: 2012-22860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대상 및 목적.....	1
1.2. 선행 연구.....	3
1.3. 논의의 구성.....	7
2. 기본적 논의.....	9
2.1. 격조사, 보조사의 ‘-를’.....	9
2.2. 초점, 화제의 ‘-를’.....	16
2.2.1. 초점과 화제.....	17
2.2.2.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	24
3. ‘-를’ 중출문의 유형.....	34
3.1. ‘-를’ 중출문의 형성 조건.....	34
3.2. 무표적 ‘-를’ 중출문.....	39
3.3. 유표적 ‘-를’ 중출문.....	44
3.3.1.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	44
3.3.2.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	47
3.4. 소결.....	52
4. 무표적 ‘-를’ 중출문.....	54
4.1. 부분 관계 중출문.....	54
4.2. 수량 관계 중출문.....	61
4.3. 하의 관계 중출문.....	67
4.4. 소결.....	72

5. 유표적 ‘-를’ 중출문.....	74
5.1.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	74
5.1.1.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	74
5.1.2. 여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	79
5.1.3.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	83
5.2.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	87
5.2.1. 어기에 결합한 ‘-를’ 중출문.....	88
5.2.2. 어미에 결합한 ‘-를’ 중출문.....	92
5.2.3. 부사(어)에 결합한 ‘-를’ 중출문.....	95
5.3. 소결.....	100
6. 결론.....	102
참고문헌.....	105
<ABSTRACT>.....	114

1. 서론

1.1. 연구 대상 및 목적

본고는 ‘-를’¹⁾ 중출문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를’ 중출문의 형성 조건을 분석해 봄으로써 기존에 나열식으로 분류된 ‘-를’ 중출문의 유형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를’ 중출문의 각 유형들을 토대로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구분을 통해 ‘-를’의 격 표지로서의 기능과 초점 표지로서의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를’의 격조사 및 초점 표지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를’ 중출문은 형태, 통사, 의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형태적으로는 어느 문장 성분, 격, 품사 단위에서든지 ‘-를’이 결합된 성분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구문이다.

- (1) ㄱ.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 ㄴ. 영이가 동생을 미국을 보냈어.
- ㄷ. 영이가 공부를 좋아를 한다.
- ㄹ. 영이가 책을 빨리를 읽는다.

(1ㄱ)은 ‘-를’이 모두 대격 논항 명사구에 결합된 반면에, (1ㄴ)은 ‘-를’이 대격 논항 및 처격 논항에 결합되었다. (1ㄷ, ㄹ)에서는 논항뿐만 아니라 비논항인 어미와 부사에도 ‘-를’이 결합되고 있다.

둘째, 통사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출현하는 단문의 타동사 구문이다.

- (2) ㄱ. 영이가 울음을, 철이가 웃음을 보였다.

1) 본고에서는 조사 ‘-을/를’의 대표형으로 ‘-를’을 취한다. 그리고 문헌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표기하도록 한다. 가령 문헌에서 ‘을/를’, {를}, ‘을’이라고 언급한 경우,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ㄴ. 영이가 하늘을 10분을 날았어.

(2ㄱ)과 같이 복문에서는 ‘-를’이 두 번 이상 출현하는 것이 통사적으로 전혀 특별한 현상이 아니므로 단문으로 한정한다. 또한 자동사 구문에서는 ‘-를’이 두 번 이상 출현하기란 어려우므로 타동사문으로 한정한다. 물론 (2ㄴ)과 같이 자동사문일 지라도 이동 동사일 경우에는 ‘-를’ 중출문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2ㄴ)의 ‘10분을’과 같이 부가어에 결합한 ‘-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 그 형성이 다소 제약적이다. 부가어에 ‘-를’이 결합한 구문은 타동사구문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기에 자동사문은 본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셋째, ‘-를’ 중출문은 ‘-를’이 중출되지 않은 일반 타동문과 비교하였을 때 의미적 유효성을 드러내는 구문이다.

(3) ㄱ. 영이가 딸을 학교를 보냈어.

ㄴ. 영이가 딸을 학교에 보냈어.

(4) ㄱ. 영이가 남편을 미워를 해.

ㄴ. 영이가 남편을 미워해.

(3ㄱ)은 처격 논항 ‘-를’이 결합되어 있으며 (4ㄱ)은 격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를’이 결합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응되는 (3ㄴ), (4ㄴ)의 문장과 비교해 문장 차원에서 의미적 유효성이 실현된다.

이상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인 ‘-를’ 중출문을 살펴보면 ‘-를’이 결합하는 성분이 크게 대격 논항, 비대격 논항, 비논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를’ 중출문을 대응하는 비중출문과 비교하였을 때 의미적 유효성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를’이 결합하는 성분에 따라 ‘-를’의 기능 및 의미 또한 달라지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를’ 중출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통사 층위 또는 담화 층위 어느 한 쪽에 서서 ‘-를’ 중출문을 바라보거나, 두 층위를 혼동해서 해석함에 따라 ‘-를’이 결합한 성분뿐만 아니라 ‘-를’이 중출된 전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밖에 없

었다. 더욱이 같은 통사 층위 내에서의 분석임에도 ‘-를’의 통사적 지위 및 의미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일관된 해석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구분을 통해 ‘-를’ 중출문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사 ‘-를’의 기능 및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를’ 중출문에서 ‘-를’이 결합하는 대상에 따라 ‘-를’의 격조사로서의 성격 및 초점 표지로서의 성격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를’ 중출문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접근 방법 면에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제의식이 ‘-를’ 중출문에서부터 시작된 논의이며, 둘째는 문제의식이 ‘-를’의 다양한 쓰임 및 의미에서 시작되어 이를 ‘-를’ 중출문에 적용한 논의이다. 첫째, 문제의식이 ‘-를’ 중출문에서부터 시작된 논의를 보자. 이 논의들은 ‘-를’ 중출문과 비중출문을 비교하였을 때 ‘-를’ 중출 구성이 독특한 구성임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독특한 구성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그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장 변형의 관점(성광수 1974, 1981, 1982, 1990, 이윤표 1999 등), 문장 대응의 관점(이선희 2004, 고석주 2004 등), 문장 변환의 관점(우형식 1996)이 있다.

우선 문장 변형의 관점은 ‘-를’ 중출문이 심층 격에서 의무적인 변형 외에 수의적인 변형을 겪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문장 대응의 관점은 서술어가 논항 구조로 ‘-를’을 두 번 취한 ‘-를’ 중출문과 다른 조사를 취한 비중출문의 차이는 서술어의 어휘 의미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문장 변환의 관점은 서술 구조(predicate frame)를 바탕으로 하여 문장이 전이 또는 확대를 경험한 것으로 본다.²⁾ 변환은 서술어의 어휘 의미에서 기인한다는 관점에서 이선희(2004)와 비슷하지만, 서술어의 기저 구조를 상정하는 규칙이라는 점에서는 성광수(1974, 1981, 1982, 1990)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를’ 중출문에서 ‘-를’의 쓰임을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를’ 중출문의 도출 과정에 관심

2) 우형식(1996:28)에서는 변환(shift)을 변형(transformation)과 다른 개념으로 본다. 변환은 서술어가 가지는 서술 구조(predicate frame)를 바탕으로 하는데, 서술 구조란 서술 동사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명사성분을 격 표지만으로 표시하는 구문의 형식적인 모형이다.

을 두지 않는다. 단지 ‘-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를’ 중출문과 대응하는 비중출문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제 둘째, 문제의식이 ‘-를’의 다양한 쓰임에서 시작된 논의를 보자. 이 논의들은 ‘-를’을 격조사로 볼 경우 해석이 되지 않는 ‘-를’의 다양한 쓰임에 주목하여 ‘-를’의 고유 의미를 설정하고 이를 ‘-를’ 중출문에 적용하였다. ‘-를’의 고유 의미를 설정하면서도 격 표지가 주 기능인지, 의미 부여가 주 기능인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조사로서 구체적인 ‘-를’의 지위가 다르다. ‘-를’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5) ‘-를’에 대한 입장

- ㄱ. 격조사 중심의 다의어적 입장: 신현숙 1982, 성기철 1994
- ㄴ. 격조사 ‘-를’과 보조사 ‘-를’을 별개로 보는 동음이의어적 입장³⁾: 임홍빈 1979⁴⁾, 이상규 1980, 이광호 1994
- ㄷ. 보조사적 쓰임에 더 무게를 두거나 보조사로만 보는 입장: 신창순 1979, 왕문용 1983, 유동석 1984, 홍재성 1987, 류구상 1989, 선우용 1994, 남윤진 2000, 고석주 2004, 목정수 2003^{ㄴ)}, 이은교 2008
- ㄹ. 담화 층위의 개념인 초점 또는 주제화로 보는 입장: 김귀화 1988, 김재윤 1992, 이수련 2009
- ㅁ. 이행성 또는 원형대상역 표지: 손인호 1994, 이선희 2004

(5)의 논의들은 비록 ‘-를’ 중출문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를’ 중출문에서 ‘-를’의 정체 및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 중출된 ‘-를’의 정체를 밝히는 작업은 중출된 ‘-를’ 성분 중 무엇이 진정한 목적어인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

3) ‘-를’의 의미에 집중하였지만 그 용어는 한정사(목정수 2003^{ㄴ)}), 양태조사(신창순 1979, 유동석 1984, 고석주 2004), 특수조사(선우용 1994, 류구상 1989), 보조사(남윤진 2000, 이은교 2008), 주제 첨사(임홍빈 1972), 후치사(이상규 1980) 등 논저마다 상이하다. 본고는 격조사와 대비되는 조사를 학교 문법의 용어를 따라 보조사로 부르고자 한다.

4) 임홍빈(1979)에서는 모든 ‘-를’을 주제화 표지라고 보지 않고, 비대격에 결합한 통사 상의 잉여 성분에 결합한 ‘-를’을 ‘-를’ 주제화로 본다. 통사 층위와 의미·화용 층위의 개념이 같은 선상에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통사 층위와 의미·화용 층위를 분리하여 통사 층위에서 대격 이더라도 의미·화용 층위에서 초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지며, 나아가 진정한 목적어가 아닌 ‘-를’은 어떤 의미를 지는지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 다음은 중출된 ‘-를’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6) 중출된 ‘-를’에 대한 입장

ㄱ. 모두 목적어로 보는 입장: 김영희 1988

ㄴ. 진정한 목적어를 가려내는 입장: 서정수 2013, 양정석 1987, Shibatani 1976, Ryu 2013, 유형선 2001, 임홍빈 2007

(6ㄴ)의 논의에서는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를’이 첨가된 명사구는 목적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를’ 중출문은 목적어 중출문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정한 목적어가 하나라면 나머지 ‘-를’과 결합한 성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음은 ‘-를’ 중출문을 분석하면서 목적어가 아닌 나머지 ‘-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7) ‘-를’ 중출문에서 진정한 목적어가 아닌 ‘-를’에 대한 입장

ㄱ. 대격 ‘-를’: 서정수 2013, Shibatani 1976, Ryu 2013, 양정석 1987

ㄴ. 보조사 ‘-를’: 유형선 2001

ㄷ. 주제 또는 초점 ‘-를’: 임홍빈 2007, 신현숙 1982

ㄹ. 이행성 표지: 손인호 1994, 이선희 2004

(7)은 앞에서 살펴본 ‘-를’의 다양한 쓰임에 주목하여 ‘-를’에 특정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를’을 격조사로 볼 것인지 보조사로 볼 것인지 또는 격조사와 보조사적 쓰임을 모두 인정하는지에 대한 입장과도 연관된다.⁵⁾

이제 (7)의 분류에 따라 대표적인 논의들을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를’을 대격으로 보는 입장이다. Shibatani(1976)에서는 겹목적격 문장에서 목적어는 하나뿐이며 그 밖의 명사구는 단지 대격 명사구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겹목적어

5) 하지만 (7)의 논의들이 목적어가 아닌 ‘-를’을 보조사로 본다고 하여서, ‘-를’을 모두 보조사로 본 것은 아니다. 격조사 ‘-를’을 인정하면서 보조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다의어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를’을 모두 보조사로 설정한 논의들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double-object) 문장은 있을 수 없고 겹대격(double-accusative) 문장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Ryu(2013)에서는 ‘-를’ 중출문을 대격 중출문이라고 하면서도 대격 중출문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Ryu(2013:3)에서는 서술어의 결합가를 포화시킬 경우 즉, 두 명사구 모두 서술어의 논항이 될 경우에는 대격 중출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아래와 같은 수여 동사 구문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 (8) Hans-ka {Maria-eykey / Maria-lul} kkoch-ul cwu-ess-ta.
Hans-NOM Maria-DAT/-ACC flower-ACC give-PAST-DECL.
‘Hans gave Maria flowers.’

다음은 ‘-를’을 보조사로 보는 입장이다. 유형선(2001)에서는 이중목적어를 인정하지 않고 ‘-를’과 결합한 성분의 논항 여부, 명사구 간의 관계에 따라 진정한 목적어를 판별하였다.

- (9) ㄱ. 철수가 낚시질을 세 시간을 하고 있다.
ㄴ. 철수가 낚시질을 하고 있다.
ㄷ. *철수가 세 시간을 하고 있다.

(9)에서 ‘낚시질’이 목적어이므로 ‘세 시간’에 결합된 ‘-을’은 목적어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목적어가 아닌 ‘-를’은 격조사로서가 아니라 강조 의미의 특수조사로서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를’을 주제로 보는 입장이다. 임홍빈(2007)에서는 ‘-를’ 중출문에서 목적어는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잉여 성분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를’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른 격 성분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는 ‘대응설’, 속격이나 여격이 동사로부터 대격을 받는 것으로 보는 ‘대격설’, 제 1 ‘을/를’ 성분을 초점으로 보는 ‘초점설’로 나누어 각 입장들의 한계를 지적하였다.⁶⁾ 결론적으

6) 임홍빈(2007: 697)에서는 대응설은 정확한 대응 성분의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격설은 대격이 어휘부의 논항 정보에 의하여 분석되는 것이라면, ‘을/를’ 중출 구성의 모든 ‘을/

로 임흥빈(2007:687)에서는 속격 및 여격 성분의 ‘을/를’ 중출 구성에서 속격 및 여격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을/를’ 성분은 통사 분석의 잉여 성분으로, ‘을/를’ 주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를’의 다양한 쓰임을 포괄하기 위하여 격조사, 보조사, 초점 또는 주제 표지로서 ‘-를’이 아닌 전혀 다른 ‘-를’의 기능 및 의미를 설정한 논의도 있다. 손인호(1994)에서는 ‘-를’을 타동문에서 동사구(VP)에 관할되는 쓰임을 확인하고 타동사구와의 연관성을 중시하여 ‘-를’을 이행성(transitivity) 표지로 보았다. 또한 이선희(2004)에서는 다양한 동사 구문에서 ‘-를’을 동반하는 논항 명사항은 항상 원형 대상역의 일반적 특성들을 가지며, 조사 ‘-를’은 원형 대상역(Proto-Patient)을 자신의 고유 의미로 가진다고 결론지었다.

본고는 ‘-를’의 기능을 격 표지인지 의미 부여인지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를’을 통사적으로는 대격 표지 기능을 하며 의미·화용적으로는 초점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또한 통사 층위에서 담화 층위의 초점 의미만이 부각되어 보조사적 쓰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즉 격조사 ‘-를’이 중심이 되 고유의 의미도 있다는 다의어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에서 ‘-를’에 대한 본고의 견해를 더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1.3. 논의의 구성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를’의 통사상의 위치 및 의미·화용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논의를 진행한다. 우선 2.1장에서는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구별을 통하여 ‘-를’의 기능 및 의미를 고찰해 본다. 통사 층위에서 전형적인 ‘-를’의 쓰임은 대격 조사임을 강조하고 ‘-를’이 격 표지 기능을 하지 않는 비전형적인 쓰임을 보일 때 ‘-를’의 해석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거론되어 온 ‘-를’의 보조사로서의 의미는 ‘-를’이 담화 층위에서 갖는 ‘초점’ 의미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를’ 성분이 어휘부 정보에 의하여 분석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함을 지님을 지적하였다. 초점 설은 초점의 개념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을/를’ 성분이 반드시 신정보는 아니므로 결함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임흥빈(2007: 675-698) 참조.

2.2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초점’과 ‘화제’의 의미를 분명히 할 것이다.

3장에서는 격 중출이라는 공통점 아래에 있는 ‘-를’ 중출문과 ‘-이/가’ 중출문을 비교하여, ‘-를’ 중출문의 형성 조건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를’을 대격 논항에 결합하는 무표적 ‘-를’, 비대격 논항에 결합하는 형태-유표적 ‘-를’, 비논항에 결합하는 분포-유표적 ‘-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를’ 중출문의 유형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4장과 5장에서는 본고에서 새롭게 분류한 ‘-를’ 중출문의 유형별 의미·통사적 특징을 살펴본다. 본고의 가설은 무표적 ‘-를’, 형태-유표적 ‘-를’, 분포-유표적 ‘-를’로 갈수록 ‘-를’의 초점 의미가 부각된다는 것이다. 먼저 4장에서는 무표적 ‘-를’ 중출문의 하위 유형별 정보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고, ‘-를’의 격 표시 기능과 초점 의미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5장에서는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과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의 하위 유형별 통사적 특징 및 정보 구조를 분석해 본다. 유표적 ‘-를’의 성격에 따라 ‘-를’의 초점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관심을 두고 그 상관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유표적 ‘-를’과 초점 의미 간의 상관관계를 실제 말뭉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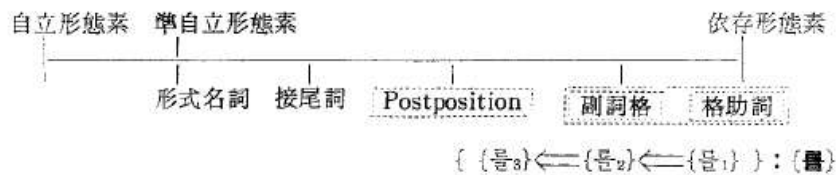
2. 기본적 논의

2.1. 격조사, 보조사의 '-를'

이 절에서는 격조사 '-를' 이외의 쓰임에서 '-를'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본고의 '-를'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를'은 대격에 결합할 뿐만 아니라 비대격에도 결합한다. 심지어 어기, 어미, 부사와 같은 비논항에도 결합한다. 이렇게 '-를'이 격조사 이외의 다양한 쓰임을 보인 데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를'이 원래는 의미가 전혀 없던 문법 형태소였으나 점차 어떤 의미를 획득해 갔다는 설명이며, 다른 하나는 '-를'이 의미를 가지는 문법 형태소였으나 점차 의미가 없는 문법 형태소의 기능을 획득해 갔다는 설명이다.

이상규(1980)에서는 공식적으로 '-를'이 문법기능 범주와 의미기능 범주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대격의 {를₁}, 의미 한정 기능 보이는 부사격과 교체되는 {를₂}, postposition의 분포를 보이는 {를₃}으로 구분한다.

(1) 이상규(1980: 126)에서 제시한 '-를'의 분포



이상규(1980:126)에서는 (1)에서 '-를'이 의존형태소의 범주에서 준자립형태소로 다가가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문법기능어에서 의미 한정 기능의 기능을 획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였다.

반면 선우용(1994)에서는 ‘-를’이 기원적으로는 ‘비대조적 대립, 동작성, 강화’를 그 의미로 가지는 양태조사였으나 동사구 내부에서만 출현함에 따라 격조사적인 기능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를’의 의미로 [+동작성]을 상정하였다. 이 동작성의 의미 기능으로 인해 주로 동사구 내부에 통합되면서 ‘를’ 통합성분이 동사구 내부의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을 갖게 되고, 격조사적인 기능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상규(1980)의 논의에 따르면 보조사 ‘-를’의 의미는 격조사 ‘-를’의 쓰임에서 파생된 것이며, 선우용(1994)의 논의에 따르면 격조사 ‘-를’의 쓰임은 보조사 ‘-를’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설명은 비록 ‘-를’의 본래 기능에 대한 관점은 다르지만 격조사로서 ‘-를’과 보조사로서 ‘-를’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또한 보조사 ‘-를’과 격조사 ‘-를’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를’이 주로 대격 논항 명사구에 결합한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를’의 기본 기능은 격조사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를’이 격조사 이외의 쓰임을 보이는 것은 격조사 ‘-를’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문법화는 통사 층위에서 어휘형태소가 문법형태소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화용 층위에서 화용론적 추론에 의한 것도 문법화에 포함될 수 있다.

Hooper and Traugott(1993: 75) 대화 함축이 관습화 되면서 의미화되고 (semanticized), 한 형태의 의미적 다의어의 일부가 되는데 이 또한 문법화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Hooper and Traugott(1993)의 논의를 받아들여 김태엽(2001: 7-9)에서는 문법화를 ‘통시적·공시적으로 내용어가 기능어로 바뀌거나 또는 덜 문법적인 기능어가 더 문법적인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은 물론, 담화·화용적인 것에서 통사적인 것으로 바뀌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내용어가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 준내용어가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 기능어가 또 다른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 등의 과정적 변화 양상을 모두 문법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규(1980)에서는 (1)의 {를₁}에서 {를₃}으로의 과정이 일어난 동기를 설명하

지 않았지만, 이는 화용 층위에서 ‘-를’이 지니는 초점 의미가 문법화되면서 기능어가 또 다른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2장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한편 ‘-를’의 기본 기능이 격조사라는 것이지, 격조사 ‘-를’과 보조사 ‘-를’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아래 예문에서 ‘소설책’에 결합한 ‘-을’을 격조사인지는 보조사인지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

(2) 영이가 만화책이 아니라 소설책을 읽어.

(2)에서 ‘소설책’은 목적어이므로 ‘-을’을 격조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에 거론되어온 보조사로서 ‘-를’의 의미 중 하나인 ‘강조’ 의미도 있고, ‘선택 지정’의 의미도 있다.⁷⁾ 따라서 본고는 격조사 ‘-를’을 격 표지 기능 외에도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적 쓰임이 있는 다의어로 보고자 한다.

‘-를’은 주로 대격 논항 명사구에 결합하여 대격 표지 조사로 기능하지만 격조사로 볼 수 없는 ‘-를’의 쓰임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아래 예문 (3)을 보자.

(3) 영이가 책을 좋아를 해.

(3)에서 ‘-를’은 논항 명사구인 ‘책’에도 결합하였지만 비논항 비명사구인 ‘좋아’에도 결합하였다. ‘책’에 결합한 ‘-를’은 목적격 표지로 볼 수 있으며 ‘선택 지정’, ‘강조’의 보조사적 의미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좋아’에 결합한 ‘-를’은 보조사적 의미만을 가질 뿐 목적격 표지로는 볼 수 없다. 이를 통해 ‘-를’이 결합하는 성분에 따라 ‘-를’의 주 기능과 의미가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를’이 결합하는 성분과 ‘-를’의 보조사적 쓰임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 이전에 먼저 보조사로만 해석되는 ‘-를’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7) 후술하겠지만 기존에 논의되어온 보조사 ‘-를’의 의미에는 ‘강조’, ‘선택지정’, ‘대조’, ‘동작성’, ‘대상성’, ‘전체성’ 등이 있다.

‘-를’의 의미를 설정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용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크게 ‘대조’, ‘강조’, ‘선택, 지정’ 등으로 추릴 수 있다.⁸⁾⁹⁾

(4) ‘-를’의 의미

- ㄱ. 강조: 신창순(1976), 왕문용(1983), 선우용(1994), 이은교(2008)
- ㄴ. 선택, 지정: 신창순(1976), 유동석(1984), 양정석(1987), 류구상(1989), 선우용(1994), 고석주(2004), 이은교(2008)
- ㄷ. 대조: 유동석(1984), 류구상(1989), 선우용(1994), 이은교(2008)

하지만 (4)의 의미들은 의미상 전혀 별개의 것들이 아니며, 인과 관계로 도출될 수 있는 개념들이다. ‘선택 지정’된 개체는 선택되지 않은 다른 개체와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이다. 류구상(1989)에서도 ‘대립, 선택, 지정’의 각 의미는 인과 관계에 의해서 도출된 의미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화자가 대상에 대한 상호 ‘대립’ 상황을 인식할 경우 그 대상 중 하나를 ‘선택(지적)’함으로써 ‘지정(초점화)’

8) 가령 선우용(1994)에서는 ‘강조’라는 용어 대신 ‘강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류구상(1989)에서는 ‘대조’라는 용어 대신 ‘대립’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지만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유동석(1984)에서는 ‘-를’의 ‘배타적 대립’을 ‘선택지정’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선우용(1994: 68)에서는 ‘선택’의 의미기능은 ‘비대조적 대립’의 의미기능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동석(1984)와 선우용(1994)를 ‘선택, 지정’에도 포함시켰다. 논저별로 설정한 ‘-를’의 의미 및 그 정확한 용어는 아래와 같다.

- ㄱ. 신창순(1976): 강조, 지정
 - ㄴ. 왕문용(1983): 강조
 - ㄷ. 유동석(1984): 배타적 대립(선택지정), 대조
 - ㄹ. 양정석(1987): [+지정], [+대상]
 - ㅁ. 류구상(1989): 대립, 선택, 지정
 - ㅂ. 선우용(1994): 배타적 대립, 강화(reinforcement), 동작성(mobility)
 - ㅅ. 목정수(2003ㄴ): 객체지향적, 청자지향적, 과거·미래/저기 지향적, 무정 지향적 운동을 하는 역학체
 - ㅇ. 고석주(2004): 선택 지정
 - ㅈ. 이은교(2008): 지정, 강조, 전체성
- 9) 이외에도 ‘동작성’, ‘대상성’, ‘전체성’ 등이 ‘-를’의 의미로 거론되어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동작성과 대상성은 ‘-를’이 타동구문의 대격 논항에 결합하였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를’이 결합하는 대격 논항은 주로 대상역(theme)을 지니므로, 대상성은 대격 논항의 의미역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또한 ‘전체성’은 ‘-를’이 이동 동사 구문에 쓰일 때 특별히 나타나는 의미로 논의되어 온 것으로 ‘-를’의 일반적인 의미라고 볼 수 없다.

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선우용(1994: 68)에서는 ‘-를’이 ‘지정’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지정’의 의미가 ‘대립, 선택’에서 도출된 것이라기보다 ‘강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선우용(1994)이 ‘강화’를 기본 의미로 설정한 것과는 반대로 고석주(2004)에서는 ‘강조’ 혹은 ‘대조적 강조’의 의미는 굳이 조사 ‘-를’이 아니더라도 ‘문맥’이나 ‘강제’에 의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는 ‘-를’의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이 ‘대조적’으로 파악된다는 것은 ‘대조’되는 다른 것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선택 지정’이라는 것 역시 발화 상황에서 ‘지정’될 수 있는 개체가 여럿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가 ‘선택 지정’되면, ‘선택 지정’된 개체는 그렇지 않는 개체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고석주 2004: 231-232).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 볼 때 ‘선택 지정’, ‘강조’, ‘대조’ 어느 하나만으로는 ‘-를’의 의미를 담아내는 데 충분하지 못한 느낌이다. 본고는 정보 구조적 개념인 ‘초점(focus)’이 보조사 ‘-를’의 의미로 거론된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다고 본다. 초점은 다른 개체가 아닌 특정 개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 지정’은 이러한 초점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강조’는 초점화된 개체에 관심이 부여됨에 따른 초점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조’는 초점화에 의해 선택된 개체의 존재로 다른 개체가 배제되는 데 따른, 초점이 내재적으로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점화는 다른 개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로지 선택된 개체에 만 관심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대조’ 의미는 없다.

물론 ‘-를’ 중출문에서 모든 ‘-를’을 정보 구조적 개념인 ‘초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를’이 격조사 이외의 쓰임을 보일 경우 초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사 층위에서의 통사적 성격이 담화 층위에서의 의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구조적 분석이 ‘-를’의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유의미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기존 논의에서도 격조사 이외의 ‘-를’을 초점 또는 주제 표지로 설정한 바 있다. 임홍빈(1972, 1979, 2007)의 일련의 논의들에서는 대격에 결합한 ‘을/를’과 비대격

에 결합한 ‘을/를’을 각각 통사 층위의 ‘격’, 담화, 화용 층위의 ‘주제’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임홍빈(2007)에서는 비대격에 ‘을/를’이 결합한 경우 어휘부의 논항 정보에 의하여 격으로 분석될 수 없는 잉여성분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잉여 성분에 결합한 ‘을/를’은 문장의 다른 성분이 가질 수 있는 주제 보다 더 유표적이므로, 유표적 주제 표지로 상정하였다.¹⁰⁾

(5) ㄱ. 철수가 동생을 머리를 쓰다듬었다.

ㄴ. 철수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임홍빈 2007: 686)

임홍빈(2007:687)에서는 (5ㄱ)에서 ‘동생을’은 통사 분석의 잉여 성분이다. 임홍빈(2007)에서는 통사 분석의 잉여 성분을 유표적 주제로 설정하므로 ‘동생을’은 주제가 된다. 하지만 주제성은 문장 성분이나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맥락의 문제이다.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6) Q: 철수가 누굴 머리를 쓰다듬었어?

A: 철수가 동생을 머리를 쓰다듬었어.

임홍빈(2007)의 논의를 따른다면 (6Q)의 ‘동생을’은 여전히 통사 분석의 잉여 성분이므로 유표적 주제가 된다. 하지만 맥락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 ‘주제’가 아닌 ‘초점’이 된다. 이에 따라 문장 성분인 목적어에 결합한 ‘을/를’이 소위 잉여 성분에 결합한 ‘을/를’ 보다 더 주제성이 큰 것으로 해석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담화 층위의 개념은 엄연히 통사 층위의 개념과 분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통사 층위와 담화 층위의 구분을 강조하며 담화 층위의 ‘-를’의 의미를 파악한 논의도 있다. 신현숙(1982: 138)에서는 ‘-를’이 문법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를’을 ‘청자의 영역에 새로 도

10) 임홍빈(2007)에서는 문장의 모든 주요 의미 화용적 대상이 주제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무표적 주제와 유표적 주제를 구별할 것을 요구하였다. 무표적 주제는 주제성을 지니는 논항이 속한다. 논항이 될 수 없는 잉여 성분은 유표적 주제에 속한다.

입하거나, 대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화제의 초점을 전하기 위해 ‘주의 집중’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통사 층위에서 ‘-를’의 기능과 담화 층위에서 ‘-를’의 의미를 분리해서 ‘초점’의 개념을 도입하여 ‘-를’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담화 층위에서 ‘-를’의 의미에 집중한 결과 격조사 ‘-를’과 보조사 ‘-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반면 김재운(1982)에서는 격조사 ‘-를’의 기능과 초점화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초점은 화자가 화용론적 동기에 의하여 다른 정보 내용보다 더 두드러지게 전달 통보하는 새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치적 선택’, ‘동격구문구성’, ‘첨가성’으로 갈수록 초점화의 정도가 커진다고 설명하였다.¹¹⁾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그 정도성을 순서화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다. 본고는 이러한 초점화의 정도에 동의하지 않는 바이다. 가령 동격구문구성이 대치적 선택보다 초점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본고는 ‘-를’이 결합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를’의 초점성이 차이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한편 신서인(2014)에서는 ‘이/가’, ‘을/를’이 전형적인 분포를 보일 경우에는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 기능이 두루 실현되지만 부사, 부사어, 어미와 같이 비전형적인 분포를 보이일 경우에는 문법적 기능을 제외하고 의미적, 화용적 기능만이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¹²⁾ 이 논의는 ‘-를’이 결합한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비전형적인 분포를 부사, 부사어, 어미와 같은 비논항에 결합한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함에 따라, 비전형적인 분포를 보이면 문법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은 없으며 의미·화용적인 기능만 있다는 다소 획일적인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비전형적인 분포에는 부사어에 결합한 경우 외에도 격조사 ‘-를’이 두 번

11) 대치적 선택은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를’ 구문, 동격구문구성은 격중출 구문, 첨가성은 복합동사 또는 복합동사구에 수의적으로 첨가된 ‘-를’ 구문이다. 김재운(1982)에서 보인 대치적 선택, 동격구문구성, 첨가성의 예는 아래와 같다.

- (1) 대치적 선택: 돈을 철수를 준다.
- (2) 동격구문구성: 말을 두 마리를 샀다. TV를 제니스를 샀다.
- (3) 첨가성: 친구 집에 찾아를 갔다.

12) 신서인(2014)에서는 ‘이/가’, ‘을/를’의 기능을 기본적인 기능과 부차적인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기능은 주어와 목적어라는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이고, 부차적인 기능은 의미·화용적 기능이다. 의미적 기능은 타동성을 표시하는 것이며, 화용적 기능은 정보 구조를 표시하는 것이다.

출현하는 경우, 격조사 ‘-를’이 아닌 다른 격조사가 쓰일 수 있는 경우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형적인 분포는 전형성의 정도에 따라 다시 더 전형적인 것과 덜 전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기능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서인(2014ㄴ)에서는 신서인(2014ㄱ)의 논의를 발전시켜 대격 중출문에서 ‘-를’의 비전형적인 분포를 문법, 의미, 화용상의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르면 ‘-를’은 대격 표지, 전경화 표지, 타동성 표지, 초점 표지라는 다의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를’의 문법적, 의미적, 화용적 기능 사이에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점진적인 성격을 띤다고 분석하였다. 이 논의는 ‘-를’을 형태는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 문장을 두고 한 층위에서 문법적인 의미와 화용적인 의미를 상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문법적으로 대격 표지 기능을 한다고 하여, 초점 표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7) ㄱ. 영수가 벽에 신문지를 붙였다.
- ㄴ. 영수가 벽을 신문지로 붙였다.
- ㄷ. 영수가 벽을 신문지를 붙였다.

신서인(2014ㄴ)에서는 (7ㄷ)에서 ‘벽을’은 전경화, ‘신문지를’은 초점화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전경화화 초점화는 서로 상보적인 것이 아니다. 영수가 어디에 신문지를 붙였는지 궁금한 맥락이라면, ‘벽을’이 초점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를’이 결합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하되, 통사와 담화 층위를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를’의 문법, 의미, 화용적 기능 사이에 점진성을 파악해 볼 것이다.

2.2. 초점, 화제의 ‘-를’

이 절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를’의 담화 층위에서의 의미인 초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형태 표지 ‘-를’과 초점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화제(topic)보다는 초점(focus)에 대한 논의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다.

2.2.1장에서 초점과 대립되는 개념인 화제와의 관련을 통해 초점의 정보 구조적 위치를 확인한다. 또한 초점의 특성을 정의하고 문장에서 초점이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2.2.2장에서는 초점의 하위분류인 정보 초점과 확인 초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2.2.1. 초점과 화제

정보 구조에서 이분적 관계는 새정보가 기준이 되는지, 구정보가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새정보가 기준이 되는 구조에는 Chomsky(1969), Jackendoff(1972)로 대표되는 ‘초점-전제(Focus-Presupposition)’ 구조가 있고, 구정보가 기준이 되는 구조에는 Gundel(1974)로 대표되는 ‘화제-논평(Topic-Comment)’ 구조가 있다. 본고는 ‘화제-논평’ 구조를 따르되 그 용어는 ‘화제-초점’으로 부르려고 한다. 만약 ‘S NP1-를 NP2-를 V’와 같은 ‘-를’ 중출문에서 ‘NP1-를’이 초점이라면, ‘NP2-를’을 비롯하여 나머지 성분은 비초점인 화제가 된다.

‘초점-전제’ 구조이든 ‘화제-논평’ 구조이든 한 문장은 초점이 되는 요소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점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로 상보적인 것으로 구정보-신정보의 대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발화에 적절한 문장이라면 반드시 신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신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 발화는 의사소통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Gundel and Fretheim(2004)에서는 구정보와 신정보를 두 가지 주어짐성 즉, 지시적 주어짐성(referential givenness)과 관계적 주어짐성(relational givenness)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관계적 주어짐성은 언어 표현과 그에 대응하는 비 언어표현인, 화자와 청자의 마음속에 있는 개체 사이의 관계이다. 반면에 지시적 주어짐성은 X와 Y 두 상보적인 부분으로의 의미적, 개념적 분할이다. X는 문장이 대하여지는 것이고 Y는 X에 대하여 서술되는 것이다. X는 Y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Y의 영역 밖에 있다. 그리고 Y는 X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것으로서, 새로운 정보로 단언되고 질문되는 것이다.

화제와 초점은 각각 관계적으로 구정보와 신정보와 대응된다. 아래 예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8) Q: 철수가 누구를 책을 썼니?

A: 철수가 영이를 책을 썼어.

(9) Q: 철수가 영이를 책을 썼니, 민수를 책을 썼니?

A: 철수가 영이를 책을 썼어.

(8)과 (9)에서 ‘영이’는 의문사에 대한 답으로서 초점이다. 그런데 (7)에서 ‘영이’는 이전 담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시적 신정보이면서 의문사에 대한 답이 되는 관계적 신정보이다. 반면 (9)에서 ‘영이’는 이전 담화에서 언급된 이미 활성화된 개체인 지시적 구정보이지만, 질문에 대한 답인 관계적 신정보이다. 따라서 초점은 지시적 주어집성이 아닌 관계적 주어집성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화제와 초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지시적 주어집성과 관계적 주어집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가지 주어집성이 서로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 화제와 초점을 구분하는데 중요하다. 지시적 주어집성과 관계적 주어집성의 관계는 전영철(2005)에서 나타낸 아래 (10)을 통해 명확히 파악될 수 있다.

(10) 관계적 주어집성과 지시적 주어집성의 관계

관계적 구정보	관계적 신정보
지시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10)에서 지시적으로 신정보이면 관계적으로도 신정보인 초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즉 관계적으로 신정보라고 해서 지시적으로 신정보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앞의 (8A)에서 ‘영이’는 관계적 신정보이지만 지시적으로는 구정보인 것이 이를 보여준다. 이는 관계적 신정보는 지시적으로 구정보일 수도 있으며 신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계적으로 구정보는 지시적으로도 구정보이다.

이러한 초점은 한 문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 된다. Lambrecht(1994)는

초점 구조를 세 유형으로 나눈다. 아래의 술어초점 구조, 논항초점 구조, 문장초점 구조가 그것이다.

(11) 술어초점 구조

ㄱ. What happened to your car?

ㄴ. My car/It broke DOWN.

(12) 논항초점 구조

ㄱ.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ㄴ. My CAR broke down.

(13) 문장초점 구조

ㄱ. What happened?

ㄴ. My Car broke down.

이어서 Lambrecht(1994)는 술어초점 구조는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 문장초점 구조는 제언문(thetic sentences)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정언문과 제언문 구별 기준은 정보 구조로서, 정언문은 화제-평언(topic-comment)(본고의 화제-초점과 대응되는 개념)과 같은 이분적 정보 구조를 가지지만, 제언문은 전체 문장이 초점이 되는 비이분적 정보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를’ 중출문은 논항초점 구조와 문장초점 구조가 가능하다. 즉 제언문과 정언문으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제언문인 문장초점 구조보다는 정언문인 논항초점 구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전 발화의 신정보가 구정정보가 되고, 이전 발화와 비교하여 새로운 정보가 쌓여가는 과정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4) A1: 철수야 넌 뭘 좋아해?

B1: 응, 난 음악을 좋아하지.

A2: 오, 음악을 무슨 음악을 좋아해?

B2: 응, 난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15) Q: 무슨 이야기 중이야?

A: 응, 철수가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한대.

(14)는 대화가 진행되면서 신정보였던 ‘음악’이 구정보가 ‘대중음악’이 아디 신정보가 되는 상황이다. 반면 (15)는 이전 맥락을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진행 중인 대화에 새롭게 참여하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고는 정언문인 논항초점 구조에 한하여 ‘-를’ 중출문에서 ‘-를’이 결합한 두 성분의 정보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초점은 하나의 발화 또는 문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된다. 즉 초점은 음운, 형태, 통사적인 특성과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파악될 수 없다. 전영철(2013ㄴ)에서는 초점이 음운, 형태, 통사적으로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보겠다. 먼저 문장의 어떤 요소든지 간에 강세와 같은 음운론적인 현저성이 있을 경우에는 초점이 될 수 있다.

- (16) ㄱ. [F자라가] 토끼를 물었다.
- ㄴ. 자라가 [F토끼를] 물었다.
- ㄷ. 자라가 토끼를 [F물었다.]

(16ㄱ)은 ‘자라’, (16ㄴ)은 ‘토끼’, (16ㄷ)은 ‘물었다’에 강세가 가해진 경우이다. 맥락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각각을 강세를 실현시키면 강세가 주어진 성분이 초점으로 해석된다. 또한 휴지가 초점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6ㄴ)과 같이 ‘자라가’를 발화하고 ‘토끼를’을 발화하기 전까지 잠시 휴지를 둘 경우, ‘토끼를’에 특별한 음운론적 강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토끼를’이 초점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6ㄷ)의 경우에도 ‘자라가 토끼를’을 발화한 후 잠시 휴지를 둘 경우, ‘물었다’에 특별한 음운론적 강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물었다’가 초점이 된다. 하지만 ‘-를’ 중출문에서는 음운론적 강세를 받을 수 있는 ‘-를’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 (17) ㄱ. *철수가 [F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 ㄴ. 철수가 음악을 [F대중음악을] 좋아해.

(17ㄱ)과 같이 ‘음악’에 음운론적 강세가 놓일 경우 어색하지만, (17ㄴ)과 같이 ‘대중음악’에 강세가 놓일 경우에는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는 ‘화제’와 ‘초점’이 형태 표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화제 표지로는 ‘-는’, 초점 표지로는 ‘-이/가’와 ‘-을/를’이 많이 언급되어져 왔다. 초점 표지인 ‘-이/가’와 ‘-을/를’이 실현된 경우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초점과 관련된다.

- (18) ㄱ. 자라 토끼 물었다.
- ㄴ. 자라가 토끼 물었다.
- ㄷ. 자라 토끼를 물었다.
- ㄹ. 자라가 토끼를 물었다.

(18ㄴ)에서 ‘-가’가 결합한 ‘자라’가 초점이 된다. 하지만 (18ㄱ), (18ㄹ)에서는 ‘자라’와 ‘토끼’ 간의 형태 표지의 차이가 없다. 이 경우에는 동사구 앞에 오는 것이 초점이 된다.

박철우(2003:99)에 따르면 무표적인 어순에서 초점은 동사의 보어들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놓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 자리는 동사 바로 앞자리이기도 하므로 동사 앞 초점(pre-verbal focus)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몇 가지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좁은 초점(본고의 논항 초점)은 인위적인 운율적 돌돌림이 그 수단이 되는데, 그 경우에도 동사 바로 앞에서 그런 운율적인 돌돌림을 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 (19) ㄱ. 어제 미국에서 [_F찬호가] 돌아왔다.
- ㄴ. 찬호가 미국에서 [_F어제] 돌아왔다.
- ㄷ. 찬호가 어제 [_F미국에서] 돌아왔다. (박철우 2003: 101)

또한 한나래(1997)에서는 부사와 양화사가 관련된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정 시에 동사구 바로 앞에 놓인 요소가 부정되는 해석이 자연스럽다.

- (20) ㄱ. 철수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ㄴ. 철수가 열심히 [_F공부를 안] 했다.
 ㄷ. 철수가 공부를 [_F열심히 안] 했다. (한나래 1997: 42)
- (21) ㄱ. 학생들이 출구를 [_F다 안] 했다.
 ㄴ. 학생들이 다 [_F축구를 안] 했다. (한나래 1997: 43)

(20)에서 부정이 되는 것은 각각 ‘공부’와 ‘열심히’이다. 또한 (21)에서 부정이 되는 것은 ‘다’와 ‘축구’이다.

마지막으로 초점이 맨 뒤에 놓이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더 자연스럽다. 영화에 대해서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22)보다는 (23)이 자연스럽다.

- (22) (문맥 : 누가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니?)
철수가 영화를 좋아해요.
- (23) (문맥 : 영화는 누가 어떻게 생각하니?)
 영화는 **철수가 좋아해요.** (박철우 2003: 103)

동사구 앞의 요소가 강세를 받아 초점이 되는 것은 ‘-를’ 중출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래는 ‘철수가 영화를 등을 때렸어’가 발화되는 가정 자연스러운 맥락이다. 철수가 ‘누구’를 때렸는지가 초점이 되고, 이 초점이 대화 과정에서 화제로 작용한다.

- (24) A1: 철수가 [_F누구를] 때렸어?
 B1: 철수가 [_F영화를] 때렸어.
 A2: 철수가 영화를 [_F어디를] 때렸어?
 B2: 철수가 영화를 [_F등을] 때렸어.

그렇다면 ‘-를’이 결합한 두 성분의 화제성과 초점성이 맥락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동사구 앞에 오는 요소가 초점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중 의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Surányi(2006: 7)에서는 헝가리어에서는

다중 의문문 문답에서 다중 초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헝가리어에서는 마지막에 오는 오직 하나의 의문사가 [+foc], [+wh]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wh]의 자질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오는 의문사가 초점이 되는 것은 그것이 헝가리어의 구조적 초점(structural focus) 위치인 동사 바로 앞자리에 오는 분포적인 이유와 함께 강세(pitch accent)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초점이 될 수 없는 나머지 의문문은 언제나 전제되는 집합을 수량화하기 때문에 화제로 해석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어에서도 다중 의문문에서는 뒤의 의문사가 강세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앞의 의문사에 강세를 부여하는 것은 어색하다. 따라서 아래 예문에서 강세를 받는 '어디'에 대한 답인 '머리'가 초점이 되며, '누구'에 대한 답인 '영희'는 화제로 해석된다.

- (25) Q: 철수가 누굴 [_F어디를] 때렸어?
A: 철수가 영희를 [_F머리를] 때렸어.

앞의 의문사 '누구'에 대한 답인 '영희'를 초점으로 만들기 위해 앞의 의문사 '누구'에 강세를 부여하는 것도 어색하다. 동사구 앞에 오는 의문사도 자연스럽게 강세가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의문사를 초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서를 바꿔 앞의 의문사를 뒤로 위치시켜야 한다.

- (26) Q: ^{??}철수가 [_F누구를] 어디를 때렸어?
A: ^{??}철수가 [_F영희를] 머리를 때렸어.
(27) Q: 철수가 어딜 [_F누구를] 때렸어?
A: 철수가 머리를 [_F영희를] 때렸어.

물론 '누구'가 의문사가 아닌 부정대명사가 될 경우에는 약간의 유표적인 억양이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디를'에 강세가 가는 그 억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 예문은 각각 '누구'가 의문사와 부정대명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 (28) Q: 누구 왔어?
A: 영희가 왔어.
- (29) Q: 누구 왔어?
A: 응.

(29)와 같이 ‘누구’에서 ‘누’에 강세가 같 경우에는 부정대명사의 의미로 구체적으로 누가 왔는지가 아닌, 누군가(somebody)가 왔느냐는 물음 즉, 예/아니오 의문문이 된다. 즉 의문사의 의미가 아니므로 다중 의문문이 아니게 되므로, 여전히 의문사 ‘어디’에 대한 답인 ‘머리’가 초점이 된다.

그렇다면 모든 ‘-를’ 중출문의 무표적인 초점은 동사구 앞의 성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표면에 실현된 형태가 ‘-를’로 동일하다고 하여 그 의미 또한 동일할지 의문이다. 만약 중출된 ‘-를’이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이때의 ‘-를’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30) ㄱ. 자라가 토끼를 귀를 물었어.
ㄴ. 토끼가 자라를 간을 찼어.

(30ㄱ)에서는 동사구 앞에 오는 ‘귀를’이 일차적으로 초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30ㄴ)에서는 ‘자라에게’가 아닌 ‘자라를’로 표현됨에 따라, 즉 ‘-를’로 승격됨에 따라 유표적인 의미가 더해진다. 이 경우 승격된 ‘-를’과 동사 앞 위치 중 어느 것이 더 초점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2.2.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은 다시 세분될 수 있다. Vallduví 외(1998)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어온 초점이 두 가지 다른 개념이 혼동되어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초점을 레마(rheme)와 양화적 대조(kontrast)로 분리하였다. 그에 따

르면 레마는 초기 프라그 학파의 초점(focus)과 같다. 레마는 새로운 정보이고, 문맥에서 자유로운 요소이다. 또한 대화가 앞으로 나가게 밀어주는 것이며, 전제되기 보다는 단언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과 같다. 반면 양화적 대조는 형식 의미론 연구에서 보여 지는 초점으로 총망라성(exhaustiveness), 대조성(contrastiveness), 확인 운용자(identificational operator) 등의 의미적 운용자 같은 요소이다.¹³⁾

양화적 대조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양화적 대조는 대안집합을 생성하고 양화 영역의 한 종류로 계산을 할 수 있게 한다(Vallduví 외 1998: 83). 양화적 대조가 생성하는 대안집합은 존재적·맥락적으로 결정된다.

(31) John introduced BILL to Sue. (Vallduví 외 1998: 84)

(31)에서 'Bill'은 양화적 대조로 대안집합을 생성한다. 만약 어느 날 저녁 'John'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상황이라면, 대안집합(M)은 'Bill'에 비교될 수 있는 개체들인 $M = \{Bill, Carl, Mark\}$ 가 상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양화적 대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양화적 대조가 만들어 내는 대안집합이 'only'와 같은 운용자로 기능하여 확인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논의가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31)은 'John only introduced BILL to Sue'를 의미한다. 여기서 'Bill'에 가해진 양화적 대조는 대안집합을 생성시키고, 차례로 대안 명제를 떠오르게 하며, 동시에 'only'는 총망라성(exhaustiveness)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면 양화적 대조의 확인적 효과는 존재하지 않으며, 'only'와 같은 명시적인 운용자의 도움 없이, 양화적 대조가 근원적으로 총망라성(exhaustiveness)을 가지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그리고 총망라성을 확인적 효과가 지니는 대화상의 함축으로 분석하는 것이 낫다는 논의도 있다. (Vallduví 외 1998: 84-85) 이상의 서로 다른 논의들은 비록 양화적 대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다르지만, 양화적 대조가 대안집합을 동반함에 따라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에서 더 나아가 확인적 의미 혹은

13) Vallduví 외(1998:81)에서는 용어를 다소 특이한 철자인 'Kontrast'로 한 이유를 기존의 contrast와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기존의 대조와 구분하기 위해 양화적 대조라고 부르겠다.

은 총망라적 의미와 같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É. Kiss(1998)에서도 초점을 일종의 대안집합을 동반하여 연산자와 같은 기능을 하는 확인 초점(identificational focus)과 대안집합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히 전제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초점(informational focus)으로 구분하였다. 그가 말하는 확인 초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32) The function of identificational focus : An identificational focus represents a subset of the set of contextually or situationally given elements for which the predicate phrase can potentially hold; it is identified as the exhaustive subset of this set for which the predicate phrase actually holds.

확인 초점은 맥락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개체들의 집합의 부분 집합에 해당한다. 이러한 확인 초점은 정보 초점과 공유할 수 없는 의미, 통사적 속성을 지닌다. 우선 확인 초점은 단순히 전제되지 않은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 초점과 달리 총망라적인 확인(exhaustive identification)을 나타낸다. 또한 확인 초점은 구별되는 위치 없이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정보 초점과 달리 특정 구조적 위치를 지니기도 한다. 헝가리어의 경우 동사 바로 앞(preverbal) 자리, 영어의 경우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이 그것이다.

김용범(2004: 35-37)에서는 É. Kiss(1998)가 확인 초점을 ‘맥락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개체들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설명한 것에 근거하여, 확인 초점은 화자와 청자가 맥락적, 상황적으로 대안 집합의 개체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정보 초점에 비해 대안 집합의 크기가 작다고 설명하였다. 김용범(2004)에서 정리한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33) 확인 초점

- ㄱ. 대안집합의 원소들은 화맥에 언급된 활성화된 개체들이다.
- ㄴ. 대안집합의 크기는 작다.

ㄷ. 강한 배타성 함축을 지닌다.

(34) 정보 초점

ㄱ. 대안집합은 비생소한(non-brand-new) 대상이다.

ㄴ. 대안집합의 크기가 크고 배경지식이나 어휘의미에 의해 불특정 다수로 정의된다.

ㄷ. 배타성의 함축이 약하다.

하지만 (33ㄴ)과 (33ㄷ)에서 대안집합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을 가르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김용범(2004: 37)에서도 정보초점의 대안집합은 주로 어휘의 외연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어휘의 외연은 청자나 화자의 어휘지식 혹은 배경지식에 따라 다소 유동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대안 집합의 크기보다는 대안 집합의 활성화 유무와 강한 배타성의 함축 즉 총망라성에 더 중점을 두고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을 구분하고자 한다.¹⁴⁾

전영철(2005)에서는 한국어에서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은 모두 ‘-가’와 ‘-를’로 실현되어 형태론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지만, 지정된 개체가 지정 기준에 합당한 개체의 전부인지 유무인 총망라성의 유무로 구분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확인 초점이 지니는 총망라성의 의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 É. Kiss(1998: 249-250)에서는 총망라성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Szabolci(1981)의 총망라성 검증과 Donka Farkas(personal conversation)의 부정을 통한 검증을 소개하였다. 예문을 통해 차례로 살펴보자. 먼저 Szabolci(1981)의 총망라성 검증이다.¹⁵⁾

(35) ㄱ. Mari **egy kalapot és egy kabatot** nézett ki magának.

Mary a hat.ACC and a coat.ACC picked out herself.to

‘it was **a hat and a coat** that Mary picked for herself.’

ㄴ. Mari **egy kalapot** nézett ki magának.

14) 김용범(2004)에서는 강한 배타성의 함축과 exhaustivity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15) 예문(35~38)에서 굵은 글씨와 대문자는 원문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it was **a hat** that Mary picked for herself.'

(36) ㄱ. Mari ki nézett magának EGY KAKAPOT ÉS EGY KABÁTOT..

Mary out picked herself.DAT a hat.ACC and a coat.ACC.

'Mary picked A HAT AND A COAT for herself.'

ㄴ. Mari ki nézett magának EGY KAKAPOT.

'Mary picked A HAT for herself.' (É. Kiss 1998: 250)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논리적 귀결(logical consequences)이 아니면, 초점은 총망라적인 확인을 나타낸다. (35ㄴ)은 (35ㄱ)의 논리적 귀결이 아니므로 총망라적 확인이 있는 확인 초점이다. 반면 (36ㄴ)은 (36ㄱ)의 논리적 귀결이므로 총망라적인 확인이 없는 정보 초점이다. 이것은 (35ㄴ)이 헝가리어의 경우 동사 바로 앞 자리의 확인 초점, 영어의 경우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Donka Farkas의 부정을 통한 총망라성 검증을 보인 것이다.

(37) A: Mari **egy kalapot** nézett ki magának.

Mary a hat.ACC picked out herself.DAT

'it was **a hat** that Mary picked for herself.'

B: Nem, egy kabátot is ki nézett.

no a coat too out picked.

'No, she picked a coat, too.'

(38) A: Mari ki nézett magának EGY KAKAPOT.

'Mary picked herself A HAT.'

B: %Nem, egy kabátot is ki nézett.

%'No, she picked a coat, too.' (É. Kiss 1998: 251)

É. Kiss(1998: 251)는 위의 대화가 'Mary did pick a hat for herself'인 상황을 묘사하므로, 'Mary picking a hat for herself'를 부정하는 것은 오직 총망라성의 부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오직 헝가리어의 동사 바로 앞 확인 초점, 영어의 분열된 성분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7A)는 초점인 ‘egy kalapot’이 동사 바로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38A)는 문장 맨 뒤에 위치하고 있다. 그 결과 초점 성분을 부정할 경우 문법성에 차이를 보여 (37)은 자연스럽지만 (38)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김용범(2004)에서도 Donka Farkas의 총망라성 검증을 따라 한국어에서 총망라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33), (34)를 통해 확인했듯이 확인 초점은 다른 대안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함축하므로, 그 함축이 ‘아니야’ 등의 표현으로 부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정보 초점은 강한 배타적 함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 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39) Q: 철수, 명수, 영희가 모두 갔어?
 (실제로 철수와 명수가 가버린 상황에서)
 A: 철수가 갔어.
 B: 아냐, 철수하고 명수가 갔어. (김용범 2004: 35)
- (40) Q: 동창회에 누가 누가 왔었어?
 (실제로 철수와 명수가 온 상황에서)
 A: 철수가 왔었어.
 B: ?아냐, 철수하고 명수가 왔었어. (김용범 2004: 36)

(39)에서 대안 집합은 주어진 개체 집합의 멱집합(power set)으로 간주될 수 있고, 언급된 개체의 여집합이 부정적으로 함축된다. 즉 대안 집합이 $\{\emptyset, \{\text{철수}\}, \{\text{명수}\}, \{\text{영희}\}, \{\text{철수+영희}\}, \{\text{철수+명수}\}, \{\text{명수+영희}\}, \{\text{철수+명수+영희}\}$ 이 되고 $\{\text{철수}\}$ 이외의 모든 대안 집합 내 요소들이 부정적으로 강하게 함축될 수 있으므로 (39B)가 가능하다. (김용범 2004:35)

하지만 (40B)에서는 ‘아냐’를 통한 부정이 어색하다.¹⁶⁾ 이것은 (40A)가 다른 대안 집합에 대한 부정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2004: 36)에서

16)(40B)의 문법성 판단은 김용범(2004)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안 집합의 크기로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을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화 참여자의 배경 지식, 대화의 맥락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0B)와 비교하자면 (39B)가 더 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4.3장 하의 관계 중출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는 (40)의 대안 집합은 ‘동창회’의 외연(denotation)에 따라 불특정 다수로 상정될 가능성이 많으며, (40A)는 발화자가 알고 있는 적절한 양의 정보를 나타낼 뿐이지 추가적인 함축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대안 집합을 동반하는 초점의 특징 즉 총망라성과 그 확인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총망라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Vallduví(1992)는 양화적 대조가 동반하는 총망라성을 양화적 대조 자체에서 근원하는 것이 아닌, 확인적 효과(identificational effect)에 따른 대화상의 함축으로 분석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Vallduví의 1998: 84-85 재인용) 또한 임동훈(2012:258)에서도 총망라성을 맥락 의존적인 것으로 보고 총망라성에 의한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의 구분을 부정하며 ‘확인 초점’이란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41) Q: 누가 미국에서 왔지?

A: 철수가 미국에서 왔어.

B: (아니야) 찬호도 미국에서 왔어. (임동훈 2012: 258)

(41A)에서 ‘철수’에 총망라성이 있으면 (41B)가 부자연스러운데 이것을 맥락 의존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철수가’는 기본적으로 가로 초점이며 맥락상 한정된 대안 집합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 가로 초점에 세로 초점이 겹쳐진 경우로 분석된다고 설명하였다(임동훈 2012: 258).

하지만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확인 초점은 정보 초점을 전제로 하고 총망라성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총망라성은 형태, 통사적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를 완벽히 가려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경계에 있는 총망라성은 반드시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일종의 대화상의 함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⁷⁾ 하지만 총망라성은 일반적인

17) 총망라성은 술어의 특성, 대안 집합의 유무, 총칭성의 유무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하며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함축과는 구별되어야 할 중요한 의미적 특성이 있다.

먼저 총망라성은 함축과 달리 취소가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보았듯이 김용범(2004)에서는 초점화된 성분이 다른 대안 집합에 대한 배타성의 함축이 강하면 부정이 자연스럽고 배타성의 함축이 약하면 부정이 어색하다고 설명하였다. 배타성의 함축은 곧 총망라성과 연결되는 것인데, 총망라성을 유무가 아닌 강약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함축일지라도 그것의 강도에 따라 취소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주목하여, 강한 함축인 총망라성을 의미론적인 함의로 보는 논의도 있다. É. Kiss. (2009, 2010)에서는 확인 초점이 갖는 총망라성의 의미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으므로 총망라성을 대화상의 함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Van Kuppevelt(1996)에서는 초점화된 수치 요소가 'at least n', 'n or moer'의 의미가 아닌 'exactly n'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화용론적 함축이 아닌, 의미론적 함의라고 설명하였다.¹⁸⁾ (É. Kiss. 2010: 17 재인용) 따라서 총망라성은 대화상의 함축으로만 치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또한 총망라성이 맥락 의존적이라고 하여 동일 형태가 나타내는 다른 의미들을 구분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맥락 의존적인 것은 화제와 초점도 그러하며, 정보 초점과 대조 초점도 그러하다. 단지 화제와 초점, 정보 초점과 대조 초점은 형태 표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비록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은 형태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음성학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김용범(2004)에서는 초점어구의 어절 길이를 측정한 결과 확인 초점의 '가'가 가장 길게 발음되었고 정보 초점의 '가'가 가장 짧게 발음되어,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이 음성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됨을 보였다. 그 결과 피치는 확인 초점, 정보 초점, 대조 초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확인 초점의 '가'가 정보 초

18) 초점화된 수량사구가 지니는 총망라성에 대해서는 4.2장 수량 관계 중출문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9) 전영철(2013₂)에서는 대조 초점 '-는'과 대조 화제 '-는'을 비교하며, 대조 초점의 '-는'이 갖는 함축은 대조 화제의 '-는'이 갖는 함축과 달리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대조 초점의 '-는'이 갖는 총망라성 때문인데, 총망라성으로 인해 대조 초점의 함축은 의미론적인 함의에 가깝다고 설명하였다.

점의 ‘가’보다 더 피치가 높고 길게 발음된다는 사실은 확실하였다.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의 구분은 제언문과 정언문에 명확히 반영된다. 전영철(2013)에 따르면, 비록 초점 표지일지라도 그것이 확인 초점일 경우에는 결코 제언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영철(2013: 113-114)의 논의를 가져와 살펴보자.

(42) Q: 누가 책임질 거야?

A: 내가 책임질 거야.

(43) Q: 무슨 일이야?

A: 공장에 불이 났어요.

(42A)에서 ‘내가’는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 ‘책임질 거야’는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이다. (43A)의 ‘불이’도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이다. 하지만 두 초점이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42A)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라는 총망라성의 의미가 있지만, (43A)에서는 ‘다른 것이 아닌 불’로 해석되지 않는다. 즉 (42A)에서 주격 조사는 총망라성이 있는 확인 초점이지만 (43A)는 총망라성이 없는 정보 초점이다. 전영철(2013: 114)에서는 정보의 강도 측면에서 확인 초점이 정보 초점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정보 초점이 나타나는 경우는 정보 초점 이외의 다른 문장 요소들도 초점으로 함께 실현되어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제언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확인 초점이 나타나는 경우는 확인 초점만이 초점이어서 확인 초점의 초점성이 보다 두드러진다. 이렇게 문장의 종류에도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은 구분되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의 음성학적 차이, 정언문과 제언문에서의 쓰임 차이를 근거로 확인 초점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인 초점도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다.

정리하면,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은 총망라성을 지니는 확인 초점과 총망라성이 없는 정보 초점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총망라성은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동일 형태가 엄연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며 이들이 음성학적으로 다르게 실현되는 사실, 제언문과 정언문에서 구분되어 쓰이는 사실을 근거로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의 구분이 유의미함을 보였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를’ 중출문에서 ‘-를’이 결합

한 논항의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으로서의 해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를’ 중출문의 유형

기존 ‘-를’ 중출문의 유형 분류는 분류에 적용한 서로 다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유형 분류 결과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따라 ‘-를’ 중출문의 현상만을 기술할 뿐 그 통사론적 특성을 면밀히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 ‘-를’ 중출문의 유형과 ‘-이/가’ 중출문의 유형을 비교하여 ‘-를’ 중출문의 특징 및 형성 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기존에 나열식으로 기술되었던 ‘-를’ 중출문의 유형을 ‘-를’의 성격에 따라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3.1. ‘-를’ 중출문의 형성 조건

이 절에서는 ‘-를’ 중출문의 유형을 검토하고 각 유형별 ‘-를’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를’ 중출문은 ‘-를’이 결합하는 성분 간에 어휘적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휘적 관계가 성립하는 ‘-를’ 중출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출문이라는 상위범주 아래서 묶일 수 있는 ‘-이/가’ 중출문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Yang(1972)에서는 ‘-이/가’ 중출문의 유형을 ‘전체-부분(whole-part)’, ‘부류-성원(class-member)’, ‘유형-표시(type-token)’, ‘총계-수량(total-quant)’, ‘피영향자-영향자(affected-affector)’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한편 Ryu(2013)에서는 Yang(1972)의 분류가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며, ‘전체-부분’, ‘부류-성원’, ‘총계-수량’ 유형들을 세분화하였다. 그는 Yang(1972)의 ‘전체-부분’ 유형은 많은 논의들에서 ‘분리 불가능한 소유자-소유물 관계’로 교체되어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부분 관계’의 6가지 하위 유형의 한 하위 유형일 뿐 모든 ‘전체-부분’ 유형이 ‘분리 불가능한 소유주-소유물 관계’와 같은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가령 Yang(1972: 42)에서 ‘전체-부분’ 관계라고 한 ‘무지개가 색이 곱다’와 같은 문장은 실제로는 ‘전체-부분’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색’은 ‘무지개’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Ryu(2013)에서는

‘-이/가’ 중출문을 ‘부분 관계(Meronymic Relations)’, ‘포함 관계(Inclusion Relations)’, ‘질·양 관계(Quality-Quantity Relations)’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을 다시 세분화 하였다. <표 1>은 Yang(1972)의 분류와 Ryu(2013)의 분류를 비교한 표이다.

<표 1> Ryu(2013)의 유형과 Yang(1972)의 유형 비교

		Ryu(2013)		Yang(1972)
conceptual linking	intrinsic relation	Meronymic Relations	Integral	whole-part
			object-component	
			Collection-member	X
			Mass-portion	X
			Object-stuff	X
			Area-place	X
	Inclusion Relations	Class-membership	class-member, type-token	
		Object-attachment	X	
	Quality-Quantity Relations	Object-quality	X	
		Object-quantity	total-quantity	
	extrinsic relation	Spatio-Temporal Relations	Space-object	X
			Time-object	X
		Predication Relations	Possessor-object	X
Object-Predication			X	
Conventional relation			affected-affecttor	

나아가 Ryu(2013)에서는 <표 1>의 각 유형들을 주격 중출문과 대격 중출문에 적용하여 두 중출문 간의 유형 차이를 밝히고 있다. Ryu(2013: 16)에 따르면 주격 중출문은 개념적 관계(conceptual relation)가 유지되면 성립하는 반면에 대격 중출문은 본질적 관계(intrinsic relation)가 유지되어야 한다.

Ryu(2013)에서는 개념적 관계와 본질적 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의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유추해 보자면 본질적인 관계는 두 명사구 간의 일정한 어휘 의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어휘 의미론에서 다루어온 반의

관계(antonymy relation), 하의 관계(hyponymy relation), 동의 관계(synonymy relation), 부분 관계(meronymy relation)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분질적 관계는 두 명사구의 어휘 의미만으로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세상 지식에 근거하여 두 명사구가 관계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Yang(1972)의 피영향자-영향자(affected-affecter) 유형, 이에 대응되는 Ryu(2013)의 관례적 관계(conventional relation) 유형을 들 수 있다.

(1) 존이 딸이 결혼했습니다. (Yang 1972:44)

(2) ㄱ. 독일이 차가 단단하다.

ㄴ. *나는 독일을 차를 좋아한다. (Ryu 2013: 14)²⁰⁾

(1)의 ‘존’과 ‘딸’은 두 어휘만으로는 ‘존’과 ‘딸’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맥락상 ‘존의 딸’이라는 의미를 알 수 있을 뿐이다. (2)에서 ‘독일’과 ‘차’ 또한 ‘독일의 차’가 좋다는 세상 지식에 근거한 관계일 뿐이다.

이선희(2004: 101)에서도 전체-부분의 의미 관계는 중주어 구문에서도 흔히 나타나는데, 중주어 구문의 경우 중목적어 구문에 비해 그 제약이 더 자유롭다고 하였다. 따라서 명사항들이 엄격한 소유주-피소유물, 또는 전체-부분의 의미 관계를 가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화자의 인식에 따라 중주어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 예를 보자.

(3) ㄱ. 영은이가 아버지가 부자라고들 한다.

ㄴ. *정수가 우연히 영은이를 아버지를 만났다. (이선희 2004 :101)

(3)에서 명사항들 사이에 일정한 친족이나 사회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이 명사항들은 동일한 조사 {-가}를 취함으로써 중주어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명사항들 사이의 관계는 화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의미·화용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 한국어로 다시 옮겨 가져온 예문임을 밝혀둔다.

‘-를’ 중출문이 ‘-이/가’ 중출문보다 제약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유동석(1998: 333)에서는 ‘주제어-주어’ 구성에서 주제어는 비의미역 위치에 있는 것이므로 동사와 관련된 해석은 불필요하지만, 목적격 표시된 명사구는 의미역이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동사와 관련된 해석을 보여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제 ‘-이/가’ 중출문과 ‘-를’ 중출문의 공통 유형인 본질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본질적 관계에는 <표1>과 같이 부분 관계, 포함 관계, 질·양 관계 유형이 있다. 부분 관계에서 두 명사구는 전체어와 부분어이다. 포함 관계에서 두 명사구는 상의어와 하의어의이다. 본고는 두 명사구 간의 관계에 따라 이들을 부분 관계와 하의 관계로 부르겠다. 질·양 관계에 속하는 ‘-를’ 중출문을 검토해 보면 ‘대상 명사구-수사/수관형사-수·양의 분류사’의 구성을 보인다. 수뿐만 아니라 양과 관련된 분류사가 관련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이 유형을 수량 관계로 부르코자 한다. 이상에서 두 명사구가 일정한 어휘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를’ 중출문의 유형을 살펴 보았다. 각 유형의 예는 아래와 같다.

(4) ㄱ. 누나가 동생을 팔을 잡았다. (서정수 2013: 697)

ㄴ. 철수는 소녀를, 눈이 유달리 큰 그 소녀를 기억해냈다. (이선희 2004: 100)

ㄷ. 동길이가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손인호 1994: 112)

(4ㄱ)은 부분 관계, (4ㄴ)은 하의 관계, (4ㄷ)은 수량 관계 유형이다. 각 유형에서 두 명사구는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한다. 부분 관계에서는 전체-부분으로, 하의 관계에서는 부류-성원으로, 수량 관계에서는 대상-수량이 한 덩어리가 된다. 이들은 한 덩어리로 별개의 의미역이 아닌 동일한 의미역을 취하여 동사의 논항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²¹⁾ 따라서 이 유형에서 중출된 ‘-를’은 전형적인 격조사 ‘-를’의 쓰임으로 보고, 후술할 비전형적인 ‘-를’과 구분하여 무표적 ‘-를’로 부르코자 한다.

이상에서 ‘-를’ 중출문에서 두 논항 명사구 간에 어휘적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21) 이선희(2004:104)에서도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중목적어 구문은 ‘-를’을 동반하는 전체 명사구들이 하나로서 서술어에 이끌리는 관계에 있으므로 개별 명사구를 동사의 논항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를’ 중출문이 ‘-이/가’ 중출문에 비해 두 논항 명사구간의 관계가 더 제약적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를’ 중출문은 ‘-를’이 결합한 성분 간에 어휘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가’ 중출문에는 없는 다양한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를’이 3항 술어 구문에서 대격을 비롯하여 처격, 여격, 향격의 논항에 결합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5)와 같이 처격, 여격, 향격은 각각의 논항이 취하는 격 표지로 실현되는 대응 구문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5) ㄱ. 주인이 일꾼을 품삯을 주었다. (서정수 2013: 697)
 ㄱ'. 주인이 일꾼에게 품삯을 주었다.
 ㄴ. 농부가 받을 논을 만들었다. (우형식 1996: 123)
 ㄴ'. 농부가 받을 논으로 만들었다.

(5)에서 ‘주다’와 ‘만들다’는 3항 술어이다. ‘주다’는 여격과 대격을 논항으로 가지며, ‘만들다’는 대격과 향격을 논항으로 가진다. 비대격에 결합한 ‘-를’은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를’을 순수한 대격 조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를’을 형태-유표적 ‘-를’로 부르려고 한다. 대격이 아닌 논항에는 그에 적합한 격 표지가 결합할 수 있음에도 ‘-를’이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유표적인 조사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논항에 결합한 ‘-를’을 포함하는 유형이다.

- (6) ㄱ. 아이가 그림을 공부를 한다.
 ㄴ. 아이가 그림을 공부한다. (서정수 2013: 697)
 (7) ㄱ. 일들을 제대로 해. (이은교 2008: 133)
 ㄴ. 나는 생선을 먹지를 못해. (이수련 2009: 188)
 ㄷ. 남녀가 부채춤을 춤을 추었다. (서정수 2013: 697)

(6ㄱ)은 (6ㄴ)의 ‘공부하다’에서 서술성명사(verb noun) ‘공부’와 ‘하다’가 분리되고 서술성명사에 ‘-를’이 결합한 문장이다.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던 것이 분리된

경우로 ‘공부’를 논항이라고 볼 수 없다. (7)은 각각 부사, 부정 보문소, 동족 목적어에 ‘-를’이 결합한 예들이다. 이들도 모두 비논항으로서 격조사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를’이 결합한 예들이다. 본고는 격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비논항임에도 격조사 ‘-를’이 결합한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를’을 분포-유표적 ‘-를’로 부르기로 한다.

지금까지 ‘-를’ 중출문의 형성 조건을 어휘적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어휘적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두 명사구는 부분 관계, 수량 관계, 하의 관계를 이룬다. 두 명사구는 서술어의 대격 논항으로서 동일한 의미역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격 조사 ‘-를’이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격조사 ‘-를’의 전형적인 쓰임으로 보고 비전형적인 쓰임과 구분하여 무표적 ‘-를’로 부르기로 하였다.

비어휘적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를’이 대격 논항과 비대격 논항에 결합하는 유형과, 논항과 비논항에 결합하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비대격 논항에 결합하는 ‘-를’은 다른 격조사가 쓰일 수 있음에도 ‘-를’이 쓰였다는 점에서 형태-유표적 ‘-를’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리고 비논항에 결합한 ‘-를’은 대격 조사뿐 아니라 다른 격조사도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쓰였다는 점에서 분포-유표적 ‘-를’로 부르기로 하였다.

3.2. 무표적 ‘-를’ 중출문

이 절은 앞 절에서 논의한 무표적 ‘-를’ 중출문에 속하는 하위 유형들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표적 ‘-를’은 격조사 ‘-를’이 대격 표지로서의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무표적 ‘-를’ 중출문에는 부분 관계 중출문, 수량 관계 중출문, 하의 관계 중출문이 있다.

1) 부분 관계 중출문

부분 관계는 두 명사구가 전체어와 부분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부분 관계는 후

술할 하의 관계와 같이 두 명사구가 계층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하의 관계에서 상의어와 하의어가 같은 종류에 속하며 서로 독립적이라면, 부분 관계에서 전체어와 부분어는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없으며 독립적이지도 않다. 부분어가 모여 전체어를 이루기 때문이다. 선행 명사구인 전체어는 후행 명사구인 부분어와 서로 다른 종류이다. 따라서 두 명사구 사이에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두 명사구의 순서가 도치될 수 있다.

부분 관계는 비양도성(inalienability) 혹은 분리 불가능한 소유 관계로 설명되어 오기도 했다. 예컨대 손인호(1994)에서는 분리 불가능한 소유 관계인 ‘전체-부분’ 관계와 분리 가능한 소유 관계인 ‘소유자-피소유물’ 관계를 구분한다. 다음 예를 통해 살펴보자.

(8) ㄱ. 아내가 남편의 옷을 고쳤다.

ㄴ. *아내가 남편을 옷을 고쳤다. (손인호 1994: 94)

손인호(1994:94)에서는 (8)과 같이 [소유자+피소유물]의 관계를 맺는 소유 관계 구문은 접목적어 구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전체+부분]의 비분리적 관계가 아니므로, 접목적어로 실현되면 주어 명사구의 동사로 표현된 행위의 영향을 입는 대상이 소유자와 피소유물로 갈라져서 의미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비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유자+피소유물]의 소유 관계가 ‘-를’ 중출문을 이룰 경우, 서술어에 따라 문법성에서 정도성을 보인다.

(9) ㄱ. *아내가 남편을 옷을 다렸다.

ㄴ. ?아내가 남편을 옷을 찢었다.

ㄷ. 아내가 남편을 옷을 당겼다.

(9)는 ‘남편’이 ‘옷’을 입고 있는 상황일수록 ‘-를’ 중출문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다. 비록 분리가 가능한 관계일지라도, 서술어에 의해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유도

될 경우에는 ‘-를’ 중출문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재훈 (2011: 231)에서는 ‘영향받음(affectedness)’과 ‘물리적 근접성’이 대격 중출 구문의 성립 조건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인지적 화용적 요소’라고 설명하였다. 즉 ‘신체부위명사’나 ‘분리 대 비 분리 소유명사’라는 부정확하고 협소한 의미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 정확하게 성립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9c)은 ‘남편’이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주어 ‘아내’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격 중출이 가능하다.

유동석(1998)에서도 분리 불가능한 소유 관계가 지니는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아래 (10)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소유 관계가 아님에도 ‘-를’ 중출문이 성립하는 예가 있기 때문이다.

(10) 이도령이 춘향이를 치마를 잡아당겼다/*쌌다.

유동석(1998: 330-333)에서는 (10)에서 동사 ‘사-’를 서술어로 취할 때는 목적격 중출이 일어나지 않지만 ‘잡아당기-’와 같은 동사를 서술어를 취할 때는 목적격 중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치마’를 대상으로 하여 잡아당기는 행위는 ‘치마’뿐만 아니라 그것의 소유자인 ‘춘향이’에게도 직접 작용하지만, ‘치마’를 사는 행위의 경우 그러한 의미론적 작용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비록 목적격 중출 구성이 분리 불가능한 소유 관계를 보이는 명사구들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현저한 것은 사실이나, 분리 불가능한 소유 관계라는 의미론적인 조건이 (10)과 같은 목적격 중출 구성을 유도하는(/생성하는) 원리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두 명사구가 일정한 어휘 의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명사구와 주어, 서술어 간에 ‘영향받음’, ‘물리적 근접성’이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를’ 중출문은 서술어와의 관계, 주어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두 명사구 간의 어휘 관계가 ‘-이/가’ 중출문 보다 더 제약적인 것이다.

2) 수량 관계 중출문

수량 관계는 수량사구와 수량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 사이에 대상-수량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김영희(1988:70-73)에서는 수량 관계에 있는 '-를' 중출문을 딸림 관계 구문과 매김 관계 구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아래 (11)은 기존 '-를' 중출문의 유형으로 다루어진 수량 관계 구문으로 모두 매김 관계 수량사구이다. (12)의 예들은 딸림 관계 수량사구이다.

- (11) ㄱ. 동길이가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손인호 1994: 112)
 ㄴ. 철수가 친구를 두 명을 만났다. (우형식 1996: 233)
 ㄷ. 인화가 어제 시장에서 밀짚모자를 두 개를 샀다. (이선희 2004: 102)
 ㄹ. 다운이는 꽃을 세 송이를 샀다. (이수련 2009: 180)
 ㅁ. 과일을 포도를 세 근을 샀다. (이은교 2008: 149)
- (12) ㄱ. 영이가 책을 대부분을 기증했다.
 ㄴ. 회사가 사원을 절반을 해고했다.

김영희(2006: 95)에 따르면 (12)의 딸림 관계 수량사구는 전체-부분의 관계를 통사 의미론적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명사와 셈술말 사이에 집합론적인 유-포섭(class-inclusion)의 관계가 성립한다. 본고는 딸림 관계의 전체-부분 관계는 엄밀히 말하면 어휘적 관계를 통해 도출된 의미가 아닌, 맥락에 의해 도출된 의미로 보고 이들을 부분 관계에 포함하지 않고 수량 관계 유형에 포함하고자 한다.

3) 하의 관계 중출문

하의 관계에서 두 명사구는 상의어와 하의어가 된다. 하의어는 상의어를 함의하며, 상의어는 하의어를 함의하지 않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를' 중출문의 유형으로 하의 관계 유형을 설정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이선희(2004), 이수련(2009)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본고의 하의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이선희(2004)에서는 중목적어 구문의 유형을 전체-부분 구성, 수량사 동격 구성,

명사구 동격 구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명사구 동격 구성은 선행 명사구를 뒤따르는 명사구는 의미적으로 구체화된 정보를 덧붙이거나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그 예이다.

(13) ㄱ. 영희는 가방을, 가족으로 된 갈색 가방을 샀다.

ㄴ. 철수는 소녀를, 눈이 유달리 큰 그 소녀를 기억해냈다. (이선희 2004: 100)

(13ㄱ)의 ‘가방’과 ‘갈색 가방’, (13ㄴ)의 ‘소녀’와 ‘눈이 유달리 큰 소녀’는 서로 하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맥락에 의해 두 명사구들은 동일지시체를 의미하여 동격 구성이 된다. 일반적인 하의 관계에서 상의어와 하의어는 동일 지시 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명사구 동격 구성에서 두 명사구의 어휘 의미는 상의어와 하의어를 이루므로 하의 관계의 특수한 경우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하의 관계 유형을 설정한 또 다른 논의로는 이수련(2009)가 있다. 이수련(2009: 181)에서는 제유 관계를 하위어가 상위어의 한 종류를 이루는 표현으로서 이들은 모두 양도가능한 관계(alienable relation)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유형에 ‘수량어 관계 꼴’도 포함시킨 점이다. 그러면서도 하의 관계와 수량 관계를 함께 다룬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하위어가 상위어의 한 종류를 이루는 표현’이라고 설명할 뿐이다. (14)는 이수련(2009)의 제유 관계이다.

(14) ㄱ. 다운이는 꽃을 세 송이를 샀다.

ㄴ. 장미를 노란 것을 주세요. (이수련 2009: 182)

(14ㄴ)은 ‘장미’와 ‘노란 것’이 부류-성원의 관계에 있는 하의 관계 유형이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14ㄱ)은 수량 관계 유형으로 보는 것이 더 언어 직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14ㄱ)과 (14ㄴ)은 아래 예와 같이 통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 (15) ㄱ. *다운이는 꽃을 세 송이로 샀다.
 ㄴ. 장미를 노란 것으로 주세요.

(15ㄴ)은 두 번째 명사구에 향격 조사 ‘-(으)로’가 결합가능 하지만, (15ㄱ)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선행 명사구가 후행 명사구로 결과상태화 되는지 여부와 관련 되는 것으로, (15ㄱ)은 그렇지 못한 것을 통해 두 명사구가 하의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14ㄴ)은 하의 관계에서 분리하여 수량 관계라는 독립된 유형으로 보고자 한다.

3.3. 유표적 ‘-를’ 중출문

이 장에서는 유표적 ‘-를’ 중출문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 유형별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유표적 ‘-를’ 중출문은 무표적 ‘-를’과 유표적 ‘-를’로 구성된다. 유표적 ‘-를’은 형태-유표적 ‘-를’과 분포-유표적 ‘-를’로 구분된다.

3.3.1.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

형태-유표적 ‘-를’은 ‘-를’이 대격 논항이 아닌 비대격 논항에 결합한 ‘-를’을 말한다. 비대격 논항에 적합한 다른 격조사가 있음에도 그것이 아닌 ‘-를’이 결합되었으므로 이때 ‘-를’은 형태적으로 유표적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선희(2004)에서는 ‘-를’이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구문으로 이동 동사 구문, 대상 위치 동사 구문, 피해 동사 구문, 대칭 동사 구문, 수혜 동사 구문, 태도 동사 구문을 들고 있다. 이 중 자동사 구문, 복문 등을 제외하고 본고의 연구 대상인 ‘-를’ 중출문을 이룰 수 있는 유형은 이동 동사 구문, 대상 위치 동사 구문, 수혜 동사 구문으로 추려질 수 있다. 아래는 그 예들이다.

- (16) ㄱ. 영이가 제주도를 여행을 갔다.

- ㄴ. 영이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 (17) ㄱ. 철수가 고물 트럭에 쌀을 실었다.
- ㄴ. 철수가 고물 트럭을 쌀을 실었다.
- (18) ㄱ.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 ㄴ. 철수가 영희를 책을 주었다.

(17)의 대상 위치 동사 구문과 (18)의 수혜 동사 구문은 각각 우형식(1996)의 내적전이의 타동구문 중 대상위치동사 구문과 대상수혜동사 구문과 일치한다. (16)의 이동 동사 구문은 우형식(1996)의 외적 전이의 타동구문 중 이동동사 구문에 속한다. 손인호(1994), 이수련(2009), 서정수(1994)에서는 아래 (19)와 같이 ‘-로’로 교체될 수 있는 유형도 다루고 있다. 이 예들은 우형식(1996)의 대상 변화 동사 유형에 속하는 유형들이다.

- (19) ㄱ. 마나님이 법관을 사위를 삼았다.
- ㄱ'. 마나님이 법관을 사위로 삼았다. (서정수 1994: 699)
- ㄴ. 지성이가 나무를 의자를 만들었다.
- ㄴ'. 지성이가 나무로 의자를 만들었다. (손인호 1994: 125)

그렇다면 다른 조사로 교체 가능한 ‘-를’ 중출문의 유형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는 우형식(1996)의 타동 구문 분류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형식(1996)에서는 타동구문을 서술동사의 본유적인 타동성에서 비롯되는 본유적 타동구문과 서술 구조의 변환으로 형성되는 변환된 타동구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변환된 타동구문은 변환 전·후의 구문에서 명사성분의 수의 변화에 따라 수의 변화가 없는 전이된 타동구문, 수가 증가된 확대된 타동구문, 수가 감소된 축소된 타동 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확대된 타동구문은 본고의 무표적 ‘-를’ 중출문으로 불리는 구문들이다. 그리고 전이된 타동구문은 본고의 유표적 ‘-를’ 중출문으로 불리는 구문들이다.

전이된 타동 구문은 ‘-에, -에게, -로, -에서, -와’격의 보충어에서 ‘-를’격으로 전이된 상승 전이된 타동구문과 ‘-가’격의 주어에서 ‘-를’격으로 하강 전이된 타동

구문으로 나뉜다. 또 상승 전이된 타동구문은 다시 내적 전이의 타동구문과 외적 전이의 타동 구문으로 나뉜다.

우형식(1996: 103)에서는 내적 전이는 이중타동구문을 형성하고, 외적 전이는 단일타동구문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16)과 같이 우형식(1996)의 외적 전이의 타동구문 중 이동동사 구문도 이중타동구문 즉 본고의 ‘-를’ 중출문을 이룰 수 있다.

내적 전이의 타동 구문은 서술동사가 형성하는 구문의 형식과 의미 실현의 특징에 따라 대상위치동사, 대상수혜동사, 대상변화동사 구문으로 세분하였다.²²⁾ (20)은 각 유형을 보인 것이며, (21)은 변환의 결과 이중타동구문, 즉 본고의 ‘-를’ 중출문을 이룬 서술 구조의 형식을 보인 것이다.

- (20) ㄱ. 그가 벽{-에, -을} 페인트를 칠했다.
- ㄴ. 그가 나{-에게, -를} 선물을 주었다.
- ㄷ. 그가 친구를 아내{-로, -를} 삼았다. (우형식 1996: 106)
- (21) 내적 전이를 이루는 서술동사 (우형식 1996: 108)
 - ㄱ. 대상위치동사 : [-가 -에 -를] → [-가 -를 -를]
 - ㄴ. 대상수혜동사 : [-가 -에게 -를] → [-가 -를 -를]
 - ㄷ. 대상변화동사 : [-가 -를 -로] → [-가 -를 -를]

(21)에서 화살표 이전의 구문에서 두 명사구는 서로 다른 조사와 의미역을 취한다. 이중 한 조사가 ‘-를’로 교체되어 ‘-를’ 중출문을 이루더라도 의미역은 변함이 없다. 가령 (21ㄱ)에서 ‘벽’은 처소역(location), ‘페인트’는 도구역(instrument)이 되는데, 이는 ‘벽’에 ‘-에’가 결합하나 ‘-를’이 결합하나 변함이 없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역을 취하는 무표적 ‘-를’ 중출문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본고는 우형식(1996)의 변환, 전이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다만 (21)에서 화살표 이전의 구문이 ‘-를’ 중출문과 대응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이 대응 구문과의 연관을 유지하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우형식(1996: 107)에서는 이를 목적어(대상)와 보충어(위치, 수혜자, 변화) 사이의 의미적 관계로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우형식(1996)의 대상위치동사, 대상수혜동사, 대상변화동사 구문이라는 용어는 두 명사구가 서로 다른 의미역을 취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준다. 하지만 두 명사구의 의미 관계로 분류하다 보니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가령 (18)의 대상 수혜동사 구문은 ‘책’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 위치 동사 구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17)의 대상 위치 동사 구문은 ‘트럭’의 입장에서 보면 대상 변화 동사 구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를’이 결합한 비대격 논항을 기준으로 형태-유표적 ‘-를’ 포함 중출문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를’이 결합할 수 있는 비대격 논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승호(2007: 29)에서는 논항이 취하는 격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주격 논항 ‘-이/가’, 대격 논항 ‘-을/를’, 여격 논항 ‘-에/에게’, 탈격 논항 ‘-에서/에게서’, 방향격 논항 ‘-(으)로’, 비격 논항 ‘-보다’, 공동격 논항 ‘-와/과’가 그것이다. 본고는 이 체계를 따르되 여격 논항을 더 세분하여 처소격 논항과 여격 논항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²³⁾ 이 논항 분류 기준을 따르면, ‘-를’이 결합할 수 있는 비대격 논항에는 처격 논항, 여격 논항, 향격 논항이 있다. 따라서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의 하위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의 하위 유형

- ㄱ.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
- ㄴ. 여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
- ㄷ. 향격 논항 결합한 ‘-를’ 중출문

3.3.2.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

분포-유표적 ‘-를’은 ‘-를’이 대격 표지라는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고 비전

23) 남승호(2007: 37-41)에서는 ‘-에’와 ‘-에게’를 처소격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구분하지 않고 여격이라고 부른다. 명사의 의미 부류가 [+유정물]이나 [-유정물]이냐에 따라 교체되므로 다른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여격 논항’이 처소 변화의 사건에 나타나면 착점의 의미역을 갖게 되고, 상태 변화의 사건에 나타나면 결과 상태나 결과 자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여격 논항의 의미역에는 착점(goal), 처소(location), 자극(stimulus), 경험주(experiencer), 원인(cause), 비교기준(criterion), 행동주(agent)가 있다.

형적인 쓰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형태-유표적 ‘-를’과 같다. 하지만 격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비논항에 ‘-를’이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논항에 결합한 형태-유표적 ‘-를’과 구분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분포-유표적 ‘-를’에는 ‘X하다’가 분리되어 ‘X’에 ‘-를’이 결합한 경우, 부사어나 용언 어미 등에 ‘-를’이 결합한 경우가 있었다. 이 밖에도 서정수(1994)와 이은교(2008)에서는 동족목적어 유형도 ‘-를’ 중출문의 유형으로 포함하였다. 다음은 그 예들이다.

- (23) ㄱ.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 ㄴ. 찬우가 씩씩한 웃음을 웃었다.
- ㄷ. 주연이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은교 2008: 132-133)
- (24) ㄱ. 남녀가 부채춤을 춤을 추었다. (서정수 2013: 696)
- ㄴ. 경애가 여류 비행사를 꿈을 꾸었다. (서정수 2013: 696)

이은교(2008)에서는 ‘-를’ 중출문에 동족목적어 구문을 포함하였지만 정작 그가 든 예문 (23)은 ‘-를’이 중출문이 아니다. 또한 (24ㄱ)은 ‘남녀가 부채춤을 추었다’에 ‘춤을’이 삽입된 것이라면, (24ㄴ)은 ‘경애가 여류 비행사를 꿈꾸었다’에서 ‘꿈꾸다’가 분리된 후 ‘-를’이 삽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동족목적어는 (24ㄱ)과 같은 구문이며 (24ㄴ)은 여기 분리에 가깝다.²⁴⁾ 동족목적어 유형은 그 예가 극히 드물다는 판단 하에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1) 여기에 결합한 ‘-를’ 중출문

서술성명사 ‘X’와 경동사 ‘하다’가 결합한 ‘X하다’가 분리되고 ‘X’에 ‘-를’이 결합

24) 김창섭(2008: 47)의 논의에 따라 ‘어근’이 아닌 ‘이기’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여기는 어간과 어근을 아울러 일컫는 말로 접사에 對되는 것이다. 어간은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부이다(‘책’, ‘또’, 먹이다의 ‘먹-’과 ‘먹이-’). 어근은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이다(‘소근거리다, 거무스름하다, 분명하다’의 밑줄 친 부분)

한 유형이다.²⁵⁾²⁶⁾

- (25) ㄱ. 철수가 언어학을 연구를 한다.
- ㄴ. 영이가 고양이를 사랑을 한다.

임흥빈(1979)는 위의 예들을 ‘X하다’에서 ‘X’가 분리된 것으로 보고 이를 어근 분리에 의한 주제화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김창섭(2002)에서는 ‘하다’를 접미경동사 ‘하다’, 타동경동사 ‘하다’, 중동사 ‘하다’로 구분하여, 중동사 ‘하다’가 출현하는 ‘-를’ 중출문은 어기 분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중동사 ‘하다’가 선행 명사구를 목적어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를’ 중출문에서는 ‘하다’가 중동사이더라도 ‘하다’에 인접한 서술성 명사는 ‘하다’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를’ 중출문에서는 ‘-를’이 결합한 대상이 목적어인지, 어기인지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25)에서 ‘언어학’과 ‘연구’, ‘고양이’와 ‘사랑’은 순서가 뒤바뀔 수 없기 때문에, ‘연구’와 ‘사랑’은 ‘하다’에서 분리된 어기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본고는 ‘-를’ 중출문에서 ‘X하다’가 분리되어 서술성 명사 ‘X’에 ‘-를’이 결합한 것을 어기에 결합한 ‘-를’로 부르기로 한다.

2) 어미에 결합한 ‘-를’ 중출문

이은교(2008)에서는 ‘-를’ 중출문의 유형으로 용언의 어미에 결합한 유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예문을 살펴보면 본용언이 아닌 보조용언이나 합성동사 사이에 ‘-를’이 결합한 것들이다. 또한 ‘-를’은 장형 부정문에서 부정 보문소 ‘-지’ 뒤에도 결합한다. 아래 (26)은 합성 동사, (27)은 보조용언, (28)은 부정 보문소 ‘-지’의 예이다.

25) ‘X하다’에서 명사 ‘X’를 술어명사, 사태명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X’는 술어 그 자체가 아닌 서술성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서술성명사’가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하여 이를 택하였다.

26) 경동사는 기능동사라고도 불린다. 본고에서는 어휘적 의미를 실현하기보다 선행요소(주로 서술성명사)와 결합하여 그것의 의미를 돕는 역할을 하고 논항구조도 결정하지 않는 동사를 ‘경동사’로 지칭하고자 한다. ‘경동사’라는 용어가 명백히 문장에서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중동사 ‘하다’와 대비하여 선행요소의 어휘적 의미만 실현시키는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고 생각된다.

- (26) ㄱ. 이번시험에서 영희를 따라를 잡으란 말야. (이은교 2008: 133)
 ㄴ. 철수가 어둠을 무서워를 한다.
 ㄷ. 이들이 소풍을 좋아를 한다. (임홍빈 2007: 605)
- (27) ㄱ. 돌이가 책을 읽어를 버렸다.
 ㄴ. 순이는 제비집 요리를 먹어를 보았다. (임홍빈 2007: 585)
- (28) ㄱ. 영이가 학교를 오지를 않네.
 ㄴ. 내가 학교를 가지를 못해.

본고는 보조용언 구성, 합성동사 구성, 장형 부정 구성 결합하는 ‘-를’을 함께 어미에 결합한 ‘-를’이라고 부를 것이다.²⁷⁾

3) 부사(어)에 결합한 ‘-를’ 증출문

부사(어)에 결합한 ‘-를’ 증출문은 일반적으로 동사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에 ‘-를’이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 (29) ㄱ. 영이가 책을 빨리를 읽어.
 ㄴ. 영이야, 운동을 열심히를 하란 말야.

이 유형에는 일반적인 부사뿐만 아니라 단위, 빈도, 시간의 명사구인 부사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선희(2004: 209)에서는 시간, 빈도,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구들을 부사어로 보고 이들이 ‘-를’을 동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²⁸⁾ 그리고 이 부사

27) 임홍빈(2007: 611-612)에서는 보조용언 구성, 복합동사 구성, 장형 부정문 구성에서 ‘-를’이 결합하는 것을 부사 및 부사형 어미에 ‘-를’이 결합하는 것을 묶어 ‘부사적인 성분 뒤에 쓰인 ‘를’이라고 설명하였다. 부사적인 성분에 나타나는 ‘-를’ 성분은 서술어의 논항 정보에 의하여 분석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강조하여 묶은 것으로 짐작된다.

28) 임홍빈(2007)에서는 수량 관계 유형으로 “분류사 구성과 ‘을/를’ 주제”, “단위 명사구와 ‘을/를’ 주제”로 나누어 논의하고, “단위 명사구와 ‘을/를’ 주제”를 “분류사 구성과 ‘을/를’ 주제”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임홍빈(2007)의 “분류사 구성과 ‘을/를’ 주제”는 수 분류사 구성을 말한다. ‘철수가 친구를 세 명을 사귀었다’, ‘영희가 강아지를 두 마리를 기른다’가 여기에 속한다. 그

어들을 문장의 문법성이나 의미와 관련 없이 생략이 자유로우며 전체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부가어로 분류하였다.

- (30) ㄱ. 철수가 방에 틀어박혀 한 시간을 울었다.
ㄱ'. 철수가 방에 틀어박혀 한 시간 울었다.
ㄴ. 나는 하루에 커피를 세 번을 마신다.
ㄴ'. 나는 하루에 커피를 세 번 마신다.
ㄷ. 영수는 동쪽으로 3미터를 움직였다.
ㄷ'. 영수는 동쪽으로 3미터 움직였다.
ㄹ. 군인들은 하루 동안 북으로 5 킬로미터를 전진했다.
ㄹ'. 군인들은 하루 동안 북으로 5 킬로미터 전진했다. (이선희 2004: 209)

반면 이들 명사구는 특정 서술어의 논항으로 하위범주화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 (31) ㄱ. 현주가 약속 장소로 출발한 지 삼십 분을 경과하고 있었다.
ㄴ. 인호는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삼 년을 보냈다.
ㄷ. 하루 동안 그들은 십 리를 왔다.
ㄹ. 이 차가 달린 거리가 벌써 3천 마일을 넘었다. (이선희 2004: 215)

(31)에서 ‘-를’과 결합하는 명사구들은 생략이 불가능한 필수 성분이다. 즉 시간, 거리, 빈도의 명사구들은 필수 성분이 될 수도, 부가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 빈도, 거리의 명사구들이 ‘-를’ 중출문을 이룰 경우 부가어로서의 기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리고 “단위 명사구와 ‘을/를’ 주제”에서 단위 명사구는 시간, 거리, 빈도, 무게, 온도 등을 나타내는 단위 명사가 앞에 수식어로 양수(cardinal) 관형사를 가진 구성을 말한다.(임홍빈 2007: 788) 이는 이선희(2004)의 시간, 빈도,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구들과 일치한다. 임홍빈(2007)에서는 기존에는 이들이 분류사 구성과 다른 것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단위 명사구가 분류사구와 그 성격이 같음을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홍빈(2007: 788-813) 참조.

- (32) ㄱ. 영이는 사과를 세 개를 샀다.
 ㄴ. ?영이는 세 개를 샀다.
- (33) ㄱ. 영이는 마라톤을 20km를 뛰었다.
 ㄴ. 영이는 20km를 뛰었다.

(32)는 수 분류사 구성으로 앞에서 살펴 본 수량 관계 유형이다. 이들은 선행 명사구가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 반면 (33)은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를’이 결합한 경우다. 수량 관계 유형과 달리 선행 명사구가 생략될 경우에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즉 거리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선행 명사구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사어에 가깝다. 본고는 이들 부사어에 결합한 ‘-를’을 함께 묶어 부사(어)에 결합한 ‘-를’로 부르겠다.

3.4. 소결

이 장에서는 ‘-를’ 중출문의 형성 조건을 살펴보고 기존 나열식의 ‘-를’ 중출문을 ‘-를’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어휘적 관계가 성립하는 ‘-를’ 중출문에는 부분 관계 중출문, 하의 관계 중출문, 수량 관계 중출문이 있었다. 이 유형에서 ‘-를’이 결합한 두 논항 명사구는 모두 동일한 의미역을 갖는 대격 논항으로 분석된다. 본고는 ‘-를’이 대격 표지 조사로서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러한 ‘-를’을 무표적 ‘-를’로 부르기로 하였다.

대격은 내부 논항으로서 외부 논항인 주격보다 서술어와의 관련성이 크다. 이에 따라 꼭 대격이 아니더라도 서술어와 관계되는 논항 혹은 비논항에 ‘-를’이 결합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를’ 중출문은 ‘-이/가’ 중출문과 비교해 어휘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유형이 다수 존재했다. 하나는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이다. 형태-유표적 ‘-를’은 서술어의 논항이되 다른 적합한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를’이다.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여격 논항에 결합한 ‘-를’,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이 이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이다. 분포-유표적 ‘-를’은 격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비논항의 자리에 나타나는 ‘-를’이다. 여기에 결합한 ‘-를’, 어미

에 결합한 ‘-를’, 부사(어)에 결합한 ‘-를’이 이에 속한다. 본고에서 새롭게 유형화한 ‘-를’ 중출문의 유형은 <표 2>와 같다.

<표 2> ‘-를’ 중출문 유형

유형		예문	
‘-를’의 성격	결합 대상의 성격		
무표적 ‘-를’	부분 관계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수량 관계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하의 관계	철수가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유표적 ‘-를’	형태-유표적 ‘-를’	처격 논항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다.
		여격 논항	영이는 나를 책을 줬다.
		향격 논항	영이가 황무지를 논을 만들었다.
	분포-유표적 ‘-를’	이기	영이는 결혼을 걱정을 한다.
		어미	영이는 공부를 하지를 않는다.
	부사(어)	영이는 책을 빨리를 읽는다.	

4. 무표적 ‘-를’ 중출문

이 장에서는 무표적 ‘-를’ 중출문의 의미·통사적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은 부분 관계 중출문, 수량 관계 중출문, 하의 관계 중출문으로 나뉜다. 두 명사구의 어휘 의미 관계가 갖는 특징이 어떻게 통사적 특징과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통사적 특징이 화제, 초점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4.1. 부분 관계 중출문

부분 관계에서 전체어와 부분어는 동일한 의미역을 공유하며, 격조사 ‘-를’과 결합한다. 전체어와의 관계를 보면 부분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전체어의 구성 성분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두 명사구는 별개의 의미 자질을 갖는 별개의 종류이다. 따라서 (1)과 같이 두 명사구의 순서가 도치될 수 있다. 또한 (2)와 같이 두 명사구 각각이 부정이 될 수 있다.

- (1) ㄱ.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ㄴ. 영이가 머리를 철수를 때렸어.
- (2) ㄱ.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리지 않았어.
 ㄴ.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민수가 아니라.
 ㄷ.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뺨이 아니라.

하지만 (1ㄱ)과 (1ㄴ)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특별한 음운론적 강세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무표적으로 동사구 앞에 오는 요소가 초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사 앞에 오는 성분이 자연스럽게 강세를 받는 것과 연관된다. 가령 (3)과 같이 두 명사구 모두 관계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되는 다중 의문문이 쓰인 맥락을 가정해 보자.

- (3) Q: 영이가 누구를 어디를 때렸어?
 A1: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A2: *영이가 머리를 철수를 때렸어.
- (4) Q: 영이가 어디를 누구를 때렸어?
 A1: 영이가 머리를 철수를 때렸어
 A2: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다중 의문문에서 의문사에 대한 답은 모두 새로운 정보이다. 우리는 앞서 다중 의문문에서는 자연스럽게 강세가 뒤의 의문사에 놓이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뒤의 의문사에 대한 답이 초점 된다. 즉 (3)에서는 ‘어디’에 대한 답인 ‘머리’가 초점이 되며, (4)에서는 ‘누구’에 대한 답인 ‘철수’가 초점이 된다. 즉 앞의 (1ㄱ)은 무표적으로 ‘머리’가 초점인 문장이며, (1ㄴ)은 ‘철수’가 초점이다.

물론 ‘-를’ 중출문은 이전 문장의 초점이 연쇄되어 화제로 쓰인 경우가 가장 자연스럽다.

- (5) A1: 영이가 누굴 때렸어?
 B1: 영이가 철수를 때렸어
 A2: 영이가 철수를 어디를 때렸어?
 B2: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 (6) A1: 영이가 어딜 때렸어?
 B1: 영이가 머리를 때렸어.
 A2: 영이가 머리를 누구를 때렸어?
 B2: 영이가 머리를 철수를 때렸어.

(5)는 초점이었던 ‘철수’가 화제가 되고 ‘머리’가 새로운 초점이 된 경우이다. 그리고 (6)은 초점이었던 ‘머리’가 화제가 되고 ‘철수’가 새로운 초점이 된 경우이다. 그런데 (5)에 비해 (6)은 다소 제한된 맥락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단순히 ‘영이가 어디를 때렸어?’라는 질문은 영이가 누군가를 때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이가 때린 누군가가 중환

자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맞은 부위가 궁금할 경우 (6A1)은 충분히 자연스럽다. 즉 (6)이 (5)에 비해 제한된 맥락을 필요로 하지만 전체어-부분어의 정보 구조는 맥락에 따라 화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가 모두 가능하다.

이제 부분 관계 증출문에서 초점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다.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로 나누어 술어의 특성에 따라 초점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자. 먼저 장면층위 술어 구문이다.²⁹⁾

(7) Q: 영이가 철수를 어디를 때렸어?

(머리와 가슴을 때린 상황에서)

A1: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A2: 영이가 철수를 머리와 가슴을 때렸어.

(7A1)에서 ‘머리’는 정보 초점으로 총망라성의 의미가 없다. 단순히 ‘머리를 맞았음’을 알려줄 뿐 ‘머리만 맞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Szabolci(1981)의 총망라성 검사를 해보면 두 연접항을 포함하는 문장인 (7A2)는 둘 중 하나만을 포함하는 문장인(7A1)을 함의하므로 총망라성이 없다. 또한 (8)과 같이 Donka Farkas의 부정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8) Q: 영이가 철수를 어디를 때렸어?

(머리와 가슴을 때린 상황에서)

A: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B: ??아니야, 영이는 철수 가슴도 때렸어.

대안 집합 내의 다른 대안 요소인 ‘가슴’을 추가하기 위해 (8A)를 부정하고 (8B)를 발화할 경우 어색하다. 만약 (8A)가 ‘머리만 때렸어’의 총망라적인 의미를 갖고

29) 서술어는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와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로 구별된다. 개체층위 술어는 어떤 개체의 본질적인 속성을 나타내어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에 장면층위 술어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하기 쉬운 속성을 나타낸다.(전영철 2012:63)

있다면 그 총망라성을 부정하는 (8B)는 자연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8A)에는 총망라성이 없기 때문에 부정의 대상 또한 없는 것이므로 부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9A)와 같이 선행 발화를 부정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대안 요소를 추가할 경우에는 어색하지 않다.

(9) Q: 영이가 철수를 어디를 때렸어?

(머리와 가슴을 때린 상황에서)

A: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그리고 가슴도 때렸어.

하지만 같은 장면층위 술어 구문임에도 대안 집합이 명시된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10) Q: 영이가 철수를 머리, 가슴, 배 모두 때렸니?

(머리, 가슴을 때린 상황에서)

A1: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A2: 영이가 철수를 머리와 가슴을 때렸어.

(10Q)는 (7Q)와 달리 가능한 대안 집합에 대한 빠짐없는 정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10A1)을 발화하면 머리만 맞고 다른 곳은 맞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도 때렸다면 대화의 그라이스의 대화의 격률 중 양의 격률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라이스의 양의 격률에 따르면, 화자의 발화는 의사소통의 흐름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정보적이어야 한다. (10)의 대화 참여자가 이러한 그라이스의 양의 격률을 준수해야 한다면 (10A1)은 ‘머리’ 이외의 다른 대안 요소를 배제하는 함축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10A1)의 ‘머리’는 확인 초점으로 총망라성이 있다.

Szabolci(1981)의 총망라성 검사를 해보면 (10A2)는 (10A1)을 함의하지 못한다. (10A1)은 ‘머리’만 맞고 다른 곳은 맞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10A2)의 ‘머리’와 ‘가슴’을 맞았다는 발화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11)과 같

이 Donka Farkas의 부정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1) Q: 영이가 철수를 머리, 가슴, 배 모두 때렸니?

(머리, 가슴을 때린 상황에서)

A: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B: 아니야, 영이는 철수 가슴도 때렸어.

(11A)를 부정하는 (11B)가 어색하지 않다. 이는 (11A)의 ‘머리’만 때리고 다른 곳은 때리지 않았다는 총망라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망라성은 선택되지 않은 다른 대안을 강하게 제외하는 함축을 발생시킨다. 총망라성이 갖는 강한 배타성의 함축은 아래와 같이 단순히 다른 대안을 추가하는 발화로 취소될 수 없다.

(12) Q: 영이가 철수를 머리, 가슴, 배 모두 때렸니?

(머리, 가슴을 때린 상황에서)

A: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그리고 배도 때렸어.

(12A)가 어색한 것은 선행 발화인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에서 ‘머리’가 갖는 총망라적 의미, 즉 다른 대안 요소에 대한 강한 배타성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추가하려면 (11)과 같이 선행 발화의 강한 배타성이 취소된 뒤에야 자연스럽다. 이를 통해 총망라성은 대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소될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 함축으로 볼 수 없는 고유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장면층위 술어 구문에서 초점은 맥락에 따라 정보 초점이 될 수도 있으며 확인 초점이 될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개체층위 술어 구문에서 초점을 살펴보자.

(13) Q: 철수가 이 옷을 어디를 좋아해?

(디자인과 패브릭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A1: 철수가 이 옷을 디자인을 좋아해.

A2: 철수가 이 옷을 디자인과 패브릭을 좋아해.

(13A1)은 옷의 여러 부분 중 ‘디자인’만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디자인’은 총망라성이 있는 확인 초점이다. 따라서 (13A1)은 ‘디자인’과 ‘패브릭’을 같이 좋아한다는 (13A2)에 함의되지 못한다. 이는 (14)와 같이 부정을 통한 검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4) Q: 철수가 이 옷을 어디를 좋아해?

(디자인과 패브릭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A: 철수가 이 옷을 디자인을 좋아해.

B1: 아니야, 철수는 이 옷 패브릭도 좋아해.

B2: 네 말도 맞지만, 철수는 이 옷 패브릭도 좋아해.

(14B1)의 부정의 대상은 ‘철수가 이 옷의 디자인만 좋아 한다’는 사실이다. (14B1)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좋아하는 부분이 ‘디자인’ 하나가 아니라 ‘디자인’과 ‘패브릭’ 둘 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대안의 추가는 이러한 부정의 방법뿐만 아니라 (14B2)와 같이 동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14B2)는 ‘아니야’와 같이 직접적인 부정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14A)의 ‘디자인’이 갖는 총망라적 의미를 정정해 주는 발화로 해석된다. 단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공손성 전략을 취할 뿐 상대방의 발화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14B1)과 같다.

지금까지 개체층위 술어 구문에서는 초점이 확인 초점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개체층위 술어 구문은 장면층위 술어 구문의 확인 초점의 경우와 달리, 대안 집합의 대안 요소들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모두’와 같은 부사도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답변이 총망라적인 해석을 보였다. 이는 개체층위 술어 구문은 총칭적 의미가 있으므로, 대격 명사구는 그 술어가 의미하는 속성을 총망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 지식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장의 총칭성은 개체층위 술어 구문과 같은 어휘 특성문에서 뿐만 아니라, 장면층위 술어가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반성을 획득하는 습관문으로도 실현된

다. 아래는 ‘철수’가 옷을 제작할 때 맡는 부분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일반성을 획득한 습관문이다.

(15) Q: 철수가 주로 아이들을 어디를 때려?

(주로 머리와 손바닥을 때리는 상황에서)

A1: 철수가 주로 아이들을 머리를 때려.

B1: 철수가 주로 아이들을 머리를 때려. 그리고 손바닥도 때려.

B2: 아니야, 철수는 아이들을 손바닥도 때려.

습관문인 (15A)는 머리를 때리고 다른 부분은 때리지 않는다는 배타성을 함축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타성의 함축은 개체층위 술어 구문인 (14)에서처럼 그리 강하지 않다. 따라서 (15B1)처럼 그 함축을 취소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15B2)와 같이 선행 발화를 부정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데, 이것은 부정 ‘아니야’의 대상이 되는 ‘머리’만 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습관문의 경우 총망라성의 의미는 중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총칭문이지만 개체층위 술어 구문의 어휘 특성문은 ‘-를’이 확인 초점으로 총망라성이 있어 배타성의 함축이 취소되지 않을 만큼 강하다. 즉 이때의 함축은 취소가 가능한 화용론적 함축이 아닌 의미론적 함의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장면층위 술어 구문의 습관문은 배타성의 함축을 지니지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용론적 함축에 가깝다.

이 절의 논의를 정리하면 부분 관계 유형에서 전체어-부분어는 화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가 가능하다. 서술어가 장면층위 술어일 경우 초점은 대안 집합의 유무에 따라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이 가능하였다. 반면 개체층위 술어 구문일 경우에는 확인 초점이 가능하였다. 이때 확인 초점은 총망라성을 지녀 강한 배타성을 함축하였으며, 이 함축은 취소가 불가능했다. 한편 장면층위 술어 구문이 습관문을 이루어 총칭성을 실현할 경우 배타성의 함축을 나타내지만 그 함축은 취소가 가능하였다.

이러한 정보 구조는 무표적 ‘-를’이 통사 층위에서는 격을 표시하는 격조사로서

가능하지만, 담화 층위에서는 초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의에서는 화제-초점의 정보 구조에 한해서 정보 초점과 확인 초점 여부를 가려보았지만,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4.2. 수량 관계 중출문

수량 관계는 대상어-수량어의 관계가 성립하는 구문이다. 대상어와 수량어 모두 동일한 의미역을 공유하며 격조사 ‘-를’과 결합한다. 아래 (16)은 매김 관계 구문, (17)은 딸림 관계 구문이다.

- (16) ㄱ.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ㄴ. 영이가 세 개를 사과를 샀어.
- (17) ㄱ. 영이가 책을 대부분을 기증했어.
 ㄴ. 영이가 대부분을 책을 기증했어.

두 유형 모두 대상어-수량어의 순서가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대상어-수량어의 정보 구조는 화제-초점이 자연스럽다.

- (18) A1: 영이가 뭘 샀어?
 B1: 응, 영이가 사과를 샀어.
 A2: 영이가 사과를 몇 개 샀어?
 B2: 응,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18B2)에서 대상어인 ‘사과’는 화제, 수량어인 ‘세 개’는 초점이다. 수량어인 ‘세 개’가 화제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맥락이 가정되어야 한다.

- (19) Q: 영이가 뭘 세 개를 샀다고?
 A: 응,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20) (과일을 세 개를 사기로 한 상황)

Q: 영이가 무슨 과일을 세 개를 샀어?

A: 응,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19)는 이전 발화를 잘 알아듣지 못한 경우 다시 질문을 할 경우이며, (20)은 아무 과일이나 세 개를 사기로 한 상황에서 무엇을 샀는지 물어보는 경우이다. 비록 특수한 맥락을 가정해야 하지만, 화제-초점의 정보 구조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상어-수량어의 정보 구조는 화제-초점, 초점-화제 모두 가능하다.

부분 관계 유형과 마찬가지로 두 명사구의 순서는 정보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별한 음운론적 강세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무표적으로 동사구 앞 성분이 초점이 된다. 따라서 (16ㄱ)과 (17ㄱ)에서는 수량어가 초점이지만, (16ㄴ)과 (17ㄴ)에서는 대상어가 초점이다.

반면 아래와 같이 특정한 맥락이 없어 대상어와 수량어가 모두 새로운 정보가 될 경우에는 후행하는 의문사에 대한 답이 초점이 된다.

(21) Q: 영이가 뭘 몇 개를 샀어?

A1: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A2: *영이가 세 개를 사과를 샀어.

(22) Q: 영이가 얼마나 뭘 산거야?

A1: 영이가 세 개를 사과를 샀어.

A2: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21)에서는 후행하는 의문사 ‘몇 개’에 강세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답인 ‘세 개’가 초점이다. 그런데 이 초점이 (21A2)와 같이 동사 앞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동사 앞에 위치한 ‘사과’가 일차적으로 초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영이가 많은 돈을 쓰고 왔을 경우 (22Q)와 같은 질문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의문사에 대한 답이 동사 앞에 오는 (22A1)의 대답이 자연스럽다.

이제 초점의 성격에 대해 살펴볼 차례다. 그런데 수량 관계 중출문의 경우 부분 관계 중출문과 달리 술어의 특성에 따른 초점의 성격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개체층위 술어 구문에서의 수량 관계 증출문을 상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면층위 술어 구문에 한해, 대상어-수량어가 초점-화제인 경우 초점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자.

- (23) Q: 영이가 뭘 세 개를 샀다고?
A: 응,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B1: *아니야, 영이는 감자도 세 개를 샀어.
B2: 그리고 영이는 감자도 세 개를 샀어.
(24) 영이가 사과와 감자를 세 개를 샀어.

(23B1)은 오직 '사과'만 샀다는 것을 부정하고 '사과'와 '감자'도 샀다는 것을 발화하는 것인데, (23A)에는 오직 '사과'만 샀다는 총망라성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색하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추가할 경우에는 (23B2)와 같이 부정이 아니라 단지 연결에 의해서 가능하다. 또한 (24)가 (23A)를 함의하는 것을 통해 (23A)에서 '사과'는 총망라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같은 장면층위 술어 구문이지만 대안 집합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이다.

- (25) (과일을 세 개를 사기로 한 상황)
Q: 영이가 무슨 과일을 세 개를 샀어?
A: 응,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B: 아니야, 영이는 사과랑 배를 세 개를 샀어.
(26) 영이가 사과와 배를 세 개를 샀어.

(25Q)는 (23Q)와 달리 과일이라는 대안 집합이 맥락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일이라는 대안 집합에서 '사과'가 선택됨에 따라 다른 과일은 모두 제외되는 총망라성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25B)와 같이 부정이 어색하지 않으며, (26)이 (25A)를 함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면층위 술어가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반성을 획득하는 총칭문이 될 경우 배타성의 함축이 다소 약해진다.

- (27) Q: 영이가 아침마다 뭘 세 개를 먹어?
 A1: 응, 영이는 아침마다 사과를 세 개를 먹어.
 A2: 응, 영이는 아침에 사과를 세 개를 먹어. 그리고 당근도 세 개를 먹어.
 B: 아니야, 영이는 아침마다 당근도 세 개를 먹어.
- (28) Q: 영이가 아침에 뭘 세 개를 먹었다고?
 A: 응, 영이는 아침에 사과를 세 개를 먹었어.
 B: ²아니야, 영이는 아침에 당근도 세 개를 먹었어.

(27A1)은 다른 것이 아닌 ‘사과’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때 ‘사과’가 나타내는 배타성의 함축은 (26)과 비교하여 약하다. 따라서 (26A2)와 같이 함축의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27A1)에는 다른 대안 집합 내 요소에 대한 배타성을 함축하는 의미가 비록 약하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27B)와 같이 배타성의 함축을 부정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이것은 (28)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데, (28A)는 단순히 ‘사과’를 세 개를 먹은 것을 알려주므로, 다른 대안 집합 내 요소에 대한 배타성을 함축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8B)와 같이 선행 발화의 부정이 어색하다. 선행 발화에는 ‘사과’만 먹었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습관문의 경우 총망라성의 의미는 중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화제-초점의 정보 구조일 때 즉, 수량사구가 초점일 때 초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자. E. Kiss(2009: 307)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량사구는 ‘at least n’의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이 초점이 될 경우에는 ‘exactly n’의 의미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수량사가 초점이 아닌 경우에도 ‘exactly n’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화용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9) Q: Who can enter the competition?
 A: Anybody that has lifted 100 kilos.
- (30) Q: What is his best result?
 A: He has lifted 100 kilos. (E. Kiss 2009: 307)

(29)는 가능한 척도상의 집합에서 하계적 척도(loewr-bound)를 제공하며 수량사의 기본적인 의미인 ‘at least n’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30)은 상계적 척도(upper-bound)를 제공하며 ‘at least n and at most n’의 의미를 가져 ‘exactly n’의 의미가 있다. ‘at most n’의 의미는 척도의 함축으로 분석되는데, 척도의 함축은 그라이스의 양의 격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량사가 초점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exactly n’의 의미가 되는 것일까. É. Kiss(2009: 310)에서는 Fretheim(1992)와 van Kuppevelt(1996)의 논의를 소개하며 초점이 수량사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Fretheim(1992)은 수량사가 초점이 될 경우에는 수량사에는 ‘at least n’의 의미와 함께 ‘and at most n’이라는 상위의 척도가 의무적으로 주어진다고 하였다. 즉 수량사가 초점이 될 때에는 ‘exactly n’의 의미가 화용적으로 함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함의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근거로 É. Kiss(2009)는 헝가리어의 경우 고정된 구조적 위치에서, 영어의 경우 분열문에서 확인 초점의 기능에 의해 ‘exactly n’의 의미가 수반된다고 설명하였다.

Higgins(1973)는 초점이 서술되는 열린 문장은 집합을 결정하고, 초점은 초점의 구성원들의 총망라적인 목록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초점은 유사한 대안들이 초점에 속하지 않도록 배제하면서 이 집합의 지시적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배제된 대안들은 초점화된 구에 의해 나타는 척도 값 이외의 값을 말한다(É. Kiss, 2009: 311 재인용). 아래 예문을 보자.

- (31) ㄱ. János [_{FocP} 15 PALASINTÁT] [_{NNP} evett János meg]
 ㄴ. [_{Subject} amit János met-evett] [_{Predicate} 15 palacsinta]
 what John ate is 15 pancakes (É. Kiss, 2009: 311)

(31)에서 ‘János’가 먹은 것의 집합은 15개의 팬케이크로 구성되는 척도 값과 동일하다. 그리고 14, 13, 16, 17개 등의 팬케이크로 구성되는 척도 값의 나머지가 배제된 대안들이 된다. 초점화된 15개의 팬케이크는 15개 혹은 그 이상의 팬케이크를 포함하는 집합으로 이해될 수 없다. 초점은 15개의 팬케이크 이외 대안들을 배제하

기 때문이다. 상위 척도 값으로 확장이 될 수 없는 것은 초점 의미에 따른 결과이다.

한국어에서는 수량사가 ‘-를’을 동반하기도 하고 동반하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를’의 유무에 따라 수량사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 (32) A1: 사과를 몇 개를 샀어?
B: 사과를 100개를 샀어.
A2: *정확히 몇 개를 샀어?
- (33) A1: 사과를 몇 개를 샀어?
B1: 사과를 백 개 샀어.
A2: 정확히 백 개를 샀어?
B2: 아니, 사실 100개가 좀 안 돼.

(32B)와 같이 수량사에 ‘-를’이 결합할 경우에는 정확히 100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32A2)와 같은 질문이 뒤따르면 어색하다. 하지만 (33B1)과 같이 수량사에 ‘-를’이 결합하지 않은 경우 정확히 100개라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33A2)가 뒤따라도 어색하지 않다. 이렇듯 한국어에서는 초점인 수량사가 ‘-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exactly n’의 의미가 나타난다. 초점일지라도 ‘-를’과 결합하지 않은 수량사는 ‘exactly n’을 보장하지 않는다.³⁰⁾

초점인 수량사의 총망라성은 아래와 같은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4) Q: 사과를 몇 개를 샀어?

30) 아래와 같이 ‘exactly n’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에도 ‘-를’이 결합될 수도 있다.

- Q1: 나치가 유대인을 몇 명을 죽였어?
B1: 유대인을 100명을 죽였어
B2: 유대인을 100명 죽였어.
Q2: *정확히 몇 명을 죽였어?

하지만 B1에서 ‘exactly n’의 의미가 없을 경우 B2와 같이 ‘-을’이 결합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어지는 Q2도 어색한데, ‘정확히 100명을 죽였어?’가 더 자연스럽다. 이것은 곧 B1에서 ‘100명’이 ‘정확히 100’으로 일차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A: 사과를 100개를 샀어.

B: 아니야, 101개를 샀어.

(34A)는 수량사가 형성하는 수의 척도 <1, 2, ... ,99, 100, 101, 102, ...>에서 나머지 수들을 다 제외하고 오직 100개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머지 대안들에 대한 배제를 부정하는 (34B)의 발화는 적절한 것이다.

이상에서 수량사가 초점이 되면 그 이하, 그 이상의 수량은 배제되고 정확히 그 수량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양의 격률을 준수한다는 대화상의 함축이며, 나아가 확인 초점의 총망라적인 확인 기능이 수반하는 의미론적인 함의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절의 논의를 정리하면 수량 관계에서 대상어-수량어의 정보 구조는 화제-초점, 초점-화제가 가능하였다. 대상어가 초점일 경우 부분 관계 중출문과 같이 술어의 특성에 따른 초점의 성격을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대안 집합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으로 그 성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수량어가 초점일 경우에는 확인 초점만이 가능하였다. 한편 장면층위 술어 구문이 습관문을 이루어 총칭성을 실현할 경우 확인 초점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의 함축을 나타내지만 그 함축은 취소가 가능하였다.

수량 관계 유형에서도 무표적 ‘-를’이 통사 층위에서는 격조사로서 기능하며, 담화 층위에서는 초점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무표적 ‘-를’의 격조사로서의 기능과 초점 의미가 서로 상보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수량 관계 유형은 대상어가 초점이 되는 경우는 특수한 맥락이 필요하고 수량어가 초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수량어가 확인 초점으로만 해석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초점성이 강한 무표적 ‘-를’은 단순히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이 아닌, 총망라적 의미가 있는 확인 초점으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4.3. 하의 관계 중출문

하의 관계는 상의어-하의어의 관계에 있다. 상의어와 하의어 간에는 일방적 함의

관계가 나타난다. 하의어는 상의어를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방적 함의 관계는 두 명사구의 순서에 영향을 미쳐 상의어와 하의어의 순서가 바뀔 수 없다.

- (35) ㄱ. 철수가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 ㄴ. *철수가 대중음악을 음악을 좋아해.

(35)에서 상의어인 ‘음악’은 전제된 의미이다. 전제된 의미가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일방적 함의 관계는 부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 (36) ㄱ. 철수가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 ㄴ. 철수가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클래식이 아니라.
- ㄷ. *철수가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운동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전제는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의 관계 유형은 서술어를 부정할 경우 전제되는 의미인 상의어가 아닌 하의어만 부정된다. 따라서 (36ㄱ)은 (36ㄴ)과 같이 하의어를 부정하는 의미가 되며, (36ㄷ)과 같이 상의어를 부정하는 의미일 경우 비문이 된다.

하의 관계에서 상의어가 하의어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은 정보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의어는 하의어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초점이 될 수 없다. 또한 순서가 상의어-하의어로 고정된다는 점에서 동사에 가까운 하의어가 무표적으로 초점이 된다. 즉 하의 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부분 관계, 수량 관계와 달리 화제-초점의 정보 구조만 가능하다.

하의 관계에서 상의어는 하의어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집합에 속하는 많은 다른 하의어들 중 하나의 하의어가 선택된 것이 하의 관계 유형이다. 즉 하의 관계는 대안 집합 활성화되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유형들과 다른 점이다. 맥락에서 대안 집합이 주어지고 그 중에서 단 하나의 개체가 선택되었으므로 선택된 개체는 술어의 의미와는 별개로 총망라성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분 관계와 수량 관계 유형을 검토하면서, 장면층위 술어 구문일 경우 대안 개체들이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열거된 맥락에서만 총망라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하의 관계 유형에서는 단순히 상의어만이 제시되어도 초점인 하의어로부터 총망라적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김용범(2004 :34)에서는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을 대안 집합의 대상 및 크기로 구분하였다. 확인 초점에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은 화맥에 언급된 활성화된 개체들이며, 그 크기가 작은 반면, 정보 초점은 대안 집합이 비생소한(non-brand-new) 대상이며, 그 크기가 크고 배경지식이나 어휘의미에 의해 불특정 다수로 정의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정보 초점은 대안이 지문맥락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오히려 어휘의 외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외연의 크기는 청자나 화자의 어휘지식 혹은 배경지식에 따라 다소 유동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용범(2004: 36)에서는 (38)에서 대안 집합인 ‘동창회’는 불특정 다수로 상정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발화자가 알고 있는 적절한 양의 정보를 나타낼 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대안 집합의 크기에 의해 (37A)의 ‘철수’는 확인 초점, (38A)의 ‘철수’는 정보 초점이라는 것이다.

- (37) Q: 철수, 명수, 영희가 모두 갔어?
(실제로 철수하고 명수가 가버린 상황에서)
A: 철수가 갔어.
B: 아냐, 철수하고 명수가 갔어.
- (38) Q: 동창회에 누가 누가 왔었어?
(실제로 철수하고 명수가 온 상황에서)
A: 철수가 왔었어.
B: ??아냐, 철수하고 명수가 왔었어.

이 설명대로라면 하의 관계에서 상의어는 어휘 의미에 의해 불특정 다수로 정의된, 대안 집합의 크기가 큰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대안 집합에서 선택된 하의어는 정보 초점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 집합의 크

기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김용범(2004: 37)에서 스스로 지적하였듯이 크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안 집합 내에 개체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경우에 비하면 ‘철수’만이라는 강한 배타성의 함축이 약할지도 모르지만, ‘동창회’가 분교와 같이 소규모 학교의 동창회를 가정한다면 충분히 ‘철수’가 확인 초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안 집합의 구체적인 요소들과 크기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협조의 원리와 대화의 격률이 잘 지켜지고 있는 일반적인 발화라면 질문자는 ‘동창회’ 구성원에 대한 빠짐없는 정보를 원하고 답변자는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³¹⁾ 따라서 본고는 대안 집합의 크기보다는 대안 집합의 존재 유무만으로도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을 나누는 기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술어의 의미에 따른 초점의 성격을 살펴보자. 먼저 장면층위 술어 구문이다.

(39) (생일선물로 장미꽃과 백합을 산 상황에서)

A1: 영이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샀니?

B1: 영이가 꽃을 샀어.

A2: 영이가 꽃을 무슨 꽃을 샀어?

B2: 영이가 꽃을 장미꽃을 샀어.

C: 아니야, 영이는 백합도 샀어.

31) 분교와 같이 대안 집합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도 (36A)의 ‘철수’가 아래와 같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내면서 답한 경우라면 총망라성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6') Q: 동창회에 누가 누가 왔었어?

(실제로 철수하고 명수가 온 상황에서)

A1: 음, 철수가 왔었어. 그리고 명수도 왔었어.

A2: 음, 철수가 왔었어. 아니다, 명수도 왔었어.

(36'A1)과 (36'A2) 모두 ‘철수’ 이외의 대안 집합 내 개체인 ‘명수’를 추가하는 경우이다. (36'A1)에서는 총망라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36'A2)는 ‘철수’만 왔었다는 의미를 부정하고, ‘명수’도 왔었다고 정정하는 것을 통해 총망라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40) 영이가 꽃을 장미꽃과 백합을 샀어.

(39)는 이전 담화의 초점이었던 ‘꽃’이 다시 화제가 되고 동시에 ‘장미꽃’이 속하는 대안 집합으로 기능한다. ‘꽃’이라는 명시적인 대안 집합에서 ‘장미꽃’이 선택됨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장미꽃’이라는 의미가 전해진다. 이에 따라 (39C)와 같이 장미꽃만 산 것이 아니라 백합도 샀다는 의미의 발화가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40)이 (39B2)를 함의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39B2)에서 ‘장미꽃’의 총망라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장면층위 술어 구문이 습관문이 되어 총칭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41)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중)

Q: 철수가 음악을 뭘 즐겨 들어?

A: 철수는 음악을 대중음악을 즐겨 들어.

B: 아니야, 철수는 클래식도 즐겨 들어.

습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초점은 총망라성의 의미가 있다. 대안 집합 내에서 ‘대중음악’을 선택함에 따라 대안 집합 내의 다른 요소는 강하게 배제하는 함축이 발생한다. 따라서 (41B)와 그 강한 함축을 부정하는 발화가 자연스럽다.

하의 관계는 부분 관계, 수량 관계와 마찬가지로 개체층위 술어 구문에서도 초점은 확인 초점으로만 해석된다.

(42) (취미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중)

A1: 철수가 뭘 좋아해?

B1: 철수는 음악을 좋아해.

A2: 철수는 음악을 무슨 음악을 좋아해?

B2: 철수는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C: 아니야, 철수는 클래식도 좋아해.

(43) 철수는 음악을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좋아해.

(42B1)에서 ‘음악’은 ‘취미 생활’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대안 요소들 중에서 선택된 것이고, (42B2)에서 ‘대중음악’은 ‘음악’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대안 요소들 중에서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대중음악’은 화제인 ‘음악’에 의해 형성된 대안 집합 {대중음악, 클래식 ... }에서 다른 것이 아닌 ‘대중음악’만을 좋아한다는 총망라성의 의미가 있다. (42B2)에는 ‘대중음악만’ 좋아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42C)와 같이 선행 발화를 부정한 후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클래식’도 좋아한다는 발화가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총망라성은 (41B2)가 (43)에 함의 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하의 관계에서 상의어-하의어는 화제-초점의 정보 구조만이 가능하였다. 상의어는 맥락에서 대안 집합의 형성을 유도하며, 하의어는 이 대안 집합에서 선택된 개체를 의미함에 따라 하의 관계에서 초점은 확인 초점으로만 해석되었다. 또한 수량 관계 유형에서도 초점으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량어가 확인 초점으로만 해석되었다. 확인 초점의 강도가 정보 초점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높은 강도의 초점이 실현됨에 따른 결과로 보여 진다.

4.4. 소결

4장에서는 무표적 ‘-를’ 중출문의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분 관계 중출문에서 두 명사구는 화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초점은 술어의 속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져, 장면층위 술어 구문에서는 맥락에 따라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이 가능한 반면 개체층위 술어 구문에서는 확인 초점만이 가능하였다. 또한 장면층위 술어 구문이 습관문이 될 경우 총망라성의 의미는 중의적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수량 관계 중출문은 대상어와 수량어가 화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화제-초점의 정보 구조가 가장 자연스러우며,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는 다소 특수한 맥락이 가정되어야 했다. 그리고 대상어가 초점이 되는 경우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이 모두 가능한 반면 수량어가 초점이 될 경우에는 확인 초점만이 가능하였다. 또한 장면층위 술어 구문이 습관문이 될 경우 총망라성

의 의미는 중의적으로 해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하의 관계 유형에서는 상의어와 하의어가 화제-초점의 정보 구조만 가능하였다. 그리고 초점만이 가능한 하의어는 확인 초점으로만 해석되었다. 상의어는 맥락에서 대안 집합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므로, 주어진 대안 집합에서 선택된 개체는 확인 초점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수량 관계 유형의 수량어, 하의 관계 유형의 하의어가 초점으로만 해석되며 이때 초점은 단순히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이 아닌, 총망라적 의미가 있는 확인 초점이라는 사실은 확인 초점이 정보 초점보다 더 강도가 높은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 무표적 '-를' 증출문의 유형 별 정보 구조

유 형		예 문	'-를1'과 '-를2'의 정보 구조
'-를'의 성격	결합 대상의 성격		
무표적 '-를'	부분 관계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화제-초점 / 초점-화제
	수량 관계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초점-화제 / 화제-확인 초점
	하의 관계	철수가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화제-확인 초점

5. 유표적 ‘-를’ 중출문

이 장에서는 유표적 ‘-를’ 중출문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살펴본다. 유표적 ‘-를’ 중출문에는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과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이 있다. 각 유형별로 유표적 ‘-를’이 정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격조사 ‘-를’과 초점표지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볼 것이다.

5.1.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은 무표적 ‘-를’과 형태-유표적 ‘-를’이 중출된 구문이다. 무표적 ‘-를’이 결합한 논항은 전형적인 대격이지만, 형태-유표적 ‘-를’이 결합한 논항은 그렇지 않다. 대격이 아닌 논항에는 그에 적합한 격표지가 결합할 수 있음에도 ‘-를’이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유표적인 조사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에는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향격 논항 결합한 ‘-를’, 여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이 있다.

5.1.1.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를’이 결합한 두 명사구가 각각 서술어의 대격 논항과 처격 논항이다. 대격 논항에 결합한 ‘-를’은 격조사 ‘-를’의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는 무표적 ‘-를’이지만,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은 ‘-에’와 같은 다른 조사가 쓰일 수 있음에도 ‘-를’이 쓰였다는 점에서 조사의 형태가 유표적이다.

- (1) ㄱ.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다.
 ㄴ. 영이가 딸을 미국에 보냈다.
- (2) ㄱ. 영이가 벽을 페인트를 칠했다.
 ㄴ. 영이가 벽에 페인트를 칠했다.

ㄷ. 영이가 벽을 페인트로 칠했다.

(1)에서 ‘동생’은 대격 논항이자 대상역(theme)으로, ‘-를’이외의 다른 조사가 결합할 수 없다.³²⁾ 반면 ‘미국’은 처격 논항이자 착점역(goal)으로, ‘-를’ 외에 ‘-에’도 결합이 가능하다.³³⁾ (2ㄱ)은 대응하는 구문에 따라 논항의 의미역이 달라진다. 남승호(2007:136)에서는 이를 처소 변화 동사로 설명하였다. 처소 변화 동사는 교체 구문에 따라 대상 논항의 처소 변화(change of location)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피동주 논항의 상태 변화(change of state)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2ㄴ)은 처소 변화의 의미, (2ㄷ)은 상태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 (2ㄴ)에서는 ‘페인트’가 서술어 ‘칠하다’의 대상역(theme), ‘벽’이 착점역(goal)이 된다. 반면 (2ㄷ)에서는 ‘페인트’가 도구역(instrument), ‘벽’이 피동주역(patient)이 된다.

대격 논항과 처격 논항의 순서는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부정 시에도 각각이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성분이 서술어에 대해 별개의 논항으로 별개의 의미역을 갖기 때문이다.

- (3) ㄱ.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어.
 ㄴ. 영이가 미국을 딸을 보냈어.
- (4) ㄱ.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내지 않았어. 아들을 보냈어.
 ㄴ.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내지 않았어. 영국을 보냈어.

처격 논항과 대격 논항의 정보 구조는 화제-초점, 초점-화제가 모두 가능하다. 아래 (5)는 화제-초점인 경우이며, (6)은 초점-화제인 경우이다.

- (5) Q: 영이가 딸을 어디를 보냈니?
 A: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어.
- (6) Q: 영이가 누구를 미국을 보냈니?

32) 대상역(theme)은 이동 사건에 의해 처소 변화를 겪는 논항을 가리킨다. (남승호 2007:34)

33) 착점역(goal)은 대상 논항의 처소를 가리킨다. 이것은 처소 변화의 결과로 대상 논항이 존재하게 되는 장소이다. (남승호 2007:37)

A: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어.

이제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에서 초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다. 앞에서 논의한 수량 관계 중출문과 같이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도 술어의 성격에 따른 초점의 성격을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체층위 술어 구문을 상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면층위 술어 구문에 한해 초점의 성격을 살펴 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격 논항과 처격 논항이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를 이루는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 (7) Q: 사장님이 누구를 미국을 보냈니?
A: 사장님이 박 대리를 미국을 보냈어.
B: ?아니야, 사장님이 김 과장도 미국을 보냈어.
- (8) Q: 사장님이 너희 팀에서 누구를 미국을 보냈니?
A: 사장님이 박 대리를 미국을 보냈어.
B: 아니야, 사장님이 김 과장도 미국을 보냈어.
- (9) 사장님이 박 대리와 김 과장을 미국을 보냈어.

장면층위 술어 구문인 (7)은 ‘박 대리’가 정보 초점으로 총망라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정이 어색하다. 이것은 (9)가 (7A)를 함의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면층위 술어 구문임에도 대안 집합이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8)에서는 ‘박 대리’가 확인 초점으로 총망라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8A)가 갖는 오직 ‘박 대리’ 하나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8B)의 발화가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가 (8A)를 함의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를’ 중출문과 그에 대응하는 구문을 비교하였을 때,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있는 논항은 격조사 ‘-를’이 지니는 유표성으로 인해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

- (10) (미국에 대해 이야기 중)
Q: 그래서 영이가 딸을 어디에 보냈어?

A1: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어.

A2: 영이가 딸을 미국에 보냈어.

특별한 음운론적 강세를 부여하지 않고, 동사 앞 성분에 음운론적 강세가 놓이는 정도의 발화라면 (10A1)과 (10A2)를 비교하면 ‘미국에’보다 ‘미국을’이 더 초점의 미가 부각되는 듯하다. 이러한 특성은 담화 층위에서 ‘-를’이 갖는 초점 의미가 형태의 유효성을 통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유효적 ‘-를’이 갖는 강한 초점 의미는 ‘-를’ 중출문의 무표적 초점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앞서 특별한 음운론적 강세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일차적으로 동사구 앞 성분이 초점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동사구 앞 성분에 자연적으로 강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선행하는 의문문은 전제되는 집합을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형태-유효적 ‘-를’을 포함할 경우에는 동사구 앞 성분이 무표적으로 초점이 되는 현상이 상쇄된다. 대격 논항과 처격 논항의 순서가 도치된 (3)의 예문을 다시 가져와 살펴보자.

(3') ㄱ.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다.

ㄴ. 영이가 미국을 딸을 보냈다.

(3'ㄱ)만을 놓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미국’이 초점으로 해석된다. 동사구에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조사가 아닌 ‘-를’과 결합하여 형태적 유효성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3'ㄴ)에서 ‘-를’이 결합한 ‘딸을’은 동사구에 선행한다고 하여 무표적으로 초점이 되지 못한다. 이는 형태 표지의 유효성과, 문장 내 위치 중에서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로 한 문장 안에서의 순서만으로는 무엇이 더 무표적인 초점인지를 논할 수 없으며, 순전히 맥락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구어 말뭉치에서도 이 유형에 속하는 구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동사 앞 성분이 초점성이 강하다는 어떠한 경향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 (11) ㄱ. 선생님 좋아해서 그 과목을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선생님이 좋아서, 국어를,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국어를 열심히 했는데.
- ㄴ. 아~ 나두 저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돼 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돼 가지고, 영어나 머~ 다른 거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말에 관심을 가지게 하게 해도.

(11)은 ‘-를’과 ‘-에’의 대응을 보여 주는 예문들이다. 형태-유표적 ‘-를’이 결합한 성분이 동사 앞에 오지 않음에도, 초점이 되는 경우이다. (11ㄱ)에서는 ‘국어’를 발화한 후 다시 ‘국어에’로 정정하고 있으며, (11ㄴ)에서도 ‘우리의 말’로 발화한 후 다시 ‘말에’로 발화를 정정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 대상에 ‘-에’를 쓰지 않고 ‘-를’을 쓰려는 의도가 보인다. 다음은 동사 앞에 오는 ‘-를’이 초점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 (12) 그래서 저는 캔에 들은 걸 사용하는데, 이거는 꺼내셔서, 체에 받치셔서 들어있는 물을 째 빼 내신 다음에요, 이거를 뜨거운 물을 한 번 확 끼얹어서, 샤워시키는 거 잊지 마세요, 근까 어떤 캔에 들은 그~ 제품들이라도, 다 꺼내 쓰실 때는, 일단 뜨거운 물로 한 번, 목욕시켜서, 그렇게 쓰시는 게

(12)는 ‘이거’에 ‘뜨거운 물’을 끼얹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맥락이다. 다시 ‘뜨거운 물’이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는 것을 통해 ‘뜨거운 물’이 초점임을 알 수 있다. 맥락에서 ‘이거’는 ‘양송이’를 의미하는데, ‘-에’가 아닌 ‘-를’이 결합한 이유는 격조사 ‘-를’이 가지고 있는 대상화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승호(2007)에서도 착점의 논항이 대격 표지 ‘-를’과 함께 나타날 때는 소위 ‘대상화’(thematization)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에서는 대격 논항과 처격 논항이 화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형태-유표적 ‘-를’과 교체될 수 있는 처격 조사와 비교했을 때 형태-유표적 ‘-를’이 쓰일 경우 초점 의미가 더 강하였다. 이는 무표적 ‘-를’이 동사 앞에 올 경우 동사 앞 요소인 무표적 ‘-

를'이 무표적으로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의해 초점이 정해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5.1.2. 여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

여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를'이 결합한 두 명사구가 각각 서술어의 대격과 여격 논항이다. 대격 논항에 결합한 '-를'은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는 무표적 '-를'이지만, 여격 논항에 결합한 '-를'은 '-에게'와 같은 다른 조사가 쓰일 수 있음에도 '-를'이 쓰였다는 점에서 조사의 형태가 유표적인 형태-유표적 '-를'이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13) ㄱ. 영이가 나를 책을 줬다.
- ㄴ. 영이가 나에게 책을 줬다.

(13ㄱ)은 대응되는 구문으로 (13ㄴ)을 상정할 수 있다. (13)에서 '나'는 여격 논항으로 처소역(locative)이며, '책'은 대격 논항으로 대상역이다. 이처럼 두 성분이 서술어에 대해 별개의 논항으로 별개의 의미역을 갖기 때문에, 대격 논항과 여격 논항의 순서는 자유롭게 바뀔 수 있으며 부정 시에도 각각이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14) ㄱ. 영이가 책을 나를 줬다.
- ㄴ. 영이가 나를 책을 줬다.
- (15) ㄱ. 영이가 나를 책을 주지 않았다. 파일을 줬다.
- ㄴ. 영이가 나를 책을 주지 않았다. 철수를 줬다.

여격 논항과 대격 논항의 정보 구조는 화제-초점, 초점-화제가 모두 가능하다. 아래 (16)은 화제-초점인 경우이며, (17)은 초점-화제인 경우이다.

- (16) Q: 영이가 너를 뭘 줬니?
A: 영이가 나를 책을 줬어.
- (17) Q: 영이가 누구를 책을 줬니?
A: 영이가 나를 책을 줬어.

이 유형에서도 개체층위 술어 구문을 상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면층위 술어 구문에 한해 초점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격 논항과 대격 논항이 화제-초점인 정보 구조만을 다루기로 한다.

- (18) Q: 철수가 생일에 영이를 무엇을 줬니?
A: 철수가 생일에 영이를 반지를 줬어.
B: ?'아니야, 철수가 생일에 영이를 목걸이도 줬어.
- (19) (영이가 보석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Q: 철수가 생일에 영이를 무슨 보석을 줬니?
A: 철수가 생일에 영이를 반지를 줬어.
B: 아니야, 철수가 생일에 영이를 목걸이도 줬어.
- (20) 철수가 영이를 반지와 목걸이를 줬어.

(18)에서 ‘반지’는 정보 초점으로 총망라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정이 어색하다. 이것은 (20)이 (18A)를 함의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면층위 술어 구문임에도 대안 집합이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19)에서는 ‘반지’가 확인 초점으로 총망라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A)가 갖는 오직 ‘반지’ 하나라는 의미를 부정하는 (19B)의 발화가 자연스러운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은 (19A)를 함의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처격 논항에 ‘-를’이 결합한 성분과 처격 표지 격조사 ‘-에게’가 결합한 성분을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가 더 초점 의미가 강하다.

- (21) (책에 대해 이야기 중)
Q: 그래서 영이가 누구에게 책을 줬어?

A1: 영이가 나에게 책을 줬어.

A2: 영이가 나를 책을 줬어.

음운론적 강세를 고려하지 않고 (21A1)과 (21A2)를 비교하면 ‘나에게’보다 ‘나를’이 더 초점의 의미가 부각되는 듯하다. 이는 담화 층위에서 ‘-를’이 갖는 초점 의미가 형태의 유표성을 통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유표적 ‘-를’이 갖는 강한 초점 의미는 ‘-를’ 중출문의 무표적 초점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은 동사구 앞 성분이 무표적으로 초점이 되는 현상이 상쇄시킨다. 대격 논항과 여격 논항의 순서가 도치된 (14)의 예문을 가져와 살펴보자.

(14') 가. 영이가 책을 나를 줬다.

나. 영이가 나를 책을 줬다.

(14'가)만을 놓고 본다면 일차적으로 ‘나’가 초점으로 해석된다. 동사구에 인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조사가 아닌 ‘-를’과 결합하여 형태적 유표성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14'나)에서 ‘-를’이 결합한 ‘책’은 동사구에 선행한다고 하여 무표적으로 초점이 되지 못한다. 선행하는 ‘나를’에 결합한 형태 표지의 유표성으로 인해 ‘나를’이 강조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태 표지의 유표성과, 문장 내 위치 중에서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로 문장 내의 순서만으로는 무표적 초점이 무엇인지 따질 수 없다고 본다.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구어 말뭉치에서도 형태-유표적 ‘-를’과 무표적 ‘-를’의 초점성은 뚜렷한 경향성 없이 맥락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이다. 먼저 형태-유표적 ‘-를’이 결합한 성분이 동사 앞 위치에서 초점으로 해석되는 경우다.

(22) 근데 그게 나는 물론 내가 아직까지 기생족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를 우리를 탓할:: 거는 아닌 거 같애 왜냐면은, 그까 외국이랑 자주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인들이 너무 부모 의존적이다라고 하는데,

(22)는 한국 대학생들이 부모 의존적이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맥락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탓하다’ 정도의 대응 구문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우리’에 ‘-에게’가 아닌 ‘-를’이 결합하였다. 뒤이어 ‘우리’와 대조되는 외국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가 초점인 것이 자명하다.

다음은 동사 앞 자리에 오지 않은 형태-유표적 ‘-를’이 초점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23) 작년엔 정말 하얀샘 알바를 너무 하고 싶었어. 그래서 맨날 맨날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 잘은 모르지만 아마 경력자를 더 많이 뽑아준다는 소리가 있나 봐요. 왕이면 훈련된 사람을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낫겠죠?

(23)은 ‘훈련된 사람에게 일을 시키다’와 같은 대응되는 구문을 상정할 수 있다. ‘훈련된 사람’은 여격 논항이며 ‘일’은 대격 논항이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곳에 몇 번이고 원서를 냈으나 떨어진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이다. 자신이 떨어진 이유를 경력이 없는 자신보다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훈련된 사람’에 ‘-을’을 결합시켜 초점화하고 있다.

다음은 동사 앞 자리에 위치한 무표적 ‘-를’ 결합 성분이 초점이 된 경우이다.

(24) 입씨름을 좀 했지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아이 기분 나빠 가지구 성질을 내시더라구. (중략) 또 절대 그분이남을 또 피해를 주고 싶어서 그럴 사람은 아니여. 얼마나 또 착하신 분이냐면, 작년엔 나도 미안해 갖고 혼났다,

(24)는 ‘남에게 또 피해를 주다’와 같은 대응 구문을 상정할 수 있다. 뒤이어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피해’가 초점이 되는 문장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여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에서는 대격 논항-여격 논항이

화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형태-유표적 ‘-를’과 여격 조사 ‘-에게’를 비교하였을 때 형태-유표적 ‘-를’이 초점 의미가 강하였다. 이는 형태-유표적 ‘-를’이 아닌 무표적 ‘-를’이 동사 앞에 올 경우 동사 앞 요소가 아닌, 맥락에 의해 초점이 정해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5.1.3.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를’이 결합한 두 명사구가 각각 서술어의 대격 논항과 향격 논항이다. 대격 논항에 결합한 ‘-를’은 전형적인 쓰임을 보이는 무표적 ‘-를’이지만,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은 비전형적인 쓰임을 보인 형태-유표적 ‘-를’이다.³⁴⁾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에는 형태-유표적 ‘-를’이 고정된 구문이 있는가 하면 ‘-를’ 중출문만으로는 어떤 논항이 형태-유표적 ‘-를’인지 알 수 없는 구문도 있다.

- (25) ㄱ. 영이가 딸을 의사를 만들었어.
- ㄴ. 영이가 딸을 의사로 만들었어.
- (26) ㄱ. 영이가 황무지를 밭을 만들었어.
- ㄴ. 영이가 황무지를 밭으로 만들었어.
- ㄷ. 영이가 황무지로 밭을 만들었어.

(25ㄱ)은 (25ㄴ)과 대응된다. (25ㄱ)에서 ‘딸’은 대격 논항, ‘의사’는 향격 논항으로 각각이 대상역과 착점역(goal)을 가진다. 반면 (26ㄱ)은 (26ㄴ)과 대응되기도 하고 (26ㄷ)과 대응되기도 한다. (26ㄴ)과 대응될 경우 ‘황무지’는 대격 논항, ‘밭’은 향격 논항으로 각각이 대상역과 착점역을 의미역으로 갖는다. 하지만 (26ㄷ)과 대응될 경우에는 반대로 ‘황무지’가 향격 논항, ‘밭’이 대격 논항으로 각각 도구역

34) 남승호(2007: 43-46)에서는 방향격 표지 ‘-(으)로’와 함께 나타나는 논항의 의미역으로 방향(direction), 경로(route), 착점(goal), 자격(qualification), 도구(instrument), 원인(cause), 자극(stimulus) 등을 제시하였다.

(instrument)과 참점역을 의미역으로 갖는다.

이 유형은 앞의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과 달리, 대격 논항과 향격 논항의 순서가 자유롭게 바뀔 수 없다.

(27) (영이의 딸이 의사가 된 상황에서)

ㄱ. 영이가 딸을 의사를 만들었어.

ㄴ. *영이가 의사를 딸을 만들었어.

(28) (황무지가 밭이 된 상황에서)

ㄱ. 영이가 황무지를 밭을 만들었어.

ㄴ. 영이가 밭을 황무지를 만들었어.

(27)은 두 명사구의 순서가 바뀔 경우 단순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문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28)은 두 명사구의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바뀔 경우 명제가 달라진다. (28ㄱ)은 변화의 방향이 ‘황무지’에서 ‘밭’이지만 (28ㄴ)은 ‘밭’에서 ‘황무지’이다. 동사 ‘만들다’의 결과인 산출물이 각각 ‘밭’과 ‘황무지’로 다르다. 이러한 대격 논항과 향격 논항의 순서가 자유롭게 바뀔 수 없는 특징은 이후 논의할 초점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앞서 논의한 처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과 마찬가지로 화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가 가능하다. (29)는 대격 논항-향격 논항이 화제-초점인 정보 구조이며, (30)은 초점-화제인 정보 구조이다.

(29) (황무지에 대해서 이야기 중)

Q: 그래서 영이가 황무지를 무엇을 만들었어?

A: 영이가 황무지를 밭을 만들었어.

(30) (밭에 대해서 이야기 중)

Q: 그래서 영이가 무엇을 밭을 만들었어?

A: 영이가 황무지를 밭을 만들었어.

이 유형에서도 개체층위 술어 구문을 상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면층위

술어 구문에 한해 초점의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형태-유표적 ‘-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구문에서 대격 논항과 향격 논항이 화제-초점의 정보 구조를 이루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자.

- (31) Q: 그래서 영이가 색종이로 무엇을 접었어?
A: 영이가 색종이를 학을 접었어.
B: ²아니야, 영이가 색종이를 거북이도 접었어.
- (32) Q: 그래서 영이가 색종이로 학, 거북이, 장미 중에 무엇을 접었어?
A: 영이가 색종이를 학을 접었어.
B: 아니야, 영이가 색종이를 거북이도 접었어.
- (33) 영이가 색종이를 학과 거북이를 접었어.

(31), (32)에서 ‘학’은 각각 정보 초점과 확인 초점이다. (32)와 같이 맥락에 대한 집합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에는 확인 초점의 해석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선행 발화를 부정하는 (32B)가 자연스럽다. 함의 관계 검증에서도 (33)은 (31A)를 함의하지만 (32A)는 함의하지 못한다.

향격 논항에 결합한 유표적 ‘-를’과 대응 되는 구문의 향격 표지 격조사를 비교하면, 형태-유표적 ‘-를’이 향격 표지 격조사에 비해 더 초점 의미가 두드러진다.

- (34) Q: 그래서 무엇으로 받을 만든 거야?
A1: 영이가 황무지로 받을 만들었어.
A2: 영이가 황무지를 받을 만들었어.

(34A1)에 비해 (34A2)가 더 ‘황무지’에 초점이 가는 듯하다. 이것은 ‘-를’의 담화 층위에서의 초점 의미가 형태적 유표성을 통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응 되는 구문과의 비교가 아닌, ‘-를’ 중출문 내에서 무표적 ‘-를’과 형태-유표적 ‘-를’을 비교해 보자. 먼저 유표적 ‘-를’이 고정된 구문을 보자.

- (35) (영이의 딸이 의사가 된 상황에서) 영이가 딸을 의사를 만들었어.

(35)에서 ‘딸’에 결합한 ‘-를’은 무표적 ‘-를’, ‘의사’에 결합한 ‘-를’은 형태-유표적 ‘-를’이다. 일차적으로 형태-유표적 ‘-를’과 결합하여 동사 앞에 자리한 ‘의사를’이 초점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형태-유표적 ‘-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구문을 보자.

(36) (황무지가 밭이 된 상황에서)

- ㄱ. 영이가 황무지를 밭을 만들었어.
- ㄴ. 영이가 황무지로 밭을 만들었어.
- ㄷ. 영이가 황무지를 밭으로 만들었어.

(36)에서 일차적으로 초점으로 해석되는 성분은 동사 앞 성분인 ‘밭’이다. 이는 (36ㄴ), (36ㄷ)과 같이 ‘황무지’와 ‘밭’ 모두 ‘-으로’로 교체될 수 있어, (36ㄱ)만으로는 무엇이 형태-유표적 ‘-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사 앞에 오는 요소가 무표적인 초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구어 말뭉치에서 이 유형에 해당되는 구문들을 살펴보면 동사 앞에 오는 요소가 초점으로 해석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래는 그 중 몇 예를 가져온 것이다. 먼저 유표적 ‘-를’이 고정된 구문이다.

(37) 그리고 하늘이 시커멓죠? 저것은 눈이 오기 직전의 하늘이에요. 아주 그~ 무거운 하늘. 그래서 설경을 나타낼 때? 저런 식으로 하늘을 이르게 먹을 선염해서. 먹을 선염해서? 많이 그 사용을 합니다.

(38) 뭐~ 아이가 똑똑하다고만 해서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간 그런 영재 교육, 기관두 너무 빈약하구 그런 것두 있드라구. 근데 나는 우리 유성이를 꼭 영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37)에서 ‘하늘’은 대격 논항으로 대상역이며 ‘먹’은 향격 논항으로 도구역이다. ‘먹’에는 ‘-를’ 대신 ‘-으로’가 결합할 수 있지만 ‘하늘’에 결합한 ‘-를’은 교체될 수 있는 조사가 상정되지 않는다. (38)도 마찬가지로 ‘유성이’는 대격 논항으로 피동주

역이며 ‘영재’는 향격 논항으로 착점역이다. ‘영재’에 결합한 ‘-로’는 ‘-를’로 교체될 수 있지만, ‘유성이’에 결합한 ‘-를’은 다른 조사로 교체될 수 없다.

(37)은 눈이 오기 직전의 하늘을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먹을’이 한 번 더 발화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먹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8)은 영재 교육에 대한 맥락이다. 아이를 영재로 키우기 위해 교육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성이’가 아닌 ‘영재’가 초점이다.

다음은 유표적 ‘-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39)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닭이 없는 거예요, 닭이 없는데, 동생이 막 울면서 나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머니가 닭을 죽였대요. 닭을 죽여서 닭을 닭도리탕을 만들었는데, 개가 그걸 옆에서, 보구 있었대요.

(39)는 ‘닭’에 ‘-으로’가 결합한 구문과 대응될 수도 있고, ‘닭도리탕’에 ‘-으로’가 결합한 구문과도 대응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닭’이 향격 논항, ‘닭도리탕’이 대격 논항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된다. 어느 경우이든 동사 앞에 오는 ‘닭도리탕’이 초점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후행하는 조용어 ‘그것’의 지시 대상이 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두 명사구 모두 초점이 될 수 있었다. 형태-유표적 ‘-를’이 결합한 구문과 향격 표지 격조사가 결합한 구문을 비교했을 때 형태-유표적 ‘-를’이 결합한 성분이 더 초점 의미가 두드러졌다. 이는 담화 층위에서 ‘-를’의 초점 의미가 형태의 유표성을 통해 통사 층위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를’ 중출문 내에서는 형태-유표적 ‘-를’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동사 앞에만 쓰여 자연스럽게 초점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형태-유표적 ‘-를’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동사에 인접한 성분이 일차적으로 초점으로 해석되었다.

5.2.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은 무표적 ‘-를’과 분포-유표적 ‘-를’이 중출된 구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은 ‘-를’이 모두 논항에 결합하였다. 하지만 이 유형은 무표적 ‘-를’만 논항에 결합하고 분포-유표적 ‘-를’은 비논항에 결합한다. 본고는 비논항에 결합하는 ‘-를’의 분포가 논항에 결합하는 격조사와 전혀 다른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를’을 분포-유표적 ‘-를’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조사 ‘-를’뿐만 아니라 다른 격조사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 ‘-를’이 결합한 것은, 형태가 의미를 동반한다는 언어의 도상성 관점에 따른다면 어떠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포-유표적 ‘-를’에는 여기에 결합한 ‘-를’, 어미에 결합한 ‘-를’, 부사(어)에 결합한 ‘-를’이 있다.

5.2.1. 여기에 결합한 ‘-를’ 중출문

여기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대격 논항에 결합한 무표적 ‘-를’과 여기에 결합한 분포-유표적 ‘-를’로 구성된다. 이를 임홍빈(1979)에서는 어근 분리를 통한 주제화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 (40) ㄱ. 철수가 걱정을 하다.
 ㄴ. 집이 평안을 하다.
- (41) ㄱ. 철수가 운동을 한다.
 ㄴ. 영이가 밥을 한다.

임홍빈(1979)의 논의에 따르면 (40), (41)은 ‘을/를’ 주제화에 의하여 어근이 ‘하다’와 분리된 것이다.³⁵⁾ 그런데 이때 서술성 명사가 어디인지, 동사 ‘하다’의 목적어

35) 임홍빈(1979)에서는 ‘철수가 중국어를 공부를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공부’가 NP성분이 아님을 네 가지 검증을 통해 보인다. 첫째, 관형성분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관계문의 표시 명사가 될 수 없다. 셋째, NP-보문을 상정할 수 없다. 넷째, 대명사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을/를’ 주제화에 의하여 ‘공부하다’의 어근이 분리된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임홍빈(1979) 참조.

인지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김창섭 (2008: 314)에 따르면 (40)은 여기 분리에 해당하지만 (41)은 동사 ‘하다’가 목적어를 논항으로 취한 정상적인 통사적 구성이다. 그는 중세 국어 시기에는 여기 분리 현상은 존재하였지만, ‘-를’ 중출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이현희(1986/1994)의 논의를 토대로 ‘Y를 X-를 ㅎ-’의 중목적어 구성이 정규 구조로 정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³⁶⁾ 반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서술성명사 ‘X’가 작용, 행위 사태일 경우 ‘X를 하-’ 구성이 고유 구조가 되었으므로, ‘X하다’가 ‘X-를 하다’가 되는 구성을 여기 분리라는 설명이 무의미해 진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기 분리는 아직 ‘X를 하-’ 구성이 고유 구조가 되지 않은 상태 사태의 서술성 명사에 한하여 유의미한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를’ 중출문에서는 서술성 명사가 행위, 작용, 상태 사태 어느 경우이든 여기 분리로 해석된다. 행위, 동작의 서술성 명사가 ‘-를’을 취하는 것은 고유 구조로서 통사적으로 특별한 현상이 아님을 인정하지만, ‘X하-’보다는 ‘X를 하-’가 유효적인 것은 자명하므로 이들도 여기 분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를’ 중출문에서는 논항에 결합한 무표적 ‘-를’과 함께 서술성 명사에 ‘-를’이 결합한 성분이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논항에 결합한 ‘-를’은 동사 ‘하다’의 목적어, 비논항에 결합한 ‘-를’은 동사 ‘하다’의 어기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대격 논항의 명사와 서술성 명사는 서로 위치가 바뀔 수 없다. 왜냐하면 어기인 서술성 명사와 ‘-를’이 결합한 논항 간에는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 (42) ㄱ. 아버지가 건강을 걱정을 하셔.
 ㄴ. 교수님이 신기술을 발명을 하셨어.
 (43) ㄱ. *아버지가 걱정을 건강을 하셔.
 ㄴ. *교수님이 발명을 신기술을 하셨어.

(42)에서 두 명사구 간에 서술어 관계가 성립한다. ‘서술성 명사+하다’로 구성된

36) 이현희(1994: 278-280)에 따르면 중세 국어 시기에 ‘시르ㅎ-’가 ‘시르물 ㅎ-’ 또는 ‘시르(을) ㅎ-’와 같은 통사론적 구성이 쓰이기도 하는데, ‘시르ㅎ-’가 목적어를 가지는 것과 달리 ‘시르물 ㅎ-’는 다시 목적어를 더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술어에서 어기인 서술성 명사 ‘걱정’, ‘발명’이 각각 ‘건강’, ‘신기술’을 목적어로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43)과 같이 두 명사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을 통해 ‘걱정’이 ‘건강’을 논항으로 취하고, ‘발명’이 ‘신기술’을 논항으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명사구가 서술어 관계가 아닌 두 명사구간의 어휘 의미 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하다’는 중동사이다. 따라서 서술성 명사는 대격 논항으로 분석할 수 있다.

(44) 아버지가 운동을 수영을 하셔.

(44)에서 ‘운동’과 ‘수영’간에 서술어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하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하다’는 중동사로 ‘운동’과 ‘수영’을 모두 목적어로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영’은 어기가 아닌 대격 논항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어기에 결합한 ‘-를’은 격 표지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은교(2008: 66)에서는 ‘-를’을 ‘지정’, ‘강조’의 의미가 있는 보조사로 설정하고, 명사구에 결합하는 ‘-를’은 행위 대상에 대한 ‘지정’의 의미 기능을 갖고, ‘지정’을 받는 명사구는 문맥적으로 ‘강조’의 의미도 함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용언 어미나 부사어에 결합하면 ‘강조’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이 파악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모든 ‘-를’을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보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비논항에 결합한 ‘-를’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지정’, ‘강조’ 등의 의미는 서로 인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격조사 ‘-를’의 기능과 전혀 별개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를’의 담화 층위에서 초점 의미는 ‘-를’의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를’의 의미와 격조사 ‘-를’과의 관련성을 포착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따라서 어기에 결합한 ‘-를’ 또한 이러한 초점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어기에 결합한 ‘-를’ 중출문에서 논항-어기의 정보 구조는 일차적으로 화제-초

점의 구조로 해석된다.

(45) Q: 아버지는 요즘 어떠셔?

A1: 아버지가 요즘 건강을 걱정을 하셔.

A2: 아버지가 요즘 건강을 걱정하셔.

(45A1)는 (45A2)와 비교하였을 때 ‘걱정’이 더 초점을 받는다. 이것은 ‘걱정’에 결합한 ‘-를’의 위치 때문이다. 먼저 ‘-를’ 꼭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를’이 결합하여 ‘-를’의 담화 층위에서 초점 의미를 분포의 유효성을 통해 통사 층위에서 그대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동사 앞에 위치한 까닭에 자연스럽게 여기에 결합한 ‘-를’에 강세가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초점은 담화 층위에서 관계적 신정보와 같은 의미의 초점이라고만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아래와 같이 대격 논항 또한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6) Q: 아버지는 요즘 어떠셔?

A1: 아버지가 요즘 [F건강을] 걱정을 하셔.

A2: 아버지가 요즘 [F건강을] 걱정하셔.

(46A1)과 (46A2)는 모두 정보 구조적으로 ‘건강’이 초점이다. 하지만 (46A1)과 (46A2)를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볼 수 없다. 여기에 결합한 ‘-를’을 이러한 담화 층위에서 초점 의미의 실현으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46A1)에서 여기 ‘걱정’에 결합한 ‘-를’은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이 아닌 ‘강조’ 의미에 더 가깝다. 이것은 ‘-를’이 갖는 담화 층위에서 초점 의미가 형태 또는 분포의 유효성을 통해 부각되고 자주 사용됨에 따라 통사 층위에서 형태소 고유의 어휘 의미를 얻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격조사 ‘-를’이 보조사 ‘-를’로 그 기능과 의미를 확대해 나가는 일종의 문법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구어 말뭉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 바로 여기에 결합한 ‘-를’ 중출문이다. 말뭉치 자료에서도 분포-유효적 ‘-를’이 결합한 어기가

강조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독특한 점은 부사가 어기를 수식하는 구문이 다수 보인다는 점이다. 아래는 그 중 몇 예만 가져온 것이다.

- (47) ㄱ. 그리구 신데렐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신데렐라에두 에게두 잘 해 주는 척하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는 신데렐라를 굉장히 많이 구박을 했조
ㄴ. 말이 안 된다고 싶으면은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억박지르는 식으로 문 제를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딱 제시를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ㄷ. 시는 자신의 감정 상태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조,

부사가 어기 앞에서 어기를 수식함에 따라 어기의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다.

5.2.2. 어미에 결합한 ‘-를’ 중출문

어미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무표적 ‘-를’과 어미에 결합한 분포-유표적 ‘-를’로 구성된다.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미는 보조용언 구성과 합성동사 구성, 그리고 장형부정문에 출현하는 보조적 연결어미이다.

- (48) ㄱ. 이들이 소풍을 좋아를 한다. (임홍빈 2007: 605)
ㄴ. 순이는 제비집 요리를 먹어를 보았다. (임홍빈 2007: 585)
ㄷ. 영이가 학교를 오지를 않네.

(48)은 각각 보조용언 구성, 합성동사 구성, 장형부정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어미에 결합한 ‘-를’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먼저 임홍빈(2007: 611-612)에서는 통사적으로 분석되지 않는 성분을 주제로 보기 때문에, 어미에 결합한 ‘-를’도 주제로 보았다. 그는 보조용언 구성, 합성동사 구성, 장형 부정문 구성에서 ‘-를’이 결합하는 것과 뒤에서 논의할 부사 및 부사형 어미에 ‘-를’이 결합하는 것을 묶어 “부사적인 성분의 ‘을/를’ 주

제”라고 설명하였다. 이 유형의 ‘-를’은 타동사의 논항 정보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대격 표지로 볼 수 없으며, 통사 분석의 잉여 성분이므로 통사적 주제가 된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어미에 결합한 ‘-를’이 대격으로 분석되지 않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통사 분석의 잉여 성분이므로 통사적 주제가 된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손인호(1994: 82-89)에서는 “‘아/어, 게, 지, 고’ 보문자 구문”으로 이들을 설명하였다. 그는 임흥빈(1972)의 ‘-를’ 주제화 이론이 아래 (49ㄱ), (49ㄴ)과 같이 형용사인 경우, (49ㄷ), (49ㄹ)과 같이 비유정성 명사가 동작주가 되면 보문자 ‘지’ 뒤에는 주격 표지 ‘이/가’나 대격 표지 ‘을’이 모두 실현될 수 있으나 (49ㄷ), (49ㄹ)과 같이 내포문 동사가 비상태성 동사이고 그 동사의 주어 명사구가 유정성 명사이면 반드시 대격 표지 ‘을’만이 실현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49) ㄱ. 영이가 예쁘지{가, 를} 않다.
- ㄴ. 철이가 침착하지{가, 를} 않다.
- ㄷ. 철수가 집에 가지{*가, 를} 않았다.
- ㄹ. 아이가 울지{*가, 를} 않는다.
- ㅁ. 차가 가지{가, 를} 않는다.
- ㅂ. 꽃이 피지{가, 를} 않는다.

그리하여 보문자 ‘아/어, 게, 지, 고’에 실현된 ‘-를’도 모문 서술어로 표현된 동사의 행위나 동작 그리고 상태의 영향이 그 문장의 참여항이나 부가항에 미치고 있음을 가리키는 이행성 표지(transitive marker)로 보았다. 이와 비슷한 논의로 이선희(2004: 227)에서도 “용언의 활용형과 결합하는 {-를}”을 화자가 {-를}과 결합하는 서술어구를 하나의 개체로 대상화하려는 데서 비롯한다고 설명하였다. 격조사 ‘-를’이 결합하는 대격 논항이 주로 대상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를’이 격조사로 쓰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를’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상화로서의 해석은 어미에 결합한 ‘-를’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대상화는 ‘-를’이 비논항에 결합하는 이유일 뿐이지 그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를’이 비논항에 결합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결합한 ‘-를’을 초점 의미 부여로 설명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어미에 결합하는 ‘-를’ 또한 비록 어미가 논항은 아니지만, 어미를 대상화함으로써 초점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예문을 보자.

(50)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 ㄱ. 아이들이 동물원을 좋아해.
- ㄴ. 아이들이 동물원을 좋아를 해.

(50)에서 분포-유표적 ‘-를’이 결합한 (50ㄴ)은 (50ㄱ)에 비해 ‘좋아’가 더 두드러진다. 이것은 여기에 결합한 ‘-를’ 중출문과 마찬가지로 ‘-를’의 위치 때문이다. 격조사 ‘-를’뿐만 아니라 다른 격조사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어미에 ‘-를’이 결합해 형태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어미에 결합한 ‘-를’이 ‘하다’ 동사 앞에 위치하여 자연스럽게 강세가 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미에 결합한 ‘-를’은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으로만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아래와 같이 대격 논항에 유표적인 강세를 부여하면 대격 논항이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1)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 ㄱ. 아이들이 [_F동물원을] 좋아를 해.
- ㄴ. 아이들이 [_F동물원을] 좋아해.

(51ㄱ)과 (51ㄴ)은 모두 정보 구조적으로 ‘동물원’이 초점이지만, 두 문장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51ㄴ)은 ‘좋아’에 ‘-를’이 결합함에 따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동물원임을 알려주면서도, 그 좋아하는 감정을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또한 여기에 결합한 ‘-를’과 같이 ‘-를’이 갖는 담화 층위에서 초점 의미가 형태 또는 분포의 유표성을 통해 부각되고 자주 사용됨에 따라 통사 층위에서 형태소 고유의 어휘 의미를 얻게 된 문법화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미에 결합한 ‘-를’의 기능 및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를’이 용

언 어미에 결합하는 이유는 대상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비록 분포-유표적 ‘-를’이 격조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지만, 원래 격조사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를’이 어미에 결합하여 결합한 성분을 대상화하면, 분포의 유효성을 지니게 되고 나아가 담화 층위에서 ‘-를’ 갖고 있던 초점 의미가 그대로 부각되었다.

5.2.3. 부사(어)에 결합한 ‘-를’ 중출문

부사(어)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무표적 ‘-를’과 부사어에 결합한 분포-유표적 ‘-를’로 구성된다. 이 유형에는 일반적인 부사뿐만 아니라 단위, 빈도, 시간의 명사구와 같은 부사어도 포함된다.

손인호(1994: 78)에서는 서술어의 목적어가 될 수 없는 부사임에도 ‘-를’이 결합하는 이유를 임흥빈(1972)의 ‘-를’ 주제화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동작성 동사를 꾸미는 양태 부사에만 ‘-를’이 결합되고, 형용사를 꾸미는 정도 부사에는 ‘-를’이 결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사에 결합한 ‘-를’을 이행성 문장임을 가리키는 이행성 표지라고 설명하였다. 동작성 동사구문은 이행성 문장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상태성 동사구문은 상대적으로 이행성구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도 부사가 ‘-겠-’과 같은 선어말어미와 함께 쓰인 동사를 수식할 때는 ‘-를’이 결합할 수 있다.

- (52) ㄱ. *마음이 껍을 든든하다. (손인호 1994: 79)
 ㄴ. 마음이 껍을 든든하겠네.

(52ㄱ)과 같이 정도 부사 ‘껍’에 ‘-를’이 결합하는 것이 어색하다. 하지만 (52ㄴ)과 같이 형용사가 선어말어미로 ‘-겠-’을 취할 경우에는 결합이 자연스럽다. ‘-겠-’은 양태 선어말어미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 태도에 대한 정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를’을 이행성 표지로 보는 설명에도 한

계가 있다. 또한 이행성 표지라는 설명만으로는 ‘-를’이 결합한 성분이 부각되는 의미를 다 설명해낼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신서인(2014)에서는 부사, 어미 등에 결합한 ‘-를’을 비전형적인 쓰임을 갖는 ‘-를’이라고 통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를’은 문법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의미·화용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53) ㄱ. 영이가 이사를 멀리를 갔어.

ㄴ. 영이가 이사를 멀리 갔어.

(53)에서 분포-유표적 ‘-를’이 결합한 (53ㄱ)은 (53ㄴ)에 비해 ‘멀리’가 더 초점화되고 있다. 이것은 격조사 ‘-를’뿐만 아니라 다른 격조사마저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 ‘-를’이 결합함에 따라 담화 층위에서의 ‘-를’의 초점 의미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사 앞에 오는 성분이 자연스럽게 음운론적 강세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부사(어)에 결합한 ‘-를’ 중출문은 일차적으로 부사(어)에 결합한 ‘-를’이 초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부사(어)에 결합한 ‘-를’을 단순히 관계적 신정보와 같은 의미로서의 초점으로 볼 수만은 없다. 아래와 같이 대격 논항 또한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4) Q: 영이가 요즘 안보이네?

A1: 영이가 [_F이사를] 멀리를 갔어.

A2: 영이가 [_F이사를] 멀리 갔어.

(54A1)과 (54A2)는 모두 정보 구조적으로 ‘건강’이 초점이다. 하지만 (54A1)과 (54A2)를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볼 수 없다. (54A1)에서는 ‘멀리’에 ‘-를’이 결합하여 영이가 이사를 멀리 갔다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멀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 또한 앞서 살펴본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의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문법화로 ‘-를’이 갖는 담화 층위에서 의미가 강조 의미를 얻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분포-유표적 ‘-를’은 문법 관계를 나타내지 않지만, 본래 격조사 ‘-를’이 가지고 있는 동사와의 관련성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를’은 동사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에만 결합하며 문장 부사에는 결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 (55) ㄱ. 철수가 집을 빨리를 왔으면.
 ㄴ. *다행히를 철수가 집을 빨리를 왔으면.

(55)와 같이 문장부사 ‘다행히’에는 ‘-를’이 결합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를’이 비논항인 부사에 결합하여 격 표시 기능은 하지 않지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에만 결합이 가능한 것을 보았을 때 여전히 동사와의 관련성을 유지해야 함을 알려준다.

또한 성분 부사일지라도 ‘-를’이 다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두에 위치한 성분 부사는 ‘-를’ 결합이 자연스럽게 못하다.

- (56) ㄱ. 가끔 영이가 운동을 한다.
 ㄱ'. *가끔을 영이가 운동을 한다.
 ㄴ. 영이가 운동을 가끔을 한다.
 ㄷ. 영이가 가끔을 운동을 해.

성분 부사 ‘가끔’은 문두에 올 수 있는데 이때는 ‘-를’이 결합하면 어색하다. 따라서 부사에 ‘-를’이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장 부사, 성분 부사의 가름보다는 문장 안에서 부사의 위치가 더 적절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의 가름 자체가 지니는 구분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에 따른 분류가 더 명확한 기준이 된다고 본다.³⁷⁾

다음은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경계에 있는 부사 ‘확실히’의 경우이다.

37) 부사를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분류에서 ‘확실히’와 같은 부사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고영근·구본관 2008, 임유중 1998, 서정수 2005)

- (57) ㄱ. 확실히 영이가 일을 했다.
 ㄱ'. *확실히를 영이가 일을 했다.
 ㄴ. 영이가 일을 확실히 했다.
 ㄴ'. 영이가 일을 확실히를 했다.

(57)의 ‘확실히’는 문두와 동사 앞에 모두 올 수 있는데 동사 앞에 올 경우에만 ‘-를’이 올 수 있다. 이 또한 부사의 위치에 따라 ‘-를’ 결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 준다.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는 단순히 문장 안에서의 위치가 아닌 핵인 서술어를 중심으로 부사를 동사-부사(V-adverb), 동사구-부사(VP-adverb), 문장-부사(sentence-adverb)로 나누었다.³⁸⁾ 이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동사-부사 ‘잘’, 동사구-부사 ‘열심히’, 문장-부사 ‘유감스럽게도’를 중심으로 서술어와 ‘-를’이 결합할 수 있는 부사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동사-부사이다.

- (58) 철수가 아침을 잘을 먹는다.

동사-부사 ‘잘’은 동사 앞에만 올 수 있다. 동사구 앞, 문장 앞에서는 ‘-를’ 결합 없이도 어색하다. 동사 앞에 쓰인 ‘잘’은 ‘-를’과 결합이 자연스럽다.

다음은 동사구-부사의 경우이다.

- (59) ㄱ. 철수가 아침을 열심히를 먹는다.
 ㄴ. ??철수가 열심히를 아침을 먹는다.

동사구-부사 ‘열심히’는 동사 앞과 동사구 앞에 올 수 있다. 하지만 동사 앞에서만 ‘-를’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는 ‘-를’이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에 결합할 경우 가장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59)의 빈도 부사 ‘가끔’과 같이

38) 성기철(1992)에서도 부사를 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부사어를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라 문 자유 어순 부사어, 서술부 자유 어순 부사어, 서술부 인접 부사어(혹은 핵어 인접 부사어)로 나누었다.

동사구 앞에서도 ‘-를’ 결합이 가능하긴 하나 동사구 앞에 쓰인 (59ㄷ)에 비해 동사 앞에 쓰인 (59ㄴ)이 더 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 (60) ㄱ. *철수가 밤참을 유감스럽게도를 먹는다.
- ㄴ. *철수가 유감스럽게도를 밤참을 먹는다.
- ㄷ. *유감스럽게도를 철수가 밤참을 먹는다.

문장 부사 ‘유감스럽게도’는 ‘-를’과 결합할 경우 어느 위치에서나 비문이 된다. 이상 문장 내 위치에 따른 부사 분류를 기준으로 ‘-를’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동사 바로 앞에서 동사를 수식해야만 ‘-를’ 결합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분포-유표적 ‘-를’이 격조사로서의 기능은 없지만, 격조사가 가지는 서술어와의 관련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서인(2014: 75)에서는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부사에 ‘이/가’, ‘을/를’이 결합한 용례를 추출하여 분포 경향을 살펴 보았다.³⁹⁾ 아래는 말뭉치에서 추출한, 부사에 ‘-를’이 결합한 예들이다.

- (61) ㄱ. 그대로를, 그만큼을, 대충을, 멀리를
- ㄴ. 꿈쩍을 못하다, 꿈쩍을 못하다, 꿈쩍달싹을 못하다, 안절부절을 못하다, 쿡쩍을 맞추다

(61ㄱ)의 예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부사로 등재된 단어들이지만 전형적인 부사로 보기에는 명사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61ㄴ)의 예들은 의성의태어들로 서술성명사 처럼 ‘하다’와 같은 경동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신서인(2014: 75-76)에서는 ‘-를’이 결합한 부사들은 명사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9) 이 논의에서 다루는 ‘이/가’, ‘을/를’의 비전형적인 쓰임에는 부사 뒤, 명사구+부사격 조사 뒤 (명수가 어디에를 간다고?), 용언 어간+부사형 어미 뒤(많이 먹지를 못했다), 기타 보조용언 구성(그를 만나고를 싶었다), 수량사구 뒤(장미를 다섯 송이를 샀다), 단위 명사구 뒤(이 말은 한 시간에 100리를 달린다)에서의 쓰임이 있다.

실제로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구어 말뭉치에서는, 부사어에 결합한 ‘-를’ 중출문 중 대부분이 시간, 빈도, 거리의 부사어와 같이 명사적 성격이 강한 부사어에 ‘-를’이 결합한 구문이었다. 이 경우에도 ‘-를’이 결합한 부사어가 초점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그 중 몇 예이다.

- (62) ㄱ. 이 년 안에 그거를 한다는 게, 참 힘들지 않나요? 식사 과정에서? (중략)
근데 식사할 때, 학부 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육십 학점을 했어요,
육 학기를 식사를 했거든요
ㄴ. 이 육 개월이 뭐냐면 육 개월을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은 하루

(62ㄱ)은 식사 과정인 2년 동안 제대로 된 학문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며 ‘육 학기’동안 식사를 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육 학기’에 ‘-를’이 결합하여 초점화되고 있다. (62ㄴ)은 교육 기간이 ‘육 개월’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육 개월’에 ‘-를’이 결합하여 초점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3. 소결

이 장에서는 형태-유표적 ‘-를’ 중출문과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의 하위 유형별 의미·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두 유형 모두 ‘-를’이 담화 층위에서 갖는 초점 의미가 형태의 유표성 또는 분포의 유표성을 통해 통사 층위에서 그대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꼭 격조사 ‘-를’이 필요하지 않은 논항 또한 격조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비논항에 ‘-를’이 결합된 이유는 형태가 의미를 수반한다는 언어의 도상성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실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본고는 이 의미를 ‘-를’이 갖고 있는 담화 층위에서의 초점 의미라고 보았다.

형태-유표적 ‘-를’은 대격이 아닌 처격, 여격, 향격 논항에 결합한 ‘-를’이다. 다른 적합한 격표지가 결합할 수 있음에도 ‘-를’이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형태적으로 유표적인 조사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표적 ‘-를’과 형태-유표적 ‘-를’이 결합

한 논항의 정보 구조는 화제-초점, 초점-화제가 가능하였다. 초점은 확인 초점, 정보 초점이 맥락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형태-유표적 ‘-를’은 무표적 ‘-를’에 비해 더 초점 의미가 강하였다. 그리하여 무표적 ‘-를’이 동사 앞에 위치할지라도 형태-유표적 ‘-를’로 인하여, 동사 앞 요소가 일차적으로 초점으로 해석되는 현상이 상쇄되었다.

분포-유표적 ‘-를’은 격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어기, 어미, 부사(어)에 결합하여 비전형적인 쓰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분포-유표적 ‘-를’은 논항의 격을 표지하는 격조사로서의 기능이 없지만, 격조사 ‘-를’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이는 어미에 결합하더라도 격조사와 같이 대상화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부사에 결합하더라도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일 경우에만 결합이 가능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분포-유표적 ‘-를’ 중출문은 일차적으로 분포-유표적 ‘-를’이 결합한 성분이 초점으로 해석되었다.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유표성으로 인하여 담화 층위의 초점 의미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으며, 동사 바로 앞에서만 위치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분포-유표적 ‘-를’의 두드러진 초점 의미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강조’의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유표적 ‘-를’ 중출문의 유형 별 정보 구조

유형		예문	‘-를1’과 ‘-를2’의 정보 구조	
‘-를’의 성격	결합 대상의 성격			
유표적 ‘-를’	형태-유표적 ‘-를’	처격 논항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다.	화제-초점 / 초점-화제
		여격 논항	영이는 나를 책을 줬다.	화제-초점 / 초점-화제
		향격 논항	영이가 황무지를 논을 만들었다.	화제-초점 / 초점-화제
	분포-유표적 ‘-를’	어기	영이는 결혼을 걱정을 한다.	화제-초점
		어미	영이는 공부를 하지를 않는다.	화제-초점
		부사(어)	영이는 책을 빨리를 읽는다.	화제-초점

6. 결론

지금까지 ‘-를’이 통사적으로는 격 표지 기능을 하며 의미·화용적으로는 초점 의미를 나타낸다는 관점에 따라 ‘-를’ 중출문의 의미·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를’ 중출문은 비록 동일한 형태 표지가 중출된 구문이지만, 실제로 ‘-를’ 중출문에 실현된 ‘-를’이 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님을 살펴볼 수 있었다.

‘-를’ 중출문에 실현된 ‘-를’은 그 쓰임의 성격에 따라 무표적 ‘-를’과 유표적 ‘-를’과 나눌 수 있었다. 격조사 ‘-를’이 전형적인 대격 표지 조사로 기능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표적 ‘-를’이라고 불렀다. 반면 격조사 ‘-를’이 대격 표지 기능을 하지 않고 비대격이나 비논항에 결합하는 비전형적인 쓰임을 보이는 경우 유표적 ‘-를’이라고 불렀다.

또한 유표적 ‘-를’이 처격, 여격, 향격의 비대격에 결합할 경우 처격조사, 여격조사, 향격조사와 같은 다른 적합한 격조사가 있음에도 ‘-를’이라는 형태의 조사가 실현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형태-유표적 ‘-를’이라고 칭하였다. 그리고 유표적 ‘-를’이 어기, 어미, 부사(어)와 같은 비논항에 결합할 경우 격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위치에 ‘-를’이 결합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포-유표적 ‘-를’이라고 칭하였다. 이러한 ‘-를’의 성격에 따라 기존 나열식 유형의 ‘-를’ 중출문을 체계적으로 재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정보 구조를 분석한 것이 아래 <표 5>이다.

<표 5> ‘-를’ 중출문 유형별 정보 구조

유형		예문	‘-를1’과 ‘-를2’의 정보 구조	
‘-를’의 성격	결합 대상의 성격			
무표적 ‘-를’	부분 관계	영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다.	화제-초점 / 초점-화제	
	수량 관계	영이가 사과를 세 개를 샀어.	초점-화제 / 화제-확인 초점	
	하의 관계	철수가 음악을 대중음악을 좋아해.	화제-확인 초점	
유표적 ‘-를’	형태-유표적 ‘-를’	처격 논항	영이가 딸을 미국을 보냈다.	화제-초점 / 초점-화제
		여격 논항	영이는 나를 책을 줬다.	화제-초점 / 초점-화제
		향격 논항	영이가 황무지를 논을 만들었다.	화제-초점 / 초점-화제
	분포-유표적 ‘-를’	어기	영이는 결혼을 걱정을 한다.	화제-초점
		어미	영이는 공부를 하지를 않는다.	화제-초점
		부사(어)	영이는 책을 빨리를 읽는다.	화제-초점

무표적 ‘-를’ 중출문은 부분 관계 중출문에서는 ‘-를’이 결합한 두 논항 간에 화

제-초점, 초점-화제의 정보 구조가 가능하였다. 이것은 ‘-를’이 통사 층위에서는 격 표지 기능을 하지만, 담화 층위에서는 맥락에 따라 초점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량 관계 중출문에서는 수량어가 초점이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으며 하의 관계 중출문에서는 하의어만이 초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초점은 술어의 특성, 두 명사구 간의 의미 관계로 인한 통사적 특성에 따라 그 초점의 성격이 달라졌다. 대부분의 경우 장면층위 술어 구문에서는 확인 초점과 정보 초점이 모두 가능하였다. 하지만 하의 관계 중출문에서는 술어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확인 초점으로만 해석되었다. 또한 수량 관계 중출문에서도 수량어가 초점이 될 경우 확인 초점으로만 해석되었다.

유표적 ‘-를’ 중출문은 ‘-를’의 초점 의미가 형태 및 분포의 유표성을 통해 통사 층위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었다. 첫째, 형태-유표적 ‘-를’이 실현된 구문과 다른 격조사로 교체된 구문을 비교하였을 때, 형태-유표적 ‘-를’이 실현된 구문이 더 초점 의미가 부각되었다. 둘째, 형태-유표적 ‘-를’은 무표적으로 통사 바로 앞에 위치한 성분이 초점이 되는 것을 상쇄하였다. 셋째, 분포-유표적 ‘-를’은 도상성의 관점에서 유표적 ‘-를’의 존재가 초점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격조사 ‘-를’이 유표적으로 쓰일수록 담화 층위에서 ‘-를’이 갖고 있던 초점 의미가 통사 층위에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성을 파악해볼 수 있었다. 즉 무표적 ‘-를’, 형태-유표적 ‘-를’, 분포-유표적 ‘-를’로 갈수록 통사 층위에서 ‘-를’의 초점 의미가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분포-유표적 ‘-를’은 담화 층위에서 ‘-를’의 초점 의미가 통사 층위에서 ‘강조’ 의미로 문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본고는 모든 ‘-를’ 중출문을 빠짐없이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 구조적 해석을 함으로써 ‘-를’의 대격조사로서의 역할 및 초점 표지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고의 논의는 기존에 ‘-를’을 격조사로 볼 것인지, 보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격조사 ‘-를’과 보조사 ‘-를’은 전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보조사 ‘-를’의 의미는 격조사 ‘-를’이 갖는 담화

층위의 초점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그것이다. 나아가 본고의 논의는 ‘-를’이 격조사의 기능을 하되 때에 따라 ‘강조’ 의미의 보조사적 쓰임도 있다는 다의어적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담화 층위의 초점 의미만이 부각될 경우 ‘-를’의 보조사적 쓰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명윤(1999), 「국어의 중목적격 구문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한국어학』 10-1, 한국어학회, 67-90.
- 고광주(2003), 「국어의 격교체 구문 연구」, 『한국어학』 18, 한국어학회, 389-408.
- 고석주(2004), 『현대 한국어 조사의 연구 I』, 한국문화사.
- 권재일(1989), 「조사의 성격과 그 생략 현상에 대한 기술 방법」,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29-139.
- 권희상(2005), 「언어의 도상성」, 『언어연구』 21-1, 한국현대언어학회, 1-33.
- 김경학(1996), 「목적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담화와 인지』 2, 담화·인지언어학회, 75-90.
- 김귀화(1988), 「국어의 격 연구 - 격중출문과 주어인상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연구』 14.
- 김기호 외(1999), 「담화상에 나타나는 목적격표지 {-를}의 음향적 특성」, 『음성과학』 6-1, 한국음성과학회, 55-82.
- 김동석, 김용하(2002), 「주격과 대격의 교체-한국어의 예외적 격 표시」, 『우리말 글』 26, 우리말글학회, 29-44.
- 김미란 외(2000),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억양 패턴 실험」, 『음성과학』 7-4, 한국음성과학회, 203-217.
- 김민선(2007), 「한국어의 목적어 전치와 조사에 따른 정보 구조」, 『한국어 의미학』 23, 한국어의미학회, 23-47
- 김영희(1986), 「복합 명사구, 복합 동사구 그리고 겹목적어」, 『한글』 193, 한글학회, 47-78..
- _____ (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 _____ (2006), 『한국어 셈술화 구문의 통사론』, 한국학술정보.
- 김용범(2004), 「초점과 주제의 음성학적 관련성」, 『언어와 정보』 8-1, 한국언어정보학회, 27-52.

- 김용하(2011), 「격과 조사」, 『국어학』 60, 국어학회, 233-263.
- 김원경(2009), 「목적어의 형태와 기능」, 『우리어문연구』 34, 317-347.
- 김의수(2006), 『한국어의 격과 의미역』, 태학사.
- 김재윤(1992), 「國語 助詞와 名詞類의 統合 樣相 焦點化를 中心으로」, 『어문집』 29, 청주교육대학교, 1-134.
- 김창섭(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47-267. [김창섭(2008)에 재수록]
- _____ (2001), 「‘X하다’와 ‘X를 하다’의 관계에 대하여」, 『어학연구』 3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63-85. [김창섭(2008)에 재수록]
- _____ (2002), 「輕動詞 ‘하다’의 두 가지 보어 —‘하다’-語根句와 ‘하다’-名詞句→」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49-186. [김창섭(2008)에 재수록]
- _____ (2006), 「한국어 “서술성 명사류+‘하-’” 구성의 형태론」, 『日本語と朝鮮語の待詔研究(東京大學21世紀COEプログラム 「心とことば一進認知科學的展開」 研究 報告書)』, (研究代表者: 生越直樹(東京大學)), 1-26. [김창섭(2008)에 재수록]
- _____ (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김태엽(2001), 「기능어의 문법화」, 『우리말글』 23, 우리말글학회, 1-24.
- _____ (2002ㄱ), 「국어 문법화의 양상」, 『인문과학연구』 24, 대구대학교 인문과학 예술문화연구소, 1-22.
- _____ (2002ㄴ), 「담화표지되기와 문법화」, 『우리말글』 26, 우리말글학회, 61-80.
- 남기심(1987), 「국어 문법에서 격(자리)은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가?」, 『애산학보』 5, 애산학회, 57-71.
- 남승호(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 남운진(2000), 『현대 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 노명현(2012), 『의미론 개관』, 한국문화사.
- 두임립(2010). 「주격 중출 구문의 정보 구조적 분석」, 『한국어 의미학』 31, 한

국어의미학회. 1-22.

류구상(1989), 「국어 조사 {를}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102, 국어국문학
회. 117-146.

목정수(2003ㄱ), 「한국어 조사 {가}, {를}, {도}, {는}의 의미체계: 불어 관사와
의 대응성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18,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1-48.

_____ (2003ㄴ), 『한국어문법론』, 도서출판 월인.

문양수(1990), 『한국어 초점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철우(1996), 「국어의 문장 화제-이중 주어 구문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14,
35-50.

_____ (1998), 『한국어 정보 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수(2013),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서태룡(1980), 「동명사와 후치사 {은}, {을}의 기저의미」, 『진단학보』 50, 진
단학회, 97-120.

선우용(1994), 「국어조사 ‘이/가’, ‘을/를’에 대한 연구 - 그 특수조사적 성격을 중
심으로-」, 『국어연구』 124.

성기철(1992), 「국어 어순 연구」, 『한글』 218, 한글학회, 77-114.

_____ (1994), 「격조사 ‘-를’의 의미」, 『한국어교육』 5, 국체한국어교육학회,
31-50.

성광수(1974) 「국어 주어 및 목적어의 중출 현상에 대하여 -격문법론적 고찰을 중
심으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_____ (1981), 「타동성 목적어와 중목적어: 목적어 중출에 대한 재검」, 『어문논
집』 22-1, 안암어문학회, 115-127.

_____ (1982), 「국어 중목적어 구문에 대한 검토」, 『조규설교수 회갑 국어학논
총』, 형설출판사.

_____ (1990), 「국어 중목적어 구성에 대한 재검」, 『한국어문교육』 4, 고려대학
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30-44.

- 손인호(1994), 『국어 조사 ‘을/를’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5), 「국어 조사 ‘을/를’의 실현의 조건」, 『한글』 228, 한글학회, 159-180.
- 신서인(2014ㄱ), 「‘이/가, 을/를’의 비전형적인 분포와 기능」, 『국어학』 69, 국어학회, 69-103.
- _____ (2014ㄴ), 「한국어의 대격 중출 구문에 대하여」, 『제1회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언어유형론 학회·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언어연구소.
- 신창순(1976), 「국어 조사의 연구(2): 격조사의 의미 기술」, 『국어국문학』 71, 국어국문학회.
- _____ (1979), 「국어 조사의 연구」, 『국어국문학』 67, 국어국문학회, 1-21.
- 신현숙(1982), 「목적격 표지 {-를}의 의미연구」, 『언어』 7, 한국언어학회, 119-139.
- 안명철(2013), 「논항 교체 구문의 의미론 - [처소]-[대상] 구문을 중심으로」, 『국어학』 68, 국어학회, 75-98.
- 양정석(1987), 「“이중주어문”과 “이중목적어문”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20,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55-318.
-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한국언어학회, 107-132.
- _____ (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왕문용(1983), 「‘를’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46, 한국어교육연구회, 231-254.
- 우형식(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박이정.
- 유동석(1984), 「양태조사의 통보기능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0.
- 유동석(1998ㄱ), 「국어의 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307-337.
- _____ (1998ㄴ), 「주제어와 주격중출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47-81.
- 유형선(1998), 「격 중출 구문의 필수 이론적 접근」, 『순천향어문논집』 5, 순천향어문학회, 583-602.

- _____ (2001), 「이중 목적격에 관한 일고」, 『한국어의 목적어』, 도서출판 월인.
- 이광호(1994),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탑출판사.
- 이남순(1998), 「격조사」,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83-114.
- 이상규(1980), 「‘을/를’의 범주와 기능」,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 언어 연구회, 123-139.
- 이선희(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조사 {-를}과 논항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수련(2009), 「접 목적어 표현 연구 - 참조점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171-192.
- 이운표(1999), 「국어의 이중목적어에 관한 소고」, 『국어의 격과 조사』, 한국어학회, 월인, 733-741.
- 이은교(2008), 『현대 국어 보조사 ‘를’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민(2003), 「Contrastive Topic and/or Contrastive Focus」. *Japanese Korean Linguistics* 12: 352-364.
- 이현희(1986), 「중세국어의 용언어간말 ‘-흐-’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_____ (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이홍식(2004), 「조사 ‘을’의 의미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15, 한국어의미학회, 303-327.
- 이환목(1976), 「문장 부사 ‘다행히’에 대하여」, 『언어』 1-2, 126-139.
-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도서출판 월인.
- 임동훈(2012), 「‘은/는’과 중형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17-271.
-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연구」, 『국어연구』 29,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_____ (1979), 「用言의 語根分離 現象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55-76.
- _____ (1980), 「{을/를} 조사의 의미와 통사」, 『한국학논총』 2, 국민대 한국학

- 연구소, 91-130.
- _____ (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 임흥빈·장소원(1995), 『國語文法論·1』,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전영철(2005),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43, 한국언어학회, 215-237.
- _____ (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한글학회, 171-200.
- _____ (2009), 「‘이/가’ 주제설에 대하여」, 『담화와 인지』 16-3, 담화인지언어학회, 217-238.
- _____ (2012), 「총칭성과 양화」, 『한국어 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51-76.
- _____ (2013ㄱ), 『한국어 명사구의 의미론: 한정성/특정성, 총칭성, 복수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_____ (2013ㄴ), Focus, Topic, and Contrast(초고), 서울대학교.
- 전은주(1990), 『한국어 ‘초점’(focus)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채 완(1998), 「특수조사」,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115-138.
- 최규수(1999), 『한국어 주제어와 임자말 연구』, 부산대출판부.
- 최기용(2008), 「한국어 주격 중출 구문의 두 유형: 속격/주격 교체의 경우」, 『언어』 33-4, 한국언어학회, 901-928.
- 한나래(1997), 『한국어의 성분부정과 초점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송화(1997), 『국어 자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정한(1999), 「의미격과 화용격은 어떻게 다른가」, 『국어의 격과 조사』, 월인, 361-392.
- 홍기선(1994), 「한국어 대격의 의미」, 『언어』 19-1, 한국언어학회, 287-311.
-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 홍종선, 고광주(1999), 「‘-을’ 논항의 의미역 체계 연구」, 『한글』 243, 한글학회, 141-176.

- Büring, D.(1999), Topic. In P. Bosch & R. van der Sandt (eds.), *Foc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2–165.
- Büring, D.(2003), On D-trees, Beans, and B-accent,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 511–545.
- Daneš, F.(1974),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In F. Daneš (ed.),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106–128.
- É. Kiss, Katalin.(1998), Identificational focus versus Informational focus, *Language* 74-2, 245–273.
- É. Kiss, Katalin.(2009), Scalar Adverbs in and out of Focus, In Katalin É. Kiss(ed.), *Adverbs and adverbial adjuncts at the interfaces*, Berlin: Mouton de Gruyter.
- É. Kiss, Katalin.(2010), Structural focus and exhaustivity, In Malte Zimmermann and Caroline (eds.), *Information Structure: Theoretical, Typological and Experimental Perspe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64–88.
- Fretheim, T.(1992), The effect of intonation on a type of scalar implicature, *Journal of Pragmatics* 18-1, 1–30.
- Grice, H. P.(1967),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Gundel, J. K.(1974), *The Role of Topic and Comment in Linguistic Theor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Gundel, J. K.(1999), On different kinds of focus. In P. Bosch & R. van der Sandt (eds.), *Foc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127.
- Gundel, J. K. & T. Fretheim(2004), Topic and focus. In Horn, L. R. & G.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Blackwell, 175–196.
- Higgins, Roger(1973),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Hopper, P., & E.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역서: 김은일(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 Jackendoff. R. S.(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 Kratzer, A.(1988), Stage Level and Individual Level Predicates, In M. Krifka (ed.), *Genericity in Natural Languages: Proceedings of the 1988 Tübingen Conference*, 247–284.
- Kuppevelt, Jan van(1996), Inferring from Topic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9, 393–443.
- Lambrecht, K.(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고석주 외(2000), 『정보 구조와 문장형식』, 월인.)
- Levin, Beth(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역서: 김두식·안병길(2005), 『영어동사 부류와 교체현상』, 한국문화사.)
- Lyons, J.(1977), *Semantics* 1, Cambridge University Press.(강범모 옮김(2011), 『의미론1 의미 연구의 기초』, 한국문화사.)
- Ryu Byong-Rae(2013), Multiple Case Marking Constructions in Korean Revisited, *언어와정보*, 17–2.
- Surányi, B.(2006) Mechanisms of wh-saturation and interpretation in multiple wh-movement. In L. Cheng & N. Corver (eds.), *Wh-movement: Moving On*, Cambridge, MA: MIT Press, 289-318.
- Surányi, B. (2007) Focus structure and the interpretation of multiple questions. In K. Schwabe & S. Winkler(eds.), *On Information Structure, Meaning and Form*,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229-253.
- Szabolcsi, Anna(1981), The Semantics of Topic-Focus Articulation. In Jan Groenendijk et al(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Amsterdam: Mathematisch Centrum, 513–541.

- Shibatani Masayoshi(1976), Relational Grammar and Korean Syntax -so-called 'double-subject' and 'double-object' constructions revisited, *Language Research* 12-2,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NU.
- Simon C. dik(1978), *Functional Grammar*,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Talmy Givón(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 Talmy Givón(1984), *Syntax - A fuctional Typological Introduction Volume I*,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Vallduví, E.(1992), *The informational component*, Garland: New York.
- Vallduví, E. and M. Vilkuna(1998), On rheme and Kontrast. In P. Culicover and L. McNally(eds.), *The Limits of Syntax. Syntax and Semantics* 29. New York: Academic Press, 79-108.
- Yang In-Seock(1972), *Korean Syntax : Case Markers, Delimiters, Complementation, and Relativization*, Seoul : Paekhap Publishing Co.

<ABSTRACT>

A Semantic and Syntactic Study
on double ‘-leul(-를)’ constructions in Modern Korean

Park, Sung-mi

When considering the precedent discussions regarding double ‘-leul’ constructions or ‘-leul’ itself, there has been a piece conflict between case marker ‘-leul’ and delimiter ‘-leul’ without classifying the syntactic function and semantic-pragmatic function of ‘-leul’. Moreover,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yntactic level and discourse level, although the necessity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m was generally accepted.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def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unctions of case marker ‘-leul’ in syntactic level and those of focus marker ‘-leul’ in discourse level and establish their roles by looking into the meaning and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double ‘-leul’ constructions. Therefore, the researcher systematically categorized double ‘-leul’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eul’s, which were only explained by enumerate manners in the preceeding studies, and analyzed their information structure.

The double ‘-leul’ constructions in this study are the constructions which have double ‘-leul’s in morphological context, and are transitive constructions made of simple sentences in syntactical context. Also, the double ‘-leul’ constructions reveal prominence of meaning when compared to non-double ‘-leul’ 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meaning. In these double ‘-leul’

constructions, the functions and meanings of ‘-leul’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constituent of attachment and distribution, even though their forms could be identica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divided double ‘-leul’ constructions into two categories, namely unmarked double ‘-leul’ constructions and marked double ‘-leul’ construc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eul’s. In addition, marked double ‘-leul’ constructions were divided again into morphological-marked double ‘-leul’ constructions and distributional-marked double ‘-leul’ constructions.

The unmarked double ‘-leul’ construction is a typical accusative case marker ‘-leul’, whereas the marked double ‘-leul’ construction is a ‘-leul’ which has an atypical usage combined with an unaccusative or a non-argument. The morphological-marked double ‘-leul’ is a ‘-leul’ which can be replaced with another appropriate postposition, while the distributional-marked ‘-leul’ is a ‘-leul’ which is used in the position where no case particle is needed at all.

Analyzing the information structures of each cases, in case of the unmarked double ‘-leul’, both topic-focus and focus-topic information structures were available between two arguments of combined ‘-leul’s except for hyponymy relation. This fact indicates that ‘-leul’ functions as a case marker in syntactic level, whereas it can also realize focus meaning according to the context in discourse level.

Also, a tendency of case marker ‘-leul’ could be confirmed – if it was used in more marked manners, the focus meaning of ‘-leul’ in discourse level was more noticeable in syntactic level. In other words, the focus meaning of ‘-leul’ in syntactic level became more significant in distributional-marked ‘-leul’ than in morphological-marked ‘-leul’, and the meaning of morphological one was

more significant than in unmarked ‘-leul’. Furthermore, distributional-marked ‘-leul’ could be understood as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focus meaning of ‘-leul’ from syntactic level into ‘stress’ meaning in discourse level.

Key Words: double ‘-leul’ constructions, syntactic level, discourse level, information structure, topic, focus, case marker, delimiter, accusative, argument, grammaticalization.

Student Number: 2012-22860